

암(癌)이 낫는 것은
복(福)도 아니다

박진호 지음

차례

들어가면서.....	1
1 마 5:1-3 잘 믿는데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6
2 마 5:3-12 암이 낫는 것은 복도 아니다.....	18
3 마 5:3 가난에도 두 종류가 있다.....	29
4 마 5:4 인간이 죽기보다 싫은 것은?.....	39
5 마 5:4 당신은 지금 무엇을 애통해 하는가?	49
6 마 5:4 초월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60
7 마 5:4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야곱.....	72
8 마 5:5 신자가 왜 온유해지지 못하는가?.....	82
9 마 5:5 인생의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92
10 마 5:5 신자라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살아라	102
11 마 5:6 당나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111
12 마 5:6 테레사 수녀를 닮으려 하지 말라.....	121
13 마 5:7 불신자에게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	131
14 마 5:7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	141
15 마 5:7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150
16 마 5:8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 보았는가?.....	160
17 마 5:8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169
18 마 5:9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	180
19 마 5:9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189
20 마 5:10-12 왕따를 당해라.....	199
21 마 5:10-12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209
22 마 5:1-12 당신은 지금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	218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감명 깊은 구절 하나만 들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면 조금 좁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잘 아는 것 하나만 들라면 어느 것이겠습니까? 직접 조사한 적은 없지만 틀림없이 “원수를 사랑하라”(마5:44)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마호메트, 공자, 석가와 함께 사대 성자(聖者)의 반열에 올리는 데는 아무 반론이 없습니다. 기독교도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가장 도덕적인 종교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사한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산상수훈(마5-7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실성마저 의심하는 불신자로선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가장 위대한 도덕적 종교적 스승이기에 그분이 가진 믿음을 본받고 가르침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는 참으로 큰 오해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산상수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았다면 감히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글이라도 그 시작과 끝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화자(話者)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반드시 강조되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로 시작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찌어다. 아멘”(계22:21)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마디로 성경은 오직 구세주로 오신 독생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도 그분을 영접하여 믿고 경배하는 것이 본질이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말로 결론 내립니까? 각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마5:3)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7:27)입니다.

언뜻 보면 두 구절 다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이미 소유한 것임, 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 받은 자의 심령의 상태에 관한 묘사입니다.

마지막 구절도 예수님이 7:13절부터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의 연장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그 열매는 자동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당연히 어떤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 뜻대로 행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산상수훈은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 관한 구세주 예수님의 훈화라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일반인보다 도덕적으로 더 선해야 한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더러 그 나라에 적합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의인이라도 쉽게 따를 수 없는 내용이 많은데 더 엄격하고 심오한 차원이라 그런 것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시각 즉, 온전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면 제대로 이해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죄에 찌든 인간이, 신자도 예외가 아님,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도덕과 종교선생으로 제한하는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성경을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우깁니다. 예수님이 율법주의적, 인본주의적 신앙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요5:39)라고 하신 견책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으로, 산상수훈의 주제를 천국이라고 믿는 쪽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산상수훈의 일관된 주제인 천국은 간과 내지 무시하고 각 구절의 문자적 해석에 치중합니다. 자연히 윤리적 기복적 가르침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강화에서도 동일한 오류는 어김없이 발견됩니다.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3절)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10절)고 마칩니다. 신자가 받는 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입니다. 그것도 이미 확보된 천국입니다.

말하자면 팔복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분만이 신자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강화도 반드시 십자가 복음과 연관해서, 정확히 말해 유일한 근거와 중심으로 삼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혀 그러지 못하거나 복음은 살짝 변죽만 울리고 끝냅니다. 팔복마저 신자가 갖출 인격적 품성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가르쳐집니다. 그것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그렇게 바꾸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다는 식입니다. 이는 큰 잘못입니다.

예컨대 심령이 가난해지거나 온유한 것의 참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실체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또 아무리 대인관계를 바르게 해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는 직접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팔복은 구원받은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참 제자가 이미 되었다면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고 있고 또 드러나야 할 양상입니다. 인격적, 도덕적, 종교적 연습과 훈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받을 복도 벌써 확보된 것입니다. 신자가 주님과

교제만 바르게 유지하면, 도덕적 훈련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조건과 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뀐 신분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 복은 또 현실적 추가보너스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가 소망하는 것을 그대로 받을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자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복입니다. 공홀한 자는 공홀을 받고, 의에 주린 자는 의가 채워지고, 애통해 하니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복도 “핍박을 받은” 것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팔복 전체가 현실적 인간적으로는 고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겐 천국 면류관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팔복을 자세히 보면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모습이 점차 발전 확장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분명 그런 의도를 갖고 말씀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심령만 가난해졌다가 마지막에는 기꺼이 핍박 받는 데까지 이릅니다. 한마디로 신자의 영적 성장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영성훈련과 제자훈련의 교과서 격입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 팔복강화를 감탄문 형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큰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열성적으로 가르치신, 아니 선포한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뉘앙스를 지닌 말씀입니다.

“진실로 복이 있는 자여!

천국을 이미 소지한 자여!

그대 이름은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동행,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복된 것인지 제발 온전히 깨달아서 풍성하게 누리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위로, 평강, 자유, 안전, 만족, 능력, 충만을 얻을 곳은 오직 당신의 품 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평소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신자라면 생생하고도 풍성하게 체험하고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은 누리기는커녕 도저히 알 수도 없는 복입니다. 어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그것도 최종의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로선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불신자가 상상도 못할 복이라면 신자에겐 가장 큰 복이자 반드시 누려야만 할 복인 것입니다.

작금 이런 천국의 팔복이 점차 퇴색, 변질,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도 드물지만 올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쁨에 넘쳐서 크게 소리칠 만큼의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은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 책은 보충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고 많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팔복강화의 해석에 대한 그간의 오류나 이해부족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신자가 처음 구원을 얻어 기꺼이 핍박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영적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의미와 기쁨을 재확인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 저를 비롯해 오늘날의 신자도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키우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핍박받는 자로 합당히 여겨지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믿는데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5:1-3)

신기루 같은 기쁨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오른 2002년 여름 한 달간 모든 한국인들은 평생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커다란 희열을 맛보았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동일한 감격을 누렸다. 따지고 보면 한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도 아니고 국민 각자의 형편이 나아진 것 하나 없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피로했고 생업에 손해를 보았지만 즐거웠다. 사람의 행복은 돈, 권력, 명예, 건강 등 외적 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생생한 체험을 온 국민이 동시에 했다. 유사 이래 없었던 일이며 모두가 일시에 느꼈던 외형적 기쁨만으로 따지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의 기적을 맞본 것에 견줄만할 것 같다.

문제는 4강전에서 독일에 패하자마자 그간의 기쁨이 바닷가에 쌓은 모래 탑이 파도에 무너지듯이, 순식간은 아니지만, 스르르 사라져 버렸다. 그 텅 빈 모래사장에는 “월드컵 후 무슨 재미로 살지?”라는 공포 아닌 공포가 전국을 엄습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자 전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축제를 안 열어서 그런 것인가?

특히 인간의 행복이 외형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라면 더더욱 그간 누렸던 감격이 허무하게 사라져선 안 되는 것 아닌가? 4강의 기쁨이 실체가 아닌 신기루였던가? 준결승에 올랐을 때 누구 할 것 없이 목청은 쉬었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으니 진정 꿈은 아니었다. 도대체 인간의 참 행복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강단에선 기독교는 새벽마다 장독대에 물 한잔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하면서 복 받기를 간구하는 기복신앙과는 다르다고들 말한다. 반면에 전도할 때는 “사업에 실패 한 자 있습니까? 병들어 고생하십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자녀가 대학입시에 낙방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와 고침을 받고 행복해지십시오”라고 권하고 있다. 교회 밖에 대고 하는 말과 안에서 듣는 말이 다르면 모순이지 않는가?

본문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신자를 대상으로 “복이 있나니”라고 약속하셨다. 그것도 원어의 의미로 조금 기쁘고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절정에 이른 최대치의 행복 - 지고(至高)의 복으로 말이다.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신자는 지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신 셈이다. 그럼 솔직히 여러분의 현재 생활이 행복한가? 예수 믿는 것이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 간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행복한가?

두 가지 행복관(幸福觀)

교회 안의 실상은 전혀 다른 것 같다. 불신자 시절처럼 여전히 향방 없는 달음질을 하며 아무 표적 없이 허공만 가르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의외로 많다. 겉으로는 중직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며 좋은 믿음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 내면은 썩어 들어간다. 성령의 거듭난 체험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신자 가운데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리 행복하지 못한 자도 많다.

그 이유는 행복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행복관(幸福觀)을 갖고 있다.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행복을 찾으려 노력해보아야 헛일이다. 신자가 이럴진대 일반인은 더할 수밖에 없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신자의 행복관이 사실은 불신자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일반적으로 행복을 단순히 현실적 행복과 내면적 행복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거나 둘 다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도 이런 구분에 따라 잘 믿으면 매사에 형통하며 병이 낫고 아이들도 일류대학에 입학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은 현실의 복과는 상관없이 죄를 멀리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아니면 둘 다 중요하니까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어야 한다고도 한다.

이는 행복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고의 행복과도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다. 신앙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현실에서 형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지수 조사에서 최고로 못하는 나라 중의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항상 일등하지 않는가? 내면적 행복이 현실적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상식처럼 되었다.

그렇다면 그런 내면의 행복을 가장 진지하게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신자가 가장 행복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실상이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많은 신자가 절감하듯이 정신적, 영적 안녕을 순수하고도 간절히 추구한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 축구가 4강전에서 독일에 지자마자 감격이 사그라진 원인을 이렇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예선만 통과하길 바랐는데 4강까지 올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 졌다고 실망한 것은 너무 욕심이 과한 것이다.” 결승까지 오르지 못한 나쁜 일이 생겼어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즉, 내면의 행복만 추구하면 된다는 식으로 흔히 말하지만 엄밀히 따져 틀린 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만약 한국이 결승전까지 올라가 홈 어드밴티지 일절 없이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3-0 정도로 완벽하고도 정당하게 승리해 우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임시 공휴일이 선포되고 학교는 휴교하고 길거리마다 사람의 물결로 뒤덮여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춤추는 축제가 방방곡곡 열렸을 것이다. 밤새도록 실컷 떠들고 평생 최고로 꿀맛 같은 단잠을 자고난 다음날도 여전히 모두가 행복할까? 물론 그 기쁨은 4강에 머문 것보다는 분명 오래 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라는 걱정은 그보다 수십 배나 더 큰 크기로 가슴을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 얼마 안가 최고로 쓸쓸하고 가장 힘이 빠질 것이다.

분명히 정정당당하게 실력대로 우승했다. 기쁨을 누리는데 주저함, 쑥스러움, 변명, 과장, 자랑이 개입될 이유가 하등 없다. 말하자면 기쁨을 누리려고 과욕을 부린 것도 아니요, 일부러 절제하면서 감사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순수하고도 완벽한 행복이 지속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내면적 행복조차 행복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껏 이해하고 있던 행복관에 뭔가 하자가 있어서 새롭게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Happiness 의 행복관

영어로 행복은 Happiness이다. 이 단어의 어간 ‘hap’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동사 happen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어떤 좋은 일이 발생해야 행복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가 처음부터 내포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행복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해주는 뜻이다.

월드컵 1승, 16강, 8강, 4강까지 오를 동안에는 현실적 내면적 행복 여부를 떠나서 그저 기쁜 일이 계속 생겼으니까 행복했던 것이다. 만약 우승을 하여 최고로 크고 화려한 축제를 즐겼어도 다음 날 아침 행복하지 못한 것도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이다.

한 달 수입이 이천 달러에서 사천 달러가 되면 행복한가? 누가 뭐래도 기쁘다. 목사라도 기쁘다. 그런데 그 4천불 수입이 몇 년간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들은 커가고 돈 들어갈 곳이 많아지기에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만 늘어 간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7천불 수입이 안 되면 힘들다. 요행히 승진해서 그 정도 수입이 되면 다시 행복해진다.

그러나 인생에서 시종일관 좋은 일만 계속 생기라는 법은 절대로 없다. 한 달에 만 불 수입이 되어도 행복하지 않긴 마찬가지다. 그 땀 주위의 고급집이 자꾸 부럽고 철따라 여행도 가야 하는데 그 수입으로는 엄두도 못 낸다. 결국 자꾸만 더 많은 수입을 벌기 위해 평생을 죽어라고 일할 수밖에 없다.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신나는 일이 happen 해야 happy해진다.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 우울해지는 것 또한 모든 인간이 갖는 자연발생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실감하듯이 그런 행복은 마치 무지개처럼 바로 눈앞에 보였다가 잡으려 쫓아가면 금방 저만치 멀리가 있다. 한마디로 기쁜 일이 생겨야만 행복해진다고 여기는 Happiness 로 접근해선 평생을 두고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불신자와 동일한 신자의 행복관

문제는 신자의 생각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다. 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인가?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인간관계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모든 고통과 문제에서 풀려나오기 전까지는 힘이 떨어지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새벽 기도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얼굴상이 쩡그릴 대로 쩡그러진 사람들이다.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신나게 즐기 바쁜데 새벽 기도까지 나올 여가가 어디 있겠는가? 40일 작정 새벽기도에 개근하거나 금식기도원에 올라가 울부짖는 자는 믿음은 좋은지 몰라도(?), 참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도 기도하던 제목이 천신만고 끝에 응답되어야만 비로소 얼굴이 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오묘한 기도 응답도 잠시 잠깐 뿐이다. 새벽기도를 잘 나오던 신자가 오래 동안 뜸하다 갑자기 또 죽을상을 하고 나타나면 담임 목사의 가슴이 철렁한다. “저 집사님 택에 또 무슨 위급하고 힘든 일이 생겼나 보다.” 신자가 기도 응답이 되어야 겨우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다면 단지 종교적 용어와 행사로 치장했다 뿐이지, 반드시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나야 행복해지는 일반인들의 행복관과 하나 다를 바 없지 않는가?

이는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도 동일하다. 부흥회에 은혜 받거나 기도원에 며칠만 올라갔다 오면 인생의 먹장구름은 말짱하게 걷혀버린다. 현실에서 형통하거나 풍요로워진 것이 전혀 없어도 그렇다. 그리스도 십자가 군병으로서 이제 곧 세상 죄악과 마귀를 다 두들겨 잡고 세계를 평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설쳐댄다.

그러다 며칠만 지나면 또 다시 시들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에 내면적, 정서적, 영적으로 감동 받아 충만했던 상태가 차츰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도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났기에 행복했던 것이다. 여전히 happen해야 만 happy해지는 습관과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신자들이 좀 더 화끈하게 은혜 받을 집회가 없는지 두리번거리고,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을 다시 맛 볼 수 없을까 항상 고민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인간이 행복(happiness)을 추구하면 끝이 없다. 평생 가도 기쁨이 없다. 인생에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기도 하지만 좋은 일에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한계효용체감(限界效用遞減)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더 기쁘고 풍성해야 그나마 만족할 수 있다. 같거나 덜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큰둥하다. 그래서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다. 아니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부족하다. 완전히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행복은 신기루가 되어 공중에 떠다니고 현실에선 갈수록 힘만 빠질 뿐이다.

우리 모두가 현실과 영적 차원 양 쪽에서 지금껏 경험한 대로다. 돈은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어려운 일은 자꾸만 더 생긴다. 제대로 충만한 안식을 누릴 짬이 없다. 불신자는 행복을 위해 돈만 벌려고 하고, 신자도 여전히 행복을 위해 기도만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물질적 형통이든 정신적 안정이든 간에 꼭 기쁜 일이 일어나야 겨우 만족하는 습성에 완전 물들어 있다.

역으로 따지면 인간 본성이 간사하고 그 욕심이 끝이 없기에, 혹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간단하게 진단하고 치우는 것은 이 문제의 정곡을 찌른 것이 아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좀 더 깊은, 최소한 지금과는 다른 측면에서 성찰과 접근을 요한다.

교회의 순진한 행복교육

그런데도 강단에선 너무나 단순히 외형적, 현실적 형통이 행복이 아니고 정신적, 도덕적, 영적 성숙이 행복의 본질이라고만 가르친다. 그래서 좀과 동록과 도적이 들끓고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오직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한다. 너무나도 순진하게서리 도덕적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영적 충만도 자기가 정해 놓은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 쉬운 예로 올해만은 성경을 일회 통독하기로 결심했는데 일주일 만에 유야무야 되었다면 자괴감과 죄책감만 들 뿐이다. 반드시 일회 통독을 해내어야 기뻐진다. 간절히 40일 작정 기도하면, 일주일 금식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무 진전이 없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마찬가지로 행복하지 않다. 기도하면 당연히 일어나리라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갖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자체를, 더 정확히는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한다. 물론 이는 절대적 진리다. 그럼에도 이 역시 자칫 신자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 “자동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분명히 영적으로 신령한 행위를 했으니, 마땅히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비록 그 풍성해지는 일 자체는 영적일지 몰라도 여전히 happen의 행복관의 틀에 묶여 있는 셈이다. 일종의 영적 기복주의라 말할 수 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기도 적게 하고, 말씀 보지 않고, 봉사와 구제에 게으르기 때문만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happen의 행복관을 갖고 있는 한에는 걸 무늬만 영적이지 그 심령에 아직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신앙생활에 게으른 것이 행복해지지 못한 근본원인이라고 맞는다면, 역으로 따져 실제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에 불행하다고 저절로 처절히 깨달아지고 고통스러워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괴롭고 힘든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요컨대 어떤 일이 현실적 정서적 도덕적 종교적 영적이든 불문하고,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인간은 본성적(거의 자동적이라는 의미)으로, 기쁜 일이 happen 하지 않으면 happy 해지지 않는 법이다. 신자의 행복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행복이 아니라 축복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행복(幸福, Happiness)이 아니라 축복(祝福, Blessing)이다. 인간이 추구하여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에게 은혜로 부여하시는 복이다. 또 다시 선부르게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거나 내면이 충만해진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영어 Blessing의 어원은 제단에 피를 뿌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Bleed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신자를 비롯해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가 세상에서 실현하려 했던 소망과 욕심의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 절대 아니다. 정말로 큰 욕심 안 부리고 소박한 꿈을 가진 자도 많다. 불신자 가운데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대로 내가 가진 꿈의 크기를 줄여서 절제 한다고, 나아가 물질보다 정서적 만족을 찾는다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 스스로 예상 혹은 계획한 만큼 정서적 절제가 안 되면 또 다시 나는 왜 이리 의지력이나 믿음이 약하지 한탄하면서 추구했던 내면적 안정조차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체는 자신의 소망이나 추구 대상을 수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Happen의 행복관부터 머릿속에서 뿌리 채 철저히 뽑아내는데 있다. 아무리 영적인 차원이라 해도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 도달하려는 수준이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영적으로 달성해야 할 최종목표지점이 있다. 각자가 자기에게 적합한 현실적 목표를 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도달해야 한다. 문제는 자기가 계획한 단계에 이르면 행복해지리라 기대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인간 내면에는 어떤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감정을 통제해 정신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소원과 능력이 이미 잠재되어 있다. 심리학에선 고통이나 상처를 스스로 잊거나 처리하려는 방어기제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정신적 병균을 이겨내는 정신적 면역력이다. 인간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지혜롭게, 정확히 말해 아예 다른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런 정서적 자정(自淨) 능력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매워져야만 할, 부분이 인간 내면에 따로 있다. 구조적, 본성적, 태생적으로 인간 심령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인간에게는 정신 외에 영혼이 따로 있는데 그 영혼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던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그분이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생령(生靈)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살아 있는 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 될 수밖에 없다. 생명은 있으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갈급하며 충족되지 않는다. 지정을 통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성실히 절제해보지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에서는 만족과 행복을 절대 구할 수 없는 존재다.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선 자신의 부패된 영혼으로는 그분의 복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부터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십자가 속죄 제단 위에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단순히 윤리적 죄를 회개하고 과욕을 부린 것을 반성하여 용서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다.

지금 논의하는 주제에 빗대 말하면 현실적, 정신적, 영적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행복해지리라 믿었던 것만큼 착각 중의 착각, 더 정확히는 오류 중의 오류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말하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한 것 같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2:13)는 진정한

고백이 나와야 한다.

밑 빠진 독 같은 인생

큰 사건을 저지르고 절간으로 피신한 폭력배들과 스님들 간에 생기는 일을 코믹하게 그린 “달마야 놀자”라는 한국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스님들과 폭력배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게임을 해서 이기는 측의 뜻대로 해주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보다 못한 주지 스님이 밑 빠진 독을 들고 와서 그 독에 물을 먼저 채우는 쪽이 이긴다고 했다. 당연히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자 한 스님이 깨어진 독에 자기가 들어갔다. 모든 것이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으므로 내 마음속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내가 독 안에 들어 왔으니 독에도 물이 가득 찬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불교식 해법이었다. 이젠 승부가 결정 난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폭력배 두목이 밑 빠진 독을 들고는 연못에 빠트려서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했다. 밑은 빠졌지만 진짜로 독에 물은 가득 찬 모습이 되었다. 과연 어느 쪽이 게임에 이긴 것일까?

인간의 참 행복은 가장 먼저 내 존재 자체가 밑 빠진 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욕심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채워지는 것의 질이 형이하학적인지 형이상학적인지에 따라, 아니면 탐욕인지 소박한 바람인지에 따라 인간의 행복도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미 밑이 빠져 있기에 원천적으로 어떤 수를 써도 채워질 수 없음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한다.

불신자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밑이 빠진 독인 줄도 모르고 그 빠진 상태로자기 힘으로 물만 채우려 하는 자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밑 빠진 독인 줄은 알게 되었지만 스스로 채우려 들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만 바꿔 먹으려 애를 쓴다. 예의 영화에서 스님이 행한 불교식 해법에 머문 것이다. 결국 독에 물을 못 채우기는 불신자들과 똑 같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까닭이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그 독이 채워진다. 폭력배 두목이 밑 빠진 독을 물속에 완전히 잠겨 물을 채웠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라는 존재와 삶과 인생이 꼭 잠겨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 죄악, 염려, 분노, 눌림 등 그 무엇이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

안으로 완전히 던져 넣어야 한다.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정말로 추하고 더러워 구원의 가능성이라고 전무했던 나의 모든 죄와 상처와 고통을 그분께서 하나 남김없이 다 감당하셨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이 기다리는 것이라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죽는 것뿐이었다.

예수님이 말하는 지복은 이처럼 당신을 구주로 모신 것이다. 바로 예수 믿은 것이다. 너무 싱거운 것 같은가? 결코 아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은 것이다. 정확히 말해 천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보배로 와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면 나는 진짜 천하와 맞바뀐 존재다. 정말로 예수 믿는 신자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꿰어낼 것이라곤 우주 전체에 단 하나도 없다. 나아가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다른 모든 좋은 것으로 전혀 아낌없이 주실 것이다.

신자는 기도 응답 받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이므로 장차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는 자가 결코 아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미 행복해진 것이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무엇이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이다.

바뀌 말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행복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으로는 내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을 철두철미 깨닫게 된 것이다. 밀 빠진 독처럼 허무와 갈증만 가득 찼던 인생이었고, 신자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 독은 깨진 채로 있다는 것을 한 시도 잊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그 밀 빠진 독이 따뜻하고 푸근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이미 잠기어져 있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분이 나를 채우시고 붙드시는 힘은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다. 십자가 사랑의 웅덩이에 인생 전부가 풍덩 잠기어 있지 않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실감한다.

신자마저 좋은 일이 Happen 해야만 행복해진다면 아직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사단과 자기 속에 남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꾸만 훼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신자는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미 완벽하게 바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격, 소속, 위치, 특권을 묵상하면서 기꺼이 그분 뜻대로 순종할 때에만 기쁜 일이 주는 Happiness 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Blessing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

신자에게 행복은 불가능하다.

신자는 환난이나 상처를 당해 믿음이란 이름으로 단순히 자신의 의지로 자족하거나, 마음을 바꿔 먹어 달관하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된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무관하다. 반면에 현재 아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아니 고통이 더 심해져도 주님의 사랑의 연못 안에 잠겨 있다는 것만으로 감격과 희열이 넘쳐야 한다. 갈수록 나나 주위 사람의 것이 아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자신을 사로잡고 있음을 날마다 체험해야 한다. 심지어 자기 속에선 불평, 의심, 분노가 자꾸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절망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그 깊은 웅덩이 속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값지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라도 그 불행의 연못에 있는 신자를 빼어내지 못하며 심지어 흔들지도 못한다. 대신에 그 연못에서 빠져 나오든 안 나오든 주님이 부어주는 지복으로 인해 날마다 그분께 가까이 가길 소원하게 된다.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 십자가 연못에 자꾸자꾸 깊이 잠기게 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화려한 유혹이나, 최악의 시험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막다른 환경 앞에 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해진다.

신자는, 아니 모든 인간은, 현실에서 기쁜 일이 일어난다고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 인류 역사상 Happen한 일 중에 가장 크고 좋은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지 않는가? 그로 인해 역사가 둘로 나뉘었지 않는가? 또 신자 개인에게 가장 큰 happening도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 아닌가? 그럼 더 이상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인류 전체로나 신자 개인으로나 예수님보다 더 좋을 리는 없다.

그분을 모르는 불신자는 여전히 세상의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슈퍼로도 같은 현실적 대박이 그들 행복관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다. 반면에 신자로선 아무리 행복(Happiness)을 추구해봐야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 한계효용체감법칙으로만 따져도 최고로 기쁜 일 즉,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은

일(Blessing)이 이미 일어났는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믿은 후에 첫사랑의 감격보다 더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는가?

만약에 이 진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직도 십자가 구원이 자신에게 가장 기쁜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 된다. 나아가 자신은 여전히 blessing 대신에 happiness를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만 빌려서 추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려야한 했던 피를 그 아들로 대신 흘리게 하여 마땅히 죽었어야 할 우리를 살리어서 당신의 자녀로 인 쳐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새 생명이 되는 복(Blessing)이다.

모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시작되고 완성된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행복해지리라 제발 기대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Blessing) 안에 잠기기를 소원하라. 아니 이미 그 안에 잠겨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 그럼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관계없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신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참 행복의 구체적 내용을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암이 낫는 것은 복도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5:3-12)

왜 예수를 빨리 전해 주지 않았나?

미국 회사에 다니는 후배가 있는데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오후 2-3시에 나가는 것도 예사고 어떤 때는 평일인데도 출근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이 제 때 나온다.

그 이유는 컴퓨터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별로 일이 할당되므로 근무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회사로선 말은 일만 제 때에 해내면 정시에 출퇴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 삼을 이유가 하등 없다. 그러나 일반 회사 직원이 볼 때에 그는 근무태도가 너무나 나태하고 불량한 회사원으로 비친다. 컴퓨터 회사의 내규와 하는 업무의 내용을 모르기에 엉뚱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33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절실히 느낀 것 중의 하나는 기독교 진리를 외부에서 너무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도 덩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종교인이라면 착하게 살면서 남을 도와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은 말만

앞서고 행동이 뒷받침 해주지 않는 것같이 보인다. 그래서 기독교 자체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지레짐작해버린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처럼 단순히 착하게 살며 이웃에 구제를 베푸는 것이 그 본질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그분과의 일대일의 인격적 만남이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기독교의 본질을 믿음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야 세상에 통용되는 잣대로 기독교 신앙을 선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을 알고 난 후의 제 솔직한 심정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비유한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발견한 것과 ‘나’라는 존재 전부와 맞바꾸었으며 그 분께 인생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었다. 그 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체험하는 삶은 한 마디로 감격 그 자체였다.

그렇다고 성령의 외적 은사가 넘쳐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신령해지는 체험을 항상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때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속에 꽉 막혀 있었던 것들이 시원하게 뿜 뚫려버렸다는 뜻이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께서 그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를 알고 붙들고 계시며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 일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계시므로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생기는 자유함이었다. 더 이상 이전의 갈등과 주저와 방향이 없어졌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심지어 왜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누가 나에게 진작 전해 주지 않았는지 원망마저 들었다. 믿고 난 얼마 후부터는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해 이전의 나처럼 복음을 오해 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불신자들에게 이 진리를 제대로 전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물론 불신자를 말로 설득하여 오해를 풀다고 기독교 복음이 쉽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 문이 열려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조금이라도 쉽게 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진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오해 되는 팔복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성경에서 외부로부터 (심지어 대다수의 신자를 포함하여) 가장 오해 받는 부분이 산상수훈이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팔복 강화다. 각 구절별로 구체적으로 따지기 전에 우선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하나만 살펴보자. 바로 신자가 자신의 성품, 인격, 기질 등을 윤리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팔복을 주신다고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뜻도 모르고 마음을 겸손하게 먹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본인은 어떤 피해도 감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뭔가 의롭고 선한 일을 찾아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영적 부담을 가지기도 한다. 그런 노력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며 본문에 그런 뜻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윤리 도덕적인 뜻은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하다, ‘온유’하다, ‘청결’하다는 등의 용어의 뜻 자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나쁜 것을 피하지 않고 착한 일만 생각하여 실천하려는 고상한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 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요컨대 신자들이 단순히 “...하면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심령이 가난해지려 노력하는 것이 복을 받는 조건, 전제, 수단, 방법 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이 있나니”라는 원어의 문법적 구조는 서술문이 아니라 감탄문이다. 따라서 좀 더 정확히 그 의미를 드러내려면 “복이 있음이여!” 혹은 “복이 많은 자여! 그 이름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러라.”라고 해야 맞다.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들 그 자체가 이미 아주 좋은 복,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신자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어 보상으로 더 받게 되는 복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에는 크게 3가지 유형(Type) 내지 단계(Step)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형’이라고만 하지 않고 구태여 ‘단계’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3가지를 다 거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하나 혹은 두 개로 그치는 경우도 많다.

첫째는 별다른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고 단조롭게 살다가 그 상태로 죽는 경우다. 누구나 살아가는 그런 평범하고도 일상적 생활에 자족(?)하든지 더 이상 다른 좋은 것을 찾지 않거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평생 동안 자기 인생에 만족이라고는 도저히 느끼지 못하고 항상 공허하며 정신적 갈등과 번민 속에 지나지만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무엇인가 빠진 것은 분명한데 그 실체를 몰라 해마다 생을 마감한다.

셋째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찾아 누리며 사는 자다. 가슴이 뻥 뚫린 듯하며 더 이상 속이 갑갑하게 차 있는 상태가 없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열리며 계속해서 그 영역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인생을 마친다.

이 분석에 비유하자면 신자란 세 번째 인생에 해당하며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 된다. 즉 팔복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됨으로써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다. 도덕적, 종교적으로 열심히 수행 노력하여 쟁취하는 복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미 확보된 복인지라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땅에서 현재 누리고 있고 또 누려야 할 지고한 복이다. 죽은 후에 가서 받는 보상이 아니다.

예컨대 심령이 가난해지길 노력하면 하나님이 귀엽게 보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번 달 수입을 이천 불에서 곱절로 올려주고 몸 아픈 것을 낫게 해 줄게”가 아니다. 또 불신자라도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도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 상으로 천국 입장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 팔복은 인격과 품성을 윤리적으로 거룩하거나 완벽한 수준으로 갈고 닦으라고 주신 훈련 교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준수하면 호박이 덩굴째 굴러 오듯이 복도 8개나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

무엇이 공홀인가?

차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자. 다섯 번째의 “공홀히 여기는 자”라는

의미를 일반적인 상식과 윤리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적, 사회적, 인격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열등한 자에게 베푸는 도움으로 그 반대는 있을 수 없다. 내가 남보다 어떤 면이든 가진 것이 많을 때에 그 비교 잉여분으로 상대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다.

어떤 동네에 불이 났는데 구경하던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에게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 저 사람들처럼 불에 탈 집이 없으니까 저 난리를 안 쳐도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개그에만 통하지 현실에선 성립이 안 된다. 세상에선 거지가 부자에게 공홀을 베풀 수는 없다.

그러나 신자는 아무리 인격이 고상하고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모든 면에서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자라도 그 영혼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오히려 그를 향해 가장 큰 공홀을 품는다. 그것도 신자의 현실적 형편이 잘 나가고 가진 것 하나 없고 인격적으로 크게 존경 받는 자가 아니며,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라 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아는 자라면 그렇게 된다. 상식적인 공홀과는 차원이 다른, 나아가 예수 믿기 전에는 꿈도 못 꾸던 공홀이다.

사람의 인격, 지위, 신분, 수입, 교양의 높고 낮음을 떠나 영혼이 메마른지 충만한지만 공홀을 베푸는 기준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공홀이 영적으로 신령하고 품성이 고상하고 거룩해졌다는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내가 가진 잉여분으로 상대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세상의 공홀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신자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 속에는 자신이 받아 누리는 예수 안에서의 새 삶이 가지는 기쁨, 평강, 자유, 위로, 능력 등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나아가 아예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공급 받는 것으로 그들에게 나눠준다.

그렇지만 생명과 능력 자체를 나누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 원천(源泉)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뿐이다. 알기 쉽게 비유해 먹을 것이 무진장 쌓인 창고를 발견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그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는 셈이다. 신자도 거지요 불신자도 거지이긴 마찬가지인데 단지 창고를 발견한 거지와 발견하지 못한 거지의 차이만 있다. 바클레이의 표현대로 하면 불신자는 두 번째 타입이요 신자는 세 번째 타입일 뿐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있지 않으면 얼마나 무미건조하며 황량한 삶인지 이전에 똑 같이 겪어 보았기에 신자로선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따라서 이 공훈은 신자의 인격이 도덕적으로 순화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며 또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불신자에게 전도를 많이 하면 하늘의 면류관이 따로 거창하게 예비 되어 있음을 믿기에 그것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기쁨과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수를 모르는 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메어지며 눈물이 글썽이고 그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상대의 공허하고 허무한 심정이 나에게 옮겨와 자신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하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고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알량한 자존심과 지식으로 세상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발버둥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돈 벌고 병이 나아 그 곤경에서 벗어나느니 차라리 계속해서 곤경에 처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물론 당장 그 사람의 어려운 현실적 형편 때문에 가슴은 메어지기에 계속해서 그 문제도 함께 기도하지만 말이다.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 어차피 구원 될 자를 꼭 기를 쓰고 전도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는 구원에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한 자는 반드시 그분이 구원 하신다. 말하자면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전도에 게을러지면 신자가 된 후에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려보는 시간과 기회가 줄게 된다. 아니 먼저 믿은 신자가 후에 믿을 신자를 방해한 꼴이다. 신자가 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특권을 제대로 아는 자는 예정과 관계없이 어서 빨리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게 된다.

예정 여부는 신자가 알 길이 없다. 구원 자체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전도는 신자가 때를 얻든 못 얻든 해야 한다. 바울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속이 타게 된다. 종교적 의무감으로 부득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불신자를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공훈이 자기도 모르게 끓어오르기 때문이다.

신자는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현실적 형통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됨을 날마다 순간마다 절감하는 자다. 주위 불신자들도 그것을 동일하게 누려서 삶과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공훈의 참 뜻이다. 단순히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다. 사단에 묶인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주님의

일에 참여 못해 안달하는 것이다.

진정한 복의 의미

그런데 더 놀랍게도 예수님은 팔복 강화에서 신자가 누리는 새 삶의 기쁨에는 단계가 있고 갈수록 아주 큰 기쁨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팔복에 대해 신자가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나는 화평케 하는 재주는 없지만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은 있다, 혹은 나는 성격이 괘괄해서 온유하지는 않지만 화끈하게 남들을 화해시키는 은사는 있다는 식으로 하나씩 별개로 떼어 생각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신자가 겸손한 것인지 게으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복을 여덟 가지나 주셨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누려도 황송하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만다.

그러나 팔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신자로서 누려야 할 삶을 의도적으로 순서에 따라 배열했음을 알 수 있다. 아주 간단히 따져보면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둘째 복인 애통해 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내부든 외부든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다 점진적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하는 식으로 단계를 높여 나가다가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자란 예수님을 발견한 자다. 지금 본문도 제자들을 포함하여 바로 그런 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다. 신자답게 살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지 단계별로 가르쳤다. 요즘 식으로 치면 영적 성장에 관한 세미나를 주최하신 셈이다. 또 산상 수훈 전체의 주제가 천국에 관한 것이며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필수 코스 및 출발 과정으로 이 팔복 세미나를 시작한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팔복은 감탄문 형식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와 뉴앙스로 말씀하신 것이다. “다들 모였구나. 너희들 앞으로의 일생에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느냐? 첫째로 이런 일… 둘째로는 저런 일… 그래서 무려 여덟 가지나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누리려야 누릴 수 없는 그런 지복(至福-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야! 너희들 모두 언제 어디서든 여덟 가지 복을 받아 진짜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어! 너무 기대되고 설레지 않니?”

그런데 지금 이 감격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였는가? 4장 마지막 부분의 설명대로 평생의 고질병이나 불치병을 고침 받은 허다한 무리들이다. 말하자면 방금 암이나 중풍에서 해방되어 평생에서 최고로 신이 나있는 자들이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를 인하여 욕먹고 뺨박 받고 거짓 속임을 당하는 것이야. 그 진정한 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 그래서 천국을 보고 소유하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역으로 말해 암이나 중풍이 나은 것은 신자로서 복이 시작된 것도 아니요, 천국을 소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암이 낫는 것과도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복을, 그것도 8가지나 누리라고 초대하는 것이다. 이 설명이 진정으로 영혼에 와 닿아 은혜가 되며 절로 아멘이 나오는가? 아니면 최소한도 이해라도 되는가?

예수님은 ‘당신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박해와 상처를 받고 모함과 위협에 빠질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11,12절)고 하셨다. 지금 신자 개인의 욕심이나 죄 때문에 받는 뺨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때문에 받는 뺨박과 환난이다. 예수를 모르는 자를 위해 전도하고 밤새 기도하여 듣는 욕이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참 신자는 하늘의 상을 예상할 필요가 없다. 정말 미혹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본 자라면, 어떤 비방과 모함을 받더라도 담대하게 뺨박을 당한다. 오히려 뺨박을 피하거나 타협함으로써 자기 속에 있는 참 기쁨이 상실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행5:41,42)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고달플 수 있다. 예수 믿는 신자를 흔히 거머리 같다고 하는데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을 어떤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행복만큼 이 땅에 따로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보상과 칭찬 하나 안 받더라도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비방을 받더라도 저절로 거머리가 되기를 자원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지금 당신은 이 여덟 단계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아니 신앙의 목표를 진정으로 이 팔복을 누리고 싶은 것으로 삼고 있는가? 엄밀히 따져 교인 중 백이면 구십 이상이 아직 심령이 가난해지는 단계도 졸업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나는 성격이 온유하고 인격적으로도 크게 하자가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남에게 크게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당하고 손해만 보고 있어”라는 불신자시절의 뉘그러를 여전히 핑계 삼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핑계는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소심하고 비겁하게도 착한 척할 때 습관적으로 내뱉는 변명에 불과하다. 신자에게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 교만하고 방자한 말이다. 복음의 참 은혜를 알고 누린다면 감히 해선 안 되는 말이다. 역으로 십자가 복음의 참 뜻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는 증거다.

법 없이 살면서 남에게 큰 잘못 저지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세상에선 통할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는 그만큼 자신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말도 없다. 신자가 아직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남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만 자랑한다면 십자가의 권능과 은혜 앞에 한 번도 진심으로 항복한 적이 없다는 표시다.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휴지 조각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일 뿐이다.

신자가 다른 이와 비교한 상대적 의를 자랑하는 것은 긍휼의 측면에서도 아직도 자기의 잉여분으로 남에게 적선해준 적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다른 이가 어려울 때마다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도와고, 특별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을 뿌려가며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자기의 자기됨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만 이뤄졌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헛소리는 절대 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죄인 중의 죄수라는 처절한 고백만 절로 나오게 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의 직원 자격은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에 달렸다. 회사의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한 그 회사의 특성상 지각한다고 남이 비난할 이유는 없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모르고 있는 외부로부터 얼마든지 오해 받고 욕먹을 수 있다. 그러나 신자 스스로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의미를 제대로 알아 그 구원해 주신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1:9)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다. 영혼 구원이라고 예수 믿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즉시로 선악간의 절대적 기준이자 우주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서 그 분의 사랑과 은총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그 후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분과의 사귀이 있으며 그 분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일생을 살아 나가는 것이다.

바뀌 말해 팔복에 규정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나가 즉,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지극한 복을 인생의 단계별로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팔복의 첫 구절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 복이 있나니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된다. 신자는 지금 서 있는 이 땅과 바로 이 순간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설령 세상에선 모함 받고 욕 듣고 핍박당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밟고 있는 땅이라면 이미 그것은 복 받은 땅이다.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서 사방으로 뚫아 나가는 땅 모두를 예수님이 신자의 것으로 바꾸어준다.

다시 말하지만 팔복은 성령의 은사처럼 신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눠주거나 알아서 찾아 먹는 개별적인 여덟 복이 아니다. 신자에게 돌아오는 보상으로서의 궁극적 복은 사실상 오직 하나 ‘천국’뿐이다. 말 그대로 오직 하나 “하나님과 사귀며 동행하여 그 분의 통치를 받는 복”뿐이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왕이시고 신자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덟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신자가 된 후 신자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단계별로 자라가기 때문이다. 신자가 받을 천국의 복은 물론 하나지만 단지 장소, 시간, 여건, 사람, 사건마다 겉으로는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더 완전하게 순종할수록 그 복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깊이, 넓이, 높이가 커진다. 세상의 복은 한계효용이 체감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팔복은 그 반대로 체증된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핍박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에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커져서 복이 최고 절정에 이른다.

다시 한 번 솔직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자문해보라. 정말 예수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핍박 받는 것이 예수께 기도해서 암이나 중풍 나은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임을 확신하는가? 세상과는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체험해 보았는가? 아니 알기라도 하는가? 예수님이 당시에 팔복을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감탄해가며 말씀하신 이유를 제대로 알겠는가? 그 기분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가난에도 두 종류가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5:3)

기대에 너무나 어긋나는 첫째 복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과 평생 고질병에서 기적적인 고침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날아갈 듯이 활기차고 기쁨에 겨워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을 것이다. 또 그 고쳐준 사람에게 평생을 두고 보은(報恩)할 것이며 그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할 것이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허다한 무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좇아 왔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중풍에서 일어나고 암이 나은 것을 두고 그렇게 흥분하고 기뻐할 것 없다. 하나님을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복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암이 낫는 것 정도는 복의 시작도 아니고 정말 더 신나는 일은 따로 있어”라는 뜻으로 복에 관한 여덟 가지 강화를 이제 시작한다. 따라온 무리들로선 이야말로 ‘뽕 먹고 알 먹고’이며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는가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복은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내용이었다. 상식적으로 고질병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동안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했고 아무 일도 못했으므로 직업부터 구해 정상적 사회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빚도 갚고 가족도 돌봐야 하며 혹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미리 보험을 들어야 한다. 당연히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마디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고 한다. 물론 심령이 가난한 것과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다른 뜻인 줄 대충 짐작은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하필이면 ‘가난’이라는 단어를 골라 썼을까? 육신을 고쳤으니 이제 정신을 고치라는 것일까?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며 검소하게 살라는 것일까? 병 나은 것에 너무 흥분해서 설치면 감정이 앞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절제하라는 뜻인가? 큰 기적을 맛보았으니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말인가?

팔복은 신자의 영적 성장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럼 첫째 복은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된

직후에 느끼는 감격과 누리는 복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이 어떠했는가?”이다. 과연 심령이 가난해졌고 그래서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는가? 아니면 단지 정말 기쁘고 좋았다는 것은 기억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가? 도대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가 신자로 바뀐다는 근본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자가 어디 있는가?

불신자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전도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격렬하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자신이 죄인임을 어느 정도는 수긍한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 다 죄인이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사람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수긍할 수 없어”라고 한다. 막상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딱 막힌다.

왜 그런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죄와 죄인에 대한 개념이 기독교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를 실수였든 고의든 자신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과오와 허물만으로만 이해한다. 나쁜 짓 한번이라도 안 해 본 자는 없다는 의미에서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 정도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을 이유에 대해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노력하면 자신의 허물과 이전에 범했던 죄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또 고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자기 죄와 이천 년 전 로마의 한 사형수의 죽음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고 하니 종교적 억지인 것 같다. 그 반면에 예수 믿는 자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은데도 아무 하는 일 없이 구원 받았다니 오히려 신자들이 위선자로 보인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우연히 한국 TV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다. 엄마가 불치병에 걸려 수술비가 엄청났고 아무리 수술이 잘되어도 평생을 핸디캡으로 고생해야 할 형편이었다. 요즘 말로 커리어 우먼(Career Woman)인 외동딸이 엄마를 모시고 있었다. 그 일로 골치가 아파 스탠드바에서

친구랑 술을 마시며 의논하는 가운데 대충 이런 식의 아주 솔직한 고백을 했다.

“나는 내 자신이 이럴 줄 전혀 몰랐어. 지금까지 나만큼 똑똑하고 착하고 교양이 넘치는 자가 없다고 자부해 왔어. 최소한 남들에 비해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주 큰 착각이었어. 그 동안 엄마를 부양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기에 나름대로 효도를 꽤 잘 하고 있다고 믿었어. 그런데 이번 일을 당하고 보니 수술비와 그 후에 평생을 수발할 일이 엄마보다 더 걱정되는 거야. 왜 저런 불치병에 걸려 나를 고생시키나? 차라리 일찍 죽어버리지. 나 혼자 모른 척 외국에 나가버릴까라는 생각이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생각보다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 있지. 생전 처음 내가 겨우 이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랐어.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졌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있지. 지금까지는 나의 진짜 모습이 밖으로 드러날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었지 사실 나는 죽 이런 사람이었어. 이번에 이런 큰 곤경이 없었다면 아마 평생 나는 잘나고 착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다 죽었을 거야.”

타 종교인을 비롯해 모든 불신자가 갖는 죄와 죄인에 대한 개념이 기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여인은 말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거의 틀림없이 모든 수를 동원해 엄마를 수술 받게 하고 또 핸디캡이 되더라도 평생을 보살필 것이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선 도덕적으로 전혀 죄가 없으며 오히려 선행을 한 그럴 수 없는 효녀로 끝까지 남을 것이다. 세상 윤리와 여타 종교에선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죄인의 정의는 오직 죄스런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의 실제 속마음은 어떠했는가? 엄마가 죽어 버렸으면 싶었다. 아마 너무 힘들다 보면 자신이 직접 죽이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들 것이다. 비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지라도 죽일 수 있는 방법마저 궁리할 수 있다.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심지어 효녀로 칭찬 받을 것이지만 과연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기는 원래부터 철저하게 추악한 존재였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실토했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최고의 의인으로 대접해 줄 것이다.

기독교에선 이 여인의 경우에서 보듯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지적한다. 죄란 인간의 영혼 자체가 부패되어 있고 내면의 자아 전체가

썩어 있어서 인간 속에서부터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튀어 나오는 것이다.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같이 휩쓸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여인은 교양, 인격, 도덕성 심지어 종교성마저 모든 주위 사람들과부터 평균 이상 아니 최상급(A+)으로 인정받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런 평가와 칭찬과는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는 자신은 더럽고 추하다고 인식했고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자신 속에 이미 있더라고 정직하게 고백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그 폐부까지 완전히 뒤집고서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대면하여 솔직히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두 종류의 가난

헬라어로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품삯 받는 일용직 노동자, 요즘으로 치면 Blue Color는 대체로 최저 생활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쨌든 굶어 죽지는 않고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다. 이때는 상대적 가난을 의미하는 ‘페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반면에 본문에선 ‘프로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단돈 10볼도 벌 수 있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가난이다. 소경, 문둥병자, 고아 같이 아무런 생활 대책을 세울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helpless) 절대적 가난이다. 예수님의 뜻은 심령이 ‘프로코스’ 즉, 절대적 가난의 상태가 되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죄란 인간의 자아와 영혼의 상태가 이미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것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궁핍한 재정 상태, 나쁜 친구의 뽀, 부모의 잘못된 고집, 주위 환경의 피폐함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죄에 대한 핑계 거리가 될 수 없다. 또 도덕 선생의 권면이나 목사의 거룩한 충고로도 절대 그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없다. 도덕적, 종교적 훈련과 연습은 비록 악한 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썩어 있는 영혼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온전히 통제하여 깨끗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속에서 끊임없이 우러나오는 것은 분노, 시기, 음란, 질투, 꾀함, 사기, 이기심, 자존심, 교만, 불평, 저주 같은 더럽고 추한 것들뿐이다. 마치 아무리 망치로 두드려도 이 쪽 저 쪽에서 자꾸 머리를 내미는 두더지 게임을 하는듯

하다. 이 죄를 죽이면 저 죄가 튀어 나오고, 저 죄를 없애면 다시 이 죄가 생기는 것이 인간 심성의 본바탕이다.

바뀌 말해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허망한 모든 문제의 궁극적 원인, 또 최종적으로 그 잘못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나아가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철천지원수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말이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여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자신의 전부가 완전히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그 자아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것이다.

이런 자백과 깨어짐 없이는 윤리적 잘못을 몽땅 고백하고 회개해도 아직 그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 전혀 아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자 없지” 라고 다른 사람을 함께 물고 들어가는 의미라면 도덕적 회개도 아니다. 그런 고백은 오히려 깊이 감추어 놓은 교만을 교묘하게 치장한 위선일 뿐이다.

신자가 하는 대부분의 회개들조차 하나님을 일대일로 대면하지 않고 단지 사람들 앞에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 겉손을 가장한 체면치레일 수 있다. 자신이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회개하는 모습으로까지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인간의 본성이 썩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저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똑 같았다. 어느 누구에게도 욕을 들어먹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의로웠다. 남에게 해로운 짓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절 바르고 친절하며 심심찮게 선행을 베풀기도 했다. 그러나 그 속을 완전히 까뒤집어 보면 모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교만이 아주 견고한 성채로 자리 잡고 있었다. 까마귀 노는 골에 백로가 감히 갈 수 없다는 식이었다. 나 혼자 백로였고 남들은 모두 까마귀였다. 백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남들 앞에 더욱 친절하고 겉손해야 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바로 까마귀 중의 왕 까마귀였던 것이다.

예수가 왜 구세주인가?

기독교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었음에도 마땅히 해선 안 되는 말, 품어선 안 될 생각, 저질러선 안 되는 행동을

날마다 해야 할 수도 없이 많이 범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행동, 말, 생각 그 전부가 사실은 나의 실수, 과오, 약점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등점으로써 완전히 썩어져버린 내 본연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뜯어 고쳐야 할 것은 내 행동, 말, 생각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나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아직 예수가 내 죄와 크게 관계가 없고 구세주로 실감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다. 자기는 아직도 몇 가지 단점을 고치고 자주 실수하는 나쁜 습관을 의지로 이겨내면 선해진다고 믿으며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한다.

물론 마음속에 항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죄책감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최소한 누구누구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교회 집사라는 정도가 저 정도밖에 안되면 나는 장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저 집사를 보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딱 맞아. 나는 그런대로 낮아졌는데 저 집사는 아직 가난해지려면 멀었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페네스’의 상대적 가난이지 ‘프로코스’의 절대적 가난이 된 것이 아니다.

중풍과 문둥병이 나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걸어가야 할 영적 순례의 첫걸음으로 주님은 ‘프로코스’의 가난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껏 나는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부가 얼마나 새빨강게 자기를 스스로 속였던 거짓말이었는지 솔직히 인정하라는 것이다. 세상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자기에겐 처음부터 죄가 더 많은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을 절감해야 한다.

예를 든 TV 드라마 주인공 여자의 실토를 보라. 십계명에는 하나님 경배 다음이 부모 공경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도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효도에 둔다. 그들도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천륜을 저버린 최고의 죄인으로 친다. 말하자면 엄마가 그런 불치병에 걸린 것은 그녀에게는 비록 하나님을 몰랐다 해도 인간으로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의 형편과 여건이 뒷받침 안 된 것도 아니요, 효성과 정성이 모자란 것도 아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을 못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치도, 심지어 꿈도 꾸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자신의 실체가 천륜을 저버리는 자임을 발견했다.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추하고 더러운 인간, 사단이 의인의 모습으로 변장 시켜 놓은 짐승이 자기 속에 있었다. 죽기보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자신이 실토한대로 엄연한 사실이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면 들수록 자신이 더

비참해지지만 어떤 변명과 핑계도 댈 수 없었고 도덕, 사상, 종교적 해명도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수차례 하게 마련이다. 자신의 실체가 너무나 더럽고 두려워서 다시는 그 실체를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다. 그때에 사람이 취할 길은 두 가지 뿐이다. 우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 노력한다. 예컨대 아예 문제 자체를 망각하려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둘째는 자기 외부에서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의 여주인공처럼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면 외부의 힘으로 자기 전체를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더러운 실체를 발견은 했지만 두 번 다시 그 실체를 되돌아보지 않으려는 쉬운 길을 택하고 만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전혀 없고 또 그분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니까 단순히 자신의 모습을 망각하는 수 말고는 다른 어떤 수단도 찾을 수 없다. 심지어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자도 아주 많다. 사단이 모든 불신자의 영혼을 흑암 속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혼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는 것은 그에 따라 작동되는 지정의(知情意)도 이미 완전히 왜곡되어져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실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발견했어도 그 실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 필연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구원의 길과는 정 반대의 길로 가버린다. 죄책감을 느낄수록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그 더러운 실체를 감추려고만 든다. 지성, 교양, 도덕, 사상, 종교 등을 그 해결책으로 삼아보지만 끝없는 실패와 좌절만 맛볼 뿐이다.

신자는 다르다. 자신의 본연의 실체가 죄인 중의 괴수임을 자각한다. 비록 남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고 칭찬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자신만은 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교회 일이나 불우 이웃을 위해 때로는 뭉치 돈을 내더라도 그렇다. 자신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영혼의 실체를 부모, 친구, 목사, 배우자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다. 남들에 비해 나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이요 교만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자기야말로 사망의 몸이요 곤고한 자로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실체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실감한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 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시51:4)라고 고백한 대로, 그 영혼을 깨끗케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어 놓는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죽을 놈은 정말 저인데 왜 주님이 저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

예의 여주인공에게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어낼 방법이 과연 있겠는가? 세상의 도덕, 철학, 종교로 그녀를 그 처절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 당신이 그녀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는 길 외에는 그녀의 심령을 고쳐낼 방도란 절대 없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주님 없이는 저는 한 시도 살 수 없고 인간으로서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다.

베드로는 언제 가난해졌는가?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는가? 제자들 중에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고 고백(the Great Confession)한 때인가? 교회사적으로도 기념비가 될 만한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직후에 주님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받을 것이라는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

이어서 주님은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다. 칭찬에 기고만장해진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마16:22)라고 큰 소리쳤다. 쉬운 말로 바꾸면 “제가 누구입니까? 의리나 인격으로나 삼년간 주님의 수제자로 따라 다닌 것으로 보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은 스승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스승을 보호하겠습니다.”이다.

그러나 곧바로 주님으로부터 답 올기 전에 오히려 세 번 배반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실제로 비천한 하녀의 추궁에마저 스승을 저주하며 세 번 부인함으로써 그의 호언장담은 완전히 공수포가 되었고, 또 그 순간 어김없이 새벽닭이 울었다. 성경은 바로 그 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답 올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눅22:61-62)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심경의 변화는 과연 무엇이 있었겠는가? “왜 내가 스승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는가? 왜 자원해서 한 약속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어졌는가? 이제는 더욱 내 성급한 기질을 고치고 인격을 갈고 닦아 다시는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믿음을 키워야지” 과연 이 정도 회개한 것으로 통곡까지 했겠는가?

“내가 겨우 이 정도 인간밖에 되지 않았던가? 열 두 명의 제자 중에 그래도 가장 용감하고 담대하고 의리가 있었지 않는가? 수제자로서 스승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은 착각 중의 착각이었어. 기껏 하나의 추궁에도 겁에 질려 스승을 배반하는 졸장부 중의 졸장부야. 그 동안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기에 나는 꽤 팬찮은 사람인 줄 자부했었는데 정말 겨우 이런 수준의 인간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내면의 자아 전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통곡이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믿음의 반석마저 모래알처럼 완전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생전 처음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다. 주님의 삼년 간 공생애를 가장 앞장서서 따라 다녔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였고 그는 수제자였다. 그러나 그가 스승을 세 번 배반한 후 주님이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본 순간 비로소 예수님이 그에게 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 아니면 자기의 영혼에 어떤 만족과 기쁨이 없음을 처음으로 실감한 것이다. 그는 드디어 천국의 문 안에 한 발자국을 들여 놓은 것이다.

베드로가 스승을 세 번 부인한 것은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다. 다시 되 답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런 참담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로운 눈 빛 하나 만으로 그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었다, 아니 주님이 그를 버리고 내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도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인간의 절망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졌고 새 생명이 탄생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암이나 중풍이 낫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실 여덟 가지 복 중의 처음이자 가장 초보적인 복이라고 말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진정으로 실감 나는가? 말하자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후에 암이나 중풍이 나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린 적이 있는가? 혹시 실감이 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주님이 그런 복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둔해서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도 아니다. 심령이 진짜로 가난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내려가려야 갈 수 없는 제일 밑바닥의 절망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처럼 차라리 세 번을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하더라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씌름해본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단지 세상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조금 죄 지은 것을 후회하는 정도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 갈 수 없다. 자신의 전존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부패한 아담의 후손임을 깨달아야 한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도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져야 한다. 자존심, 체면, 위신, 이기심, 교양, 지성, 도덕성, 종교심 등이 견고한 울타리를 치고 있는 성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심령의 맨 안쪽이 뒤집어엎어져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실체에 너무나 절망하여 도저히 더 살아갈 힘과 소망이 없어졌을 때에 “주여 나를 붙잡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통곡하며 울부짖어야 한다. 그 순간 베드로를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쳐다보셨던 주님이 그와 똑 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인간이 천국을 차지하는 길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그것도 ‘프로코스’의 절대적 가난으로 내려가는 길 외에는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이다.

인간이 죽기보다 싫은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

어떤 천재 여자 성악도

1900년대 초 영국의 유명한 작곡가 엘가에게 어느 날 한 소녀가 노래 실력을 테스트 받으러 왔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부적인 목소리를 지녔고 음정 박자 기교에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완벽했다. 그녀의 노래를 다 듣고 난 엘가는 “자네는 장차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것이야. 단 자네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버릴 만큼 큰 슬픔을 겪는다면 말이야. 귀로 듣기에는 아름답지만 아직 다른 사람의 심령을 울릴 만큼은 안 돼”라고 평해 주었다.

인생의 참 맛과 깊이를 알려면 실패와 환난을 통해 슬픔을 겪어 보아야 한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자가 우정이 아름다운 줄 더 잘 알며, 실연의 상처를 맞본 자라야 사랑의 깊이를 그나마 짚 수 있고, 중병에 걸려야 건강이 소중한 줄 깨닫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삶에 겸손해지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러나 이는 따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체험에서 터득할 수 있는 지혜일뿐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는 두 번째 복의 상태를 예수님은 “애통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된 인생살이에서 누구나 겪게 마련인 일반적인 슬픔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의 강화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불치병으로 고생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해 삶의 온갖 질곡을 겪어 볼 대로 다 겪은 자들이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보고 또 다시 병을 앓아 봐야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알 것이라는 상식적인 교훈을 주실 리 없다.

그렇다고 불쌍한 사람을 보거나 조금만 힘든 일을 겪으면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유달리 휴지 한 통으로도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본문의 애통한 사람이 그런 자들을 의미한다면 성격이 곰 같아 무덤덤한 사람들은 아예 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는 분이 되어 버리지 않는가?

바뀌 말해 팔복에 묘사된 신자의 상태를 인간의 기질이나 성격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천성적으로 감정이 풍부하고 예민한 자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에도 동요하지 않고 곳곳하게 잘 견디는 사람도 있다. 성격과 기질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나눠 준 은사일 뿐이다.

본문에 ‘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클라이에인’으로 슬픔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뜻한다. 가슴을 부수며 뼈를 깎고 골수가 마르며 심장을 꿰뚫고 마음과 육신 전부를 훑어 내려 완전히 산산조각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슬픔이다. 표현이 거창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쉽게 말해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주체할 수 없이 속에서 복받쳐 나오는 슬픔이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누가 있는 없던 터져 나오는 울음이다.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람 부끄럽게시리”라는 생각이 들어도 전혀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울음이다. 남이 말려도 되지 않고 말릴 수도 없는 그런 울음이다. 꼭 큰 소리를 내어 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으로 흐느끼더라도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도저히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울음이다.

여러분은 한번이라도 이런 ‘애통’에 젖어 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울음을 울게 될 것 같은가? 오랜 유행가 제목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것이 있다. 단장(斷腸) 즉, 창자가 끊어질 듯이 슬펐던 미아리 고개라는 뜻이다. 육이오 사변 때에 미아리 고개를 넘어 오는 수많은 피난민들 틈에 정신없이 휩쓸리는 통에 사랑하는 부모처자나 애인을 생이별하는 그런 슬픔을 느꼈다는 것이다.

세상사는 동안 혈육이나 배우자를 사별했을 때 느끼는 슬픔만큼 애통한 일은 없을 것이다.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고 주위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속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온다. 그러나 부모 잃은 슬픔 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인지라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은 될 수 없지 않는가?

목사가 된 박사 유학생

한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유학 와서 박사 공부하다가 진로를 바꾸어 목사가 된 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다. 유학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전혀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착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많이 보편화 되었지만 그 당시에 미국 유학

을 정도면 세상적으로는 어느 모로 따져도 하나 부족한 것 없었다. 그러니 “당신은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으시오.”라는 권면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다.

그런데 막상 유학 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와 관습이 달랐고, 동료 학생과의 관계에서 시기와 모함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 미국 교수에게 매일 공부 못한다는 야단을 맞게 되었다. 그로선 생전 처음으로 고난다운 고난을 맞본 것이다. 한국 최고 명문대를 나왔지만 입국 첫날 공항에서부터 영어가 막히기 시작하더니 수업시간에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첫 시험의 점수를 엉망으로 받고 나니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너무 힘들다 못해 기도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도 외면했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마음의 평강을 회복했지만 일시적일 뿐이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혀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마친 강사 목사가 누구라도 기도 받을 일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권유했다. 그도 너무 힘든 사정을 말씀 드리고 기도를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차츰 속에서도 통곡이 건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올랐다. 강대상 곁에서 누가 보든 말든 개의치 않고 부끄럽다는 의식도 전혀 못한 채 정말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울었다. 털썩 엎드린 채 앞뒤 양 옆으로 뒹굴면서 실컷 울고 나니 교인들은 다 가고 없고 이미 2시간도 넘게 흐른 뒤였다.

부모나 자식이 죽으면 슬퍼하는 기간은 이보다 훨씬 오래 갈 수 있지만 어지간해선 앉은 자리에서 단번에 두 시간 넘게 울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선 부모 장례 때에 불효자식을 대신해 계속해서 곡(哭)을 해주는 사람을 일부러 돈을 주고 고용하지 않는가? 말하자면 본문의 애통은, 그 목사가 겪었던 것 같은, 부모나 자식이 돌아간 슬픔보다 더 큰 비통을 말한다. 그 슬픔의 의미와 내용이 부모님을 잃은 것과도 전혀 다르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강사 목사는 단지 여러 모로 힘든 일들, 영어가 안 되고 학점이 나쁘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받은 문제들에 관해 기도해 주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조금 지나고 보니 자신이 그런 문제와 고통이 서럽고 힘들어서 우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것이다. “하나님! 교수가

저를 좀 편하게 대하게 해 주시고, 영어에 귀가 뚫리고 입이 열리게 해 주시고, 동료 학생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 주시고.... 영영!”은 아니었다. 상식적으로도 명색이 최고 지성인에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힘든 일이지 애통해 할 문제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물론 강사 목사로부터 기도 받고 있을 동안은 그런 문제가 조금 서럽기도 했지만 혼자서 정신없이 울 때는 분명 자기 속의 알지 못했던 슬픔의 웅덩이가 터진 것 같았다. 내 속에 이렇게 눈물이 많았던지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의 분수가 솟아나오는 바람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을 엄두도 내지 못했고 온 얼굴이 비 오듯 땀방울로 흠뻑 적시면서 그럴 수 없이 서럽게 울었다. 구체적으로 그 울음의 원인을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었고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기억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단 한 가지 자기 심령 속에 분명하게 각인(刻印)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나를 알고 계시며, 지금 바로 내 곁에 와계신다”는 사실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도 포근하고 따뜻한 영적 기운이 자기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로선 십자가 복음을 교회 출석한 이래 수십 번이나 들었지만 항상 말도 안 되는 엉터리였었기에 어쩌다 가끔은 억지로라도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완전히 실감할 수 있었다. 설교 말씀만으로는 알 듯 모를 듯 했던 주님의 사랑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 가득 채워져 더 이상 한 치의 의심도 생기지 않았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리석고 못난 저 같은 자도 사랑하시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만 쉴 새 없이 나오더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아담의 원죄로 완전히 썩어 있던 죄인의 가장 깊은 내면을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터치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그도 강사 목사로부터 기도 받는 순간 뭔가 뜨거운 기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는 체험을 했다고 간증했다. 예수님의 영이 최고로 교만하고 의롭다고 자부했던 유학생의 완악한 심령을 어루만진 것이다.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불 세례 즉, 성령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신자가 구원 얻을 때에 이와 동일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밤중에 찾아와 구원의 길을 물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요3:8)고 했다. 세상에서 자기만 최고인줄 알았던 그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선 더 뜨겁고도 확실한 성령 세례를 체험 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예수를 모르고 원죄 하에 있는 모든 자연인은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이 항상 텅 비어져 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이 따로 있음에도 채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당연히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온갖 행통을 맛보더라도 항상 공허하며 충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사단의 영이 차고 앉아 있다. 그리고 사단이 그 본성대로 인간을 속여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기에 인간은 자기가 왜 항상 갈급한지 알지도 못한다. 간혹 뭔가 부족하고 비어 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무엇이 비어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란 사실상 인간을 통제 조종하는 곳이야 인간의 본성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바로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사단의 영을 예수의 영이 몰아내고 좌정하게 되면 어떤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다운 인간으로 회복된다. 거짓에서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바뀐다. 인간의 안과 밖이 완전히 뒤집어지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유학생 목사의 경우 두 시간이 넘게 통곡하면서도 자기가 왜 우는지 지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었다. 감정적으로도 크게 슬프거나 억울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분노와 상처를 쏟아 붓는 한풀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심해 온 것도 아니었다. 남들이 보니 부끄러워 빨리 울음을 그쳐야지라는 의지적 결단은 생각조차 못했다.

말하자면 그 울음이 현실적인 문제와 구체적으로 연결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 평소에는 지정의로 인식 못했던 내면의 본성에서 저절로, 사실은 성령의 초자연적 간섭으로 터져 나온 울음이었다. 자기라는 인간 전체가 너무나 비참하고 더럽고 죄 많은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 비통한 울부짖음이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죄로 찢들었던 옛사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 부수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넣듯이 직접 당신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는 작업을 한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항상 부족해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 누구나 심령 깊숙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영인가? 정답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대답하고 치울 문제가 아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대답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절대 그런 대답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할 줄 아는 자는 사실상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와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하고 갈급한 것이 없다. 성경 원리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뜻이며 신자가 직접 느끼고 깨닫는 것은 이와 달리 훨씬 점진적 추후적일 수 있다.

반면에 불신자는 평생을 가도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절대 알지 못한다. 사람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갈급하게 찾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따로 있다.

미국 이민 와서 혼자 사는 나이든 여자 분이 있었다. 온갖 고생을 겪은 후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자기 소유의 콘도를 하나 장만해 은퇴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고통이 하나 있는데 놀랍게도 회사에서 퇴근하고 자기 집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 말이 좋아 미국 회사지 사실은 공장이었고 하는 일도 단순 육체노동이었다. 상식적으로는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 피곤하니까 어서 빨리 집에 가서, 그것도 천신만고 끝에 장만한 내 집에서 샤워하고 쉬어야 할 텐데 정말 예상 밖의 말을 했다.

그런 노동을 감당하기에는 연로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직 결혼도 못한 사십이 가까운 두 아들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결코 풍족하지 않는 등 현실적 고통이 많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힘들다고 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 키를 돌리는 순간이 죽기보다 싫다는 것이다. 방 두개짜리 콘도지만 혼자 있으면 완전히 텅 빈 감옥이자 지옥 그 자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 받는 존재로 만들었다. 인간은 함께 돕고 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야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도록 처음부터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웃에게 소외되어 혼자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다. 병들어 고통스럽거나 돈이 없어 찢쩍 매는 것보다 더 힘들다.

친구, 애인, 직장 동료, 교회 성도, 심지어 형제, 부모,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현실적인 문제에 곤란을 겪는 것보다 심령의 고통은 더 심하며 밤새 끔끔 앓는다. 다윗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찢겨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몸에 붙었나이다”(시22:14,15)라고 고백한 것이 정말 실감난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에서 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느꼈겠는가? 부모형제를 잃어버린 슬픔도 크지만 “세상 천지에 이제 나 혼자 고아가 되었구나. 언제든지 나의 힘과 위로가 되어 줄 사람이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사람이 다 사라졌구나.”가 더 큰 아픔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심층을 파고들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갈급함이 깔려 있다. 어떤 일을 계획하여 이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고독을 없애고자 하는 작업이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랑을 획득하려는 몸부림이다. 남들이 자기를 자기답게 알아 봐 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그 어떤 욕망보다 인간에게는 가장 크다. 남에게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모두 진정한 사랑을 제대로 주고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영혼의 빈 방에 예수를 모셔라

목사가 된 그 유학생은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사업가는 돈으로, 젊은 여자는 화려한 옷과 미모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듯이 그 또한 자신만의 고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지식을 동원한 것이다. 그 소망을 미국 유학길에 올랐을 때까지는 단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제 곧 유토피아가 자기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성공한 인생으로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슴이 설레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평생 처음으로 큰 장애를 만났다.

그런데 영어가 어려워서 교수와 동료 학생간의 관계가 뒤틀려 상처 받은 것은 사실은 그 장애의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었다. 그 이면에는 정작 자신의 가치가 사람들로부터 아주 낮게 평가되어 인정받지 못하게 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그 장애를 없애려 노력했다. 원만한 인격, 남보다 우월한 도덕성, 가장 자랑하는 똑똑한 머리, 그 동안 쌓아 온 인간관계의 처세술 등으로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올바른 궤도 위로 올려놓을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내가 누군데, 그래도 한국 최고 명문대 출신 아닌가?”라고 큰 소리 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점차 자기의 열심과 정성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과의 벽은 더 높아지고 본인으로선 전혀 의도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도 세상으로부터 자꾸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모든 인간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고독의 감방 안으로 떠밀려 들어간 것이다. 급기야 그 동안 상대도 안 했던 예수쟁이에게 찾아가 솔직히 털어 놓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바로 그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독방 감옥과 같았던 그 영혼의 빈 공간에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거짓과 변개가 없는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와 맞바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자 지난 30여 년 동안의 하나님을 외면했던 인생이 너무나 헛되고 헛되었고, 자기 존재 전부가 너무 썩어빠져 단 한 부분도 의로운 곳이 없다는 통한의 고백과 함께 울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다른 사람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 평생토록 고독을 면할 길이 없다. 고급차, 화려한 옷, 대궐 같은 집, 세상의 명예와 권력 등을 아무리 풍성하게 누려 봐야 오히려 더 외로워질 뿐이다. 그 근본적인 갈급함을 부모, 형제, 친구, 배우자, 자녀라도 채워주지 못한다. 외면이 화려해질수록 내면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공허해지는 것이 인간이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영이 좌정해 있었던 그 공간이 다시 그 분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신자가 되어 두 번째 누리는 복은 첫째 복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첫째 복은 베드로처럼

‘나’라는 존재가 정말 겨우 이것 밖에 안 되는가라고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다. 자기 심령의 상태가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절대적 빈곤이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선 아무리 해도 참 사랑을 주고받을 길이 없기에 온 천하에 자기 혼자뿐인 절대적 고독 속에 철저히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복인 애통은 바로 그 고립무원(孤立無援-helpless)의 상태가 너무나 비탄스러워 자기 속의 눈물샘이 터지는 것이다. 스승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자신의 심령 상태가 너무 더럽고 추해서 통곡했다. 그 이면에는 한마디로 자기는 이제 스승과 철저히 분리되어 정말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밖에 없다는 너무나 엄연한 진실을 실감한 울음이기도 했다.

신자가 누리는 두 번째 애통의 복의 의미가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돌아보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발견했고, 그 유학생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이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죄인의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의 영이 채워지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내팽개쳐진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는 은혜를 맛보고 감격에 겨워 우는 울음이 터져 나오게 된다. 사단이 차지했던 더럽고 추한 내면의 가장 깊은 방을 눈물로 씻어내고 또 씻어내는 작업이 바로 애통이다.

그리고 애통의 복에는 마지막, 어쩌면 가장 큰 은혜의 측면이 따로 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7:37)고 했다. 예수 믿었다고 항상 형통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말이 아니다. 당신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은 인간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목마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 당신의 영으로 채워야 그 목마름이 해소되며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신자 시절의 자기와 똑 같이 아직도 이 영원한 진리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며, 세상과 사단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다른 영혼을 볼 때에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 울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현실적 형편에서 신자보다 낮고 못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신자 속에 이미 임재해 있는 예수님의 영으로 그런 자들을 바라 볼 때에 자기도 모르게 신자의 영이 놀리고 탄식하며 애통하게 된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환난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어떤 인간도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철저히 혼자인줄 알면서도 혼자가 아닌 것처럼, 남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는 양 가장하는 것이다. 참사랑을 가장 갈급해 하면서도 사단에 속아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거짓 사랑이라도 얻어 보려고 시간과 경비를 허비하기 때문이다. 원죄 하에 있어 예수 영이 없는 자연인들끼리는 아무리 사랑하려 해야 참 사랑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깨달아 본 적이 없으며 그래서 그 사실이 얼마나 애통한지 울어 본 적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정도로는 결코 팔복에 들어갈 수 없다. 자칫 도덕적 겸손밖에 되지 못한다. 반드시 그 심령이 절대적 가난의 상태로 부숴져야 하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되어야 한다. 부모나 자식을 잃은 것 보다 더 큰 슬픔, 아니 그것과도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슬픔 중의 슬픔이 되어야 한다. 부모를 잃더라도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더 애통해져야 한다. 세상 모든 것 부모와 자식까지 포함해 다 잃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면 바로 그 순간이 지옥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심령이 절대적 가난으로 내려가야만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의 단계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영도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 울음은 동시에 하나님을 발견한 환희의 울음으로 바뀐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일대일로 만난 자는 자기 심령에서부터 반드시 통곡이 터져 나온다. 그 통곡은 이상하게도 절대적 가난과 절대적인 기쁨이 순간순간 교차하기 때문에 울다가 웃고 또 웃다가 울기도 한다.

그리고 회심할 때의 그런 일회적인 애통으로 신자가 겪는 애통이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기쁨의 눈물이 나오며, 다른 미혹된 영혼을 볼 때마다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 애통해진다. 요컨대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신자는 눈물이 많아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애통의 복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애통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최소한 자기 존재의 곁과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통곡이라도 한번 해 보았는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애통해 하는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

인간의 두 가지 변신

가정 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한 장로님이 이런 비유를 했다. 여자는 10대에는 단장만 하면 된다고 한다. 이 때 ‘단’은 화장한다는 붉을 ‘단(丹)’이 아니라 홀로 ‘단(單)’을 사용한 단장(單粧)이다. 건강미가 넘치고 피부도 탱탱하므로 입술연지만 살짝 바르거나 예쁜 머리핀만 하나 꽂아도 예쁘다는 뜻이다. 그러나 20대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만 가꾸는 ‘치장(治粧)’을, 30대에는 본격적으로 짙어 바르는 ‘화장(化粧)’을, 40대에는 연극배우처럼 떡을 칠하는 ‘분장(扮裝)’을, 50대에는 칼로 긁어도 안 벗겨지는 ‘무장(武裝)’을, 60대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꾸는 ‘변장(變裝)’을 해야 한다는 조크를 했다.

비록 여자의 얼굴 화장으로 비유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남자들도 자기 동년배와 아파트 평수, 골프나 해외여행 같은 취미 활동, 벤츠 같은 수입 자동차, 로타리 클럽 같은 사교 모임 등에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한다. 남녀 공히 나이가 들수록 외면적으로 치장해 자기의 진짜 실체를 감추려 든다. 남들이 자기를 제대로 알아봐 주고 대우해 주도록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한다.

성경의 한 인물에게서는 이와 정반대의 경우를 발견한다. 그것도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이나 저술하여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그렇다. 그가 나이가 들어가매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이 점차 확연히 달라졌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밋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갈1:1) 본서는 그의 사역 초기에 쓴 것으로 사도라고 했다. 사도란 초대교회 당시로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직임이다. 물론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다고 밝히긴 했어도

은연중에 본인의 권위를 앞세운 감이 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고전15:9) 본서는 사역 중기 에베소에서 쓴 것이다. 사도 중에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성경을 2권 밖에 저술하지 못했는데 13권이나 지은 그가 사도 직책에 도저히 어울리지 못한 자라고 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엡3:8) 사역 말기에 와선 사도는커녕 평신도 중에서도 가장 못난 자라고 한다. 그러다 마지막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저술한 디모데 전서에선 어떻게 표현했는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1:15) 가장 위대했던 사도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 되었다. 최고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왔다.

같이 예수를 믿어 성도라 부름 받는 우리로선 언뜻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누구나 처절하게 깨닫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게 되면 차츰 이전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죄 된 품성을 조금씩 고쳐가며 기도와 구제와 선행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비록 완전하지는 못해도 이전보다는 많이 선해졌다고 인식한다. 그런데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오히려 죄인 중의 괴수라고 했다. 흔히들 말하는 대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을 표시한 것일까? 아니면 이제 곧 하나님을 대면할 테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과장 섞인 고백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가?

객관적 위대한 사도와 주관적 죄인의 괴수

바울은 잘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대면했고 직접 천국의 삼층천까지 갔다 오는 영적체험도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기독교 진리 체계를 확립한 자로 객관적으로는 누가 평가해도 사도 중의 최고였다. 그러나 그의 죄인 중의 괴수라는 고백은 본인의 실제적이고도 주관적인 인식 하에 이뤄진 것이다. 표현 그대로 죄의 우두머리에서 하나도 과하지 않고 덜하지도 않은 철저한 자각이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을 만난 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영적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러나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롬7:15), 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롬7:22,23)라고 실토했듯이 여전히 죄의 본성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갈수록 그 죄가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렇지 않음을 확신했기에 겉으로만 가장된 겸손이 결코 아니었다.

그로선 예수님을 알아 가면 갈수록, 그분의 은혜에 잠기면 잠길수록, 남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어내면 낼수록, 하늘의 본향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앞에 있는 쫓대를 향해 가면 갈수록 자신은 도저히 그런 일을 감당할 만큼 의롭고 선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무능하고 어리석으며 추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것이다.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마치 로우(Low) 싱글 핸디의 골프 강사는 그 자격을 딴 후 얼마 동안은 사람들 앞에 마음껏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아주 어려운 코스에서 프로 선수들과 게임을 해 창피를 당했다면 밤새워 끙끙 앓으며 “나는 아직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구나!”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경우 객관적으로 따지면 겸손이 아니다. 실력은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하고 골프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다. 그럼에도 아직 골프를 시작한 것조차 아니라고 한탄한 까닭은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지향점을 최고의 수준에 두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돈을 떼먹었거나 더러운 쾌락에 빠진 것은 절대 아니었다. 당시로선 그 만한 의인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오직 예수를 닮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당한 사도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었기에 여전히 죄인 중의 죄수요 아직 하나님의 ‘하’자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가의 기준을 주위 사람들에게 둔다. 나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안주한다. 그렇지만 그들도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실체가 얼마나 음흉스럽고 사기와 꾀술의 단수가 점점 높아 가는지 잘 알고, 나아가 자기 속의 그 죄성을 스스로 통제 할 수 없음을 깨닫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평가 기준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둔다. 남과 비교해 크게 뒤쳐지지 않고 또 몇 가지 앞선 점이 있다고 세상 사람이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마치 자기가 세상의 최고 의인인양 착각하고 산다. 당연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산다고 큰 소리 친다. 그러나 그 하늘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불신자 가운데도 정작 하늘에 대해 심각하게 갈등해 본 자는 절대 그런 말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한다. 겁이 나서 뿐만 아니라 정작 절대자의 면전에서, 비록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직 아니더라도, 자기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비취 볼 줄 알았다면 절대로 도덕적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향해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가슴만 쥐어뜯을 수밖에 없다.

주님 닮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런데 정작 문제는 신자들이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심령이 가난해져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실천한다. 그러나 단순하게 신자니까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일반 윤리로만 접근하고 치운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 뜻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항상 노력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목표 지점이 없으면 자기가 그 목표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아니면 아직도 먼지를 모른다. 쉽게 말해 수학을 공부하면서 미적분까지 떼기로 목표 했을 때만 아직 일차 방정식의 수준에 있어 더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반면에 미적분이라는 목표가 없고 또 그것을 향해 한 단계씩 공부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수학을 잘해야지 하면 이차 삼차방정식을 순서대로 풀기 위해 노력할 필요를 못 느낀다. 어쩌다 이차방정식이라도 풀게 되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줄 착각하게 되는 것과 같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로 전 평생에 걸쳐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다. 심지어 로마 카타콤의 지하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통보 받고서도 마찬가지였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5:15)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1:11,12) 그래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을”(딤후4:6) 그 때에도 여전히 이 서신의 수신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고 권면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빛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티끌 같은 자국마저 더 세밀하게 드러남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여 저는 죄인 중의 죄수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사도로서 모범을 보이하고자 하는 겸손이나 또 그렇게 해야만 불신자에게 더 복음이 잘 전해지리라 기대한 것이 아니다. 목표로 삼았던 주님께 비해 여전히 인격이 성숙되지 않았고 영성이 너무나 경건하지 못하다는 진심어린 생생한 토로였다.

바울은 틀림없이 날이 갈수록 눈물이 흐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신자가 진실로 주님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부족함, 무능함, 연약함, 더러움이 더 살살이 볼 수 있으므로 날마다 “저야말로 죄인 중의 죄수입니다”라고 가슴을 찢게 된다. 신자는 매일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애통해야 한다. 자신의 영적으로 궁핍한 실체를 바라보면서 혈육을 잃은 슬픔보다도 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한다.

결국 실패하는 성화의 삶

우리 모두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자. 매일 우는가? 뼈를 깎고 골수가 마르는 심령의 피폐함을 절감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가?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거꾸로 울어야 한다니까 이상한가? 또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수고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말인가?

그렇다.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성화에선 단 한명도 성공할 수 없다. 모든 세대의 모든 신자에게 영원한 미완성이다. 모두 실패로 끝나며 천국에서야 완성된다. 아무리 그렇기 해도, 또 실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에 있던, 심지어 죄악 중에 있던, 나아가 장래에 지을 죄마저 용서해 주신다. 다른 종교에 비해 어떤 면에서 땡 잡은 것이다. 그러나 참 신자라면 그 불완전함이 자기 심령을 비수처럼 찔러 자기도 모르게 애통하게 된다.

사람이 애통하려면 부모가 죽었던지, 실연을 당했던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반드시 슬픔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수님이 지금 팔복의 두 번째 단계로 애통해 하는 자를 두고 복이 있다는 뜻은, “너는 믿은 후에 과연 애통해 하는가? 지금 슬퍼하는 대상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냥 덤덤하게 사느라, 아니면 내 코가 석자라 도저히 슬플 겨를도 없는가? 혹은 신자가 애통해야만 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지는 생각도 못해 보았는가?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애통의 원어의 뜻은 슬픔 중의 가장 큰 슬픔이다. 슬픔이란 역으로 말해 기쁨을 유발하는 대상이 지금 없어서 그 부재(不在)가 너무 아쉽고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옛날 데이트 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 실연당해 사랑하는 연인을 두 번 다시 못 보게 되었을 때 밤잠을 못자고 슬픔에 겨워 미칠 것 같지 않았던가? 진짜 골수가 마르고 뼈가 어그러지는 것 같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현재 자기한테 없어서 최고로 아쉽고 안타깝고 날이 갈수록 더 갖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애통하게 되는데 신자에게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솔직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겠는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는 것,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것,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는 것, 은행 잔고가 풍부한 것, 자식이 기대대로 잘 자라주는 것들 아닌가? 반면에 바울은 무엇을 가장 괴로워했는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 때문에 ‘오호라 곤고한 자, 사망의 몸’이라고 슬퍼하지 않았는가?(롬7:24)

그는 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원하는 바로다”(롬9:3)라고도 했다. 자기는 죽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가장 절실한 문제로 삼았다.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禍)가 있을 것임이라”(고전9:16) 할 정도로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갈망했다.

또 40에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세 번 태장에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내는 등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난을 수없이 겪었다. 그래도 그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고후11:28)이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고후11:29)라고 애통해 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현실의 형통과 안락에 관해선 말씀하신 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늘에서 복이 쏟아져 내린다고 하지 않았다. 첫 번째 복에 해당하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애통해 본 적도 없으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무엇이든 소원하는 것 이룰 수 있으며 세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법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신자의 인격과 품성이 의로워지는 것도 주님의 일차적 관심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온전히 하여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지 여부였다. 그래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일이 바로 신자가 누릴 복이라고 말한 것이다. 바로 바울이 가장 애통해 했던 그런 대상이다. 과연 우리는 바울 같은 애통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에 두는가?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가 가장 부러워하며 의미와 가치를 가장 많이 두는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다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도리어 멀어진다면 당연히 안타깝고 애통해지는 법이다. 만약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세상이라면 노력하는 내용과 애통해 하는 대상이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서 병을 고치겠다고 작정한 자는 40일간 기도원까지 갔다 왔는데 왜 이 병이 안 고쳐지는지 의심한다. 경제적 풍요를 이루겠다고 새벽 기도 때마다 쥐꼬리 같은 수입을 두 배로 해달라고 부르짖게 된다.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이 목표면 집사가 사기 친다고 시험 들어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 나아가 새벽 기도, 제자 훈련, 금식, 전도 같은 종교적 실력의 배양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그런 훈련에 얼마나 성실히 참여하는가만 따져서 자기 신앙이 오히려 오르락내리락 한다.

예수님은 당신을 닮으라고 했지 그런 것들로 신앙의 목표로 삼으라고 한 적이 없다. 물론 흠 잡을 곳 하나 없이 완벽한 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요, 형제를 ‘라가’라 욕해도 살인한 것으로 보는 주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자는 우리 가운데 단 한명도 없다. 만약 우리가 평생을 두고 노력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었다.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도덕적,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갈수록 바울 같이 자기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오직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자기가 가장 애통해 하는 대상이 믿기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이 힘든 일들을 없애달라고 울며 부르짖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 복음이 자기 인생을 통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애통하게 된다. 신자라면 물론 현실의 힘든 일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그럴 때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어지길 소원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 속에 그분의 위로와 간섭하심을 더 갈급해 한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자신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임재해 있지 않는 것을 가장 애통해 하지 않는다면 헛 다닌 것이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채 단지 죄만 안 짓고 교회 봉사에 게으르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신앙은 기독교에선 없다. 애통한 적이 없다면 신자가 아니던지 성화가 100% 완성되었던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최대한 양보해서 우리가 바울 같은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은 무리라 치자. 그 정도의 핍박과 박해를 곳곳하게 이겨내는 자도 그리 많지 않다. 또 형제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거나 믿지 않는 영혼을 때문에 항상 심령에 눌림을 안 받아도 된다. 나아가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소한도 신자는 자신의 영적 공핍에 대해서만은 애통해 해야 한다.

“내가 또 현실의 당장 힘든 것에만 매달려 염려하고 있구나. 지금까지도 수 없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은혜로 결국은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또 잊었구나.”를 애통해야 한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나를 보살피시는데 왜 또 염려했던가? 하나님 그분을 목상하기보다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았구나. 하나님의 뜻은 인생으로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며 심판 대신 구원임을 왜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을 때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고 그곳을 향해 나를 지금도 이 환난을 통해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은 어디 왔는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약속, 공활을

바라보기는커녕 최소한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내편이며 살아 계신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구나.”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것을 애통하고 안타까워해야 한다.

모두가 죄인 중의 괴수인 신자

바울이 죽기 직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밝힌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함에 하루하루를 온전히 바치다 보니 그 은혜의 양이 무궁무진해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상상조차 못할 정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그 은혜에 견주어 볼 때 자신의 존재는 더욱 왜소하게 느껴졌고 천국 문에 가까워질수록 더럽고 추한 모습은 하나 감춤 없이 다 밝혀졌다는 것이다. 겨우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은혜라는 표현밖에는 설명할 재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신의 능력, 조건, 자격은 단 하나도 내세울 것 없고 몽땅 배설물에 불과하더라는 통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그가 파선 당했던 일만 한 번 생각해보라. 첫 번 파선되었을 때는 그도 우리와 다름없이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것이다. 이번만 살려 주시면 더욱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기도했을 것이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처음부터 신앙심이 신실해서 내가 죽어 지옥 가더라도 형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준이었다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물론 열심히 기도는 했겠지만 이미 한 번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로선 “아마도 이번에도 살려 주시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도 두 번이나 살려 주시겠나? 이번에 죽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천국 가야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을 수 있다. 그러다 세 번째는 이제 나도 꿈쩍 없이 죽는가 보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거의 체념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살려 주셨다. 그럼 어떻게 되었겠는가? 감사보다 두려움, 공포가 아닌 경외함으로 인한 떨림이 전신에 소름처럼 솟아났지 않았는가? “주여! 주님 앞에 저는 완전히 엎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제가 지금껏 갖고 있던 신앙 지식은 정말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더더구나 무궁하신 은혜에 대해선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지 않았는가? 다메섹 도상의 회심 이후로 그는 이런 기적 같은

구원을 수도 없이 겪었다. 그 모든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가 도대체 “나는 죄인 중의 죄수입니다” 외의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사도 중의 으뜸이고 인류 역사상 그만큼 바른 신앙을 가진 자 없었다 해도, 미약하고 불완전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이긴 마찬가지였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계산도 측량도 할 수 없었다. 평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한 그가 그렇다면 우리야 두말하면 무엇 하겠는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 사역자라도 하나님 존전에 바로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이 목표라고 감히 자신할 수조차 없다.

신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진실은 이것이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는 오직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하나 뿐입니다. 저는 죄인 중의 죄수입니다. 주님이 저를 외면하지 않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 외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심지어 신앙에 관해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부족한 자라고 고백한 후에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드리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요 애통의 복을 누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로 죄를 덜 짓는 싸움에 그쳐선 안 된다. 믿음은 오직 신자가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의 기대를 하나님 외의 것에 두었던 것을 매일매일 하나씩 부셔 나가는 싸움이다. 필연적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따져선 갈수록 겉모습이 후패되어야지 형통으로 갈 수는 없다. 반면에 그와 반비례 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능력과 은혜는 얼마나 크며 고귀한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다. 혹시라도 자신이 십자가 은혜 밖에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인생에 아무런 빛이 없고 흑암뿐임을 절감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 없기 때문에 가장 아쉽고 괴로운 것이 정말로 솔직하게 무엇인가? 돈, 집, 차, 건강, 학식, 사람의 칭찬, 자식의 재물, 아내의 아양, 직장에서 승진, 노후대책, 등인가?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단언컨대 그런 문제에 대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소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비뚤어진 관계를 당신의 죽음보다 진정으로 더 애통해 한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진실로 무엇을 애통해 하고 있는가?

초월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

이민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미국 이민 와있는 교포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언어와 문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며, 가정은 자녀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마저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아 솔직히 참 평안을 누리는 자가 극히 드물다. 거의 매일 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골수가 마르는 안타까움으로 지새는 분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다른 교회도 거의 마찬가지로겠지만 특별히 이민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본문의 표현 그대로 애통할 때 위로를 받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보장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29:11-13)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강화와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7-11)라고 약속하셨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자.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정말 위로를 받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아니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고 평안이 없을 뿐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불안이 살아 있는가? 현재 미국도 갈수록 경쟁이 극심해져 살기가 빠듯해져 가기에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신자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물질적 풍요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최소한 정신적, 영적인 평강은 유지해야 하지 않는가?

신자가 불안 염려를 없애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정신적 상처든, 현실적 고난이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겨우 위로를 얻고 그 응답도 항상 질적으로 좋고 양적으로 풍성해야 된다고 믿는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항상 더 빨리, 더 많이, 더 편하고, 더 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흥분 대박이 터지듯 단숨에 번쩍하고 화끈하게 끝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신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첫째 이미지는 항상 초과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초과(超過)는 반드시 미리 정해 놓은 목표치가 있고 그것을 질적 양적으로 넘어야 한다. 신자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내용대로 이뤄지되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초과다. 월수입이 현재 이천 불인데 제발 삼천 불은 되어야 형편이 좀 풀릴 텐데라고 기도했다면 오천이나 만 불이 되어야 초과다. 물론 삼천일, 삼천이 불도 당연히 초과이긴 하지만, 십만 아니 백만 불이 되어도 여전히 초과이지 초월은 아니라는 뜻이다. 반면에 초월(超越)은 신자가 예상, 기대, 걱정, 서원해 놓은 한계나 범위와는 전혀 무관한 영역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스펄전의 회심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일종의 영적인 천재였다. 천재란 특출난 재능을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난 자를 의미한다. 인간이 날 때부터 영적으로 천재인 자는 아무도 없지만 현실에서 그가 행한 모습을 보아 그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라는 뜻일 뿐이다. 대대로 목사 집안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온갖 신앙서적을 섭렵했고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평생 백번 이상 독파했다. 14살에 이미 로마가톨릭 교황제도의 비리를 폭로하는 책을 저술 했을 정도다.

그런데 15살이 넘자 차츰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남들이 이 소년을 볼 때 비난할 소지는 전혀 없었다.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죄악투성이이자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다. 점차 자기비하와 학대의 기가 막힌 웅덩이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갔다. 그 반작용으로 더 이상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애를 쓰면 쓸수록 그

구렁텅이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었다. 선행과 구제로 영혼의 피폐함을 상쇄하려던 시도는 완전히 실패하고 평강과 위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었다.

어느 주일날 폭설이 내려 출석하던 교회에 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집에서 가까운 작은 교회로 예배드리러 갔다. 마침 그 교회 목사님도 교통이 막혀 나오지 못하고 열 명 남짓 모인 가운데 평신도 대표가 예배를 인도했다. 갑자기 설교하게 된 그 신자는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사 45:22)는 말씀을 읽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라고 큰 소리로 반복해서 외치기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스필전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동안 죄책감으로 가득 차서 절망의 구렁텅이를 헤매고 다녔던 자기 심령이 하나님께 건져 올림을 받았던 것이다. 예수님은 살아 계셨고 지금 나에게 임재하시어 정말 죄로 가득 찬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이 무한하신 긍휼로 주홍같이 붉었던 자기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신자를 위해 계획하신 일은 천기까지 변화시켜서 이루신다. 그날 성령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전까지의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아무리 추측해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의심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틀림없이 본 교회에 가지 못한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날따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의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거나 담임목사와 상담약속을 했을 수도 있다. 심지어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씻어 볼 수단이 없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날 마지막으로 교회에 출석해보고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이면 믿음마저 포기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필 오늘 같은 날에 폭설이 내려 어쩔 수 없이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부터 타락해도 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고 불평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려는 성의를 봐서라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왜 개척교회에서 그것도 담임 목사가 아니라 집사가 설교는 할 생각도 않고 성경 읽고 고함만 지르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신학적 지식이 너무나 보잘 것 없는 한 평신도를 통해 이 영적인

천재의 심령을 산산조각 내었고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역사를 일으켰다. 단순히 “예수를 바라보시오!”라는 한 마디 말로 말이다. 스필전으로선 꿈도 꾸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을 때에 오히려 생전 처음 그분께 완전히 항복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난 초월이었지 초과는 아니었다.

닭살 돋는 경험

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한 마디로 알기 쉽게 표현하면 소름이 끼치면서 닭살이 돋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하며 경이롭기 때문이다. 사방이 꽉 막힌 여건에서 내 힘으로는 절대 이뤄낼 수 없으며 우연의 일치로도 생길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마이너스 무한대의 절망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소망으로 눈 깜짝할 새 바뀐다. 영원의 이쪽 끝에서 영원의 저쪽 끝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무한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제 삼자가 힌트를 주거나 구태여 깨우쳐 줄 필요도 없다. 너무나 확실하고도 거룩하신 그분의 권능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 무릎 꿇고 경배드릴 수밖에 없다. 그 공훈과 위로가 너무나 풍성하기에 찬양과 감사의 반응 외는 보일 수가 없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엡3:8)고 고백했다.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18,19절)고 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가 쉽게 측정 가능하니까 신자더러 재어 보라는 당부가 아니다. 물론 질적 양적으로도 너무나 풍성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초월적이라 오히려 측정 불가능함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켈 수 있겠는가? 인간으로선 단지 그분의 사랑이 자신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만 간구하고, 또 채워지고 난 후에는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도저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는 사실만 깨달을 뿐이다.

초과는 어쨌든 측정이 가능하다. 아무리 큰 숫자라도 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심지어 무한대라는 수치도 수학 공식에 등장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대조차 초과하는 초월이기에 아예 측정조차 불가능하다.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한두 살 난 어린아이가 미적분은커녕 구구셈도 상상을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아가 상상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도저히 인간의 의지로는 막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일단 간섭하기 시작하면 방조제가 터진 것처럼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 그저 채워질 뿐이다. 인간의 의지로 대충 은혜를 받고 치우거나, 심지어 감히 제 같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식의 겸손을 떠는 것마저 허용하지 않는다. 평소 때 세상과 사람 앞에선 그렇게 위세 등등하던 체면, 위신, 자존심 따위는 완전히 휴지조각처럼 구겨져 ‘찍’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심령 가득 채워진 당신의 충만함으로 인해 기쁘면서도 울음이 나오고, 울면서도 즐겁기 그지없다.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감격의 울음이자 내 자신의 너무나 가난함에 대한 울음이다. 동시에 그런 나를 영원하신 절대자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나’라는 존재가 이전과 달리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 기쁨이 넘쳐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방정맞은 광신자요 울다가 웃는 정신병자로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반면에 신자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화려한 수사(修辭)가 필요 없고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만 연발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그 순간 신자에게는 세상의 어떤 염려 불안도 없어지며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게 된다.

초과는 신자의 몫이다

혹시라도 그런 답살 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만 체험했지 그 이후 현실의 삶에선 별로 겪은 기억이 없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때만 은혜를 주고 다른

때는 은혜를 주지 않는가? 아니면 죄에서 꼭 구원을 해야 하니까 더 큰 은혜를 주고 구원했으니 은혜를 아주 드물게 주거나 약하게 주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충만하다. 인간의 눈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도 예외는 전혀 없다.

페인트 업을 하는 젊은 교포 신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었다. 그분은 이빨이 아주 좋지 않아 부드러운 음식도 가위로 잘라 먹어야 할 정도였다. 거의 모든 이빨이 못쓰게 되었고 계속 놓아두면 잇몸이 다 내려앉을 판이었다. 알다시피 미국의 이빨 치료비는 엄청나게 비싸고 사업에 바빠 도저히 치과에 갈 엄두도 못 내고 한 마디로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였다.

한 치과병원이 내부 페인트를 다시 하기 위해 이 분을 불러 견적을 받았다. 약 2,500불 정도의 견적이 나왔는데 예정에도 없던 요구를 하나 더 추가해 그 값에 해 달라고 했다. 말하자면 구두쇠 고객에게 걸려 손해 보며 해주어야 할 판이었다. 마침 누구 아는 사람이 소개한 일이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대로 수락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분의 이빨 상태를 보게 된 의사가 불쌍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치료를 전부 책임져 줄 테니까 페인트 비용은 받지 말라고 요청했다. 또 시간 나는 대로 언제든지 오면 치료해 주겠다고 했다. 이전에 여러 치과에서 치료비를 알아 봤을 때 최소한 35,000불의 견적이 나왔는데 페인트 작업 2,500불 그것도 실제 경비를 계산하면 약 1500불과 맞바꾼 셈이 되었다.

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초과 달성 대신에 초월적인 간섭을 하신 예다.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 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짜로 해 준 것이나 다름없기에 금액으로 따질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신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공짜로 치료해 주는 치과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할 수 없고 또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실제로 이 분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정직하고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자는 자기가 꼭 필요한 한도를 정해 놓고 자기 힘으로 감당 못하는 초과치(超過值)만 하나님이 대신 해 주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초과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사실은 신자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이미 신자에게 생업을 허락해주셨기에 신자는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여 그 치료비용을 모아야 한다. 또 그럴 수 있는 은사와 재능과 건강과 여건도 다 마련해주신다. 나아가 그런 질병이 생기기 전에 자기 육신을 아름답고 강건하게 가꾸어야 한다.

반면에 초월의 하나님은 치료비 35,000불과 전혀 상관없이 당신께서 고쳐주시고자 하시면

당신만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고쳐 주신다. 어떤 때는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게 해서 고쳐 줄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손해 본 것도 나중에 반드시 다른 것으로 더 크게 보충해 주신다.

초과만 바라는 신앙

초과의 하나님만 바라는 신자는 자기의 목표치와 기대치 달성에만 관심을 둔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의 능력에 버거울 정도의 범위를 정해야만 하나님께 간구할 체면이 서는 것 같고 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양 착각까지 한다. 심지어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 크게 잡아 기도하는 경향마저 있다. 그러나 그 속마음에 혹시라도 그에 조금 못 미쳐서 응답되더라도 자신만은 손해 안 보려는 알뜰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않을까? 아니면 그 반대로 겉으로는 겸손하게 조금 달라고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왕창 주시면 더 좋은데 하고 은근히 초과를 꿈꾸지는 않는가?

신자가 초과를 기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신자에게 위로도 없다. 오히려 신앙이 점차 힘을 잃는다. 하나님의 응답이 최소한 자기가 산정한 순수 필요치는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만약 만 불이 꼭 필요한데 7천불 밖에 생기지 않았다면 대뜸 어떤 생각을 갖는가? “이 정도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은 신자가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이시잖는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나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막으셨나 보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이 일에도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속마음에 혹시 “하나님이 하셨으니 어쩔 수 없지 뭐! 순종하는 수밖에...”가 조금이라도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믿는 척하는 위선이 결코 믿음이 될 수는 없다. 교리대로 억지로 따르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응답하지도 않는다.

신자가 지금 간구를 드리는 대상이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만 불이 꼭 필요하다면 왜 끝까지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가?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거나 일부러 적게 주어 신자를 골탕 먹이는 분도 아니시잖는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신자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다.(약4:3) 그 말씀을 반대로 풀이하면 정욕으로 쓰러는 것, 즉 신자가 미리 불려서 계산하거나 은근히 기대하는 초과분을 덧붙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다.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용(日用)할’이란 말이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지 않는가?

물론 신자가 현실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 로토에 당첨되는 헛꿈을 꾸며 매주 살 수도 있다. 그것을 꼭 죄라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도 그 일 때문에 신자를 미워하거나 징계하시지 않는다. 그만큼 다급하고 어려운 신자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자에게 분명히 섭섭해 하고 실망하는 것은 있다. “네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잘 안다. 그러나 아직도 네가 나를 이렇게도 몰라주느냐? 나는 초월의 하나님 아니냐? 최소한도 내가 네 그런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신자가 만 불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주실 때도 있지만 십만 불을 빼앗아 갈 때도 많다. 하나님의 초월은 현실에서 긍정 혹은 부정의 모습이든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된다. 궁극적으로는 신자에게 백만 불 이상의 효과, 아니 금액으로는 도저히 측량이 안 되는 당신만의 뜻이 반드시 선행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 훼손당하지 않으시며 홀로 영광을 받고야 만다.

신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을 보자.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1-13)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해서 근검절약과 절제의 미덕을 깨우쳐 실천했다는 뜻이 아니다. 서두에 분명히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만 불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천 불 밖에 응답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감사했다는 뜻도 아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풍부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 처했든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그런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뤄지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과 사람의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심지어 신자 자신의 기대와 믿음이 약해지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을 자주 체험하다 보니까 외적 여건이

풍부하든 궁핍하든 자신의 내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그라고 해서 초인적으로 항상 담대해져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일종의 아슬아슬한 스릴을 즐기면서 산 것이다. 여전히 현실은 힘들고 고달파도 매사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 어떤 장소와 여건에서 누구를 통해 언제 이 일을 해결하시고 또 나에게 어떤 위로와 은혜를 베푸실까?” 속으로 거룩한 호기심을 품고 손에 땀을 쥐고 기다렸던 것이다.

갓난아기 같은 신앙

갓난아기가 울 때는 어떻게 해야 울음을 그치는가? “얼렐레 짹짹!”하며 달래면 그치는가? 그칠 때도 있고 오히려 더 울 때도 있다. 더 울 때는 왜 그런가? 배가 고파 미치는데 코미디 프로 보고 웃을 사람이 있겠는가? 애기는 그저 달랜다고 울음을 그치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울음을 그친다. 잠이 오는데 젖병은 소용없고 기저귀가 젖어 있는데 장난감은 필요 없다.

많은 신자가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활동 말고 실제로 사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 애통하는데도 그 믿음이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떨어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다. 제자 훈련에 빠지고 죄를 많이 짓고 성경을 보지 않아서가 아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40일간 개근해도 자기 기도한 제목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신자가 애통해 하는 내용이 갓난아기가 보채는 수준에서 하나 나아진 것 없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찌면 신자라고 할 수조차 없다. 신비하신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는다. 오직 초과달성 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 찾고 믿는다. 이방인이 구하는 하나님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애통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찾지 않았더니 내 앞에는 기가 막힌 웅덩이만 가로 막고 있습니다. 제발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갈급한 심령을 당신의 생수로 적셔주시옵소서”가 아니었는가? 신자의 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해 자신이 풍부하든 궁핍하든 관계없이 밀이 터진 웅덩이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피폐함을 슬퍼하는 것이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 힘든 것이 아니다. 이미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것도 정욕이 개입되지 않고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따로 애통해 할 것이 사실 없다. 현실의 고난은 단지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 신자가 진정으로 애통해 할 문제가 아니다.

본문의 ‘위로’란 단어의 언어적인 뜻은 ‘결에서 부른다’는 것이다. 또 ‘성령’의 헬라 원어도 마찬가지로 ‘결에서 위로하는 자’란 뜻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비뚤어진 신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바로 결에 임재케 해서 위로하시되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해서 그 관계를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자가 자기의 욕심과 계획을 내세워 40일 혹은 100일간 작정하여 쪼트 먹던 힘까지 동원해 쥐어짜듯이 기도하면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해 신자에게 주시는 그분의 위로는 신자가 더 많은 열심, 치성, 수고, 희생을 바치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신자의 계획을 초과 달성해주는 분이라고 믿거나 기대하는 것부터 뜯어 고쳐주는 데서 시작한다. 요나가 하나님의 낚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갔고 하나님은 그를 폭풍이 몰아치는 험한 바닷물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때를 맞추어 준비해 둔 고래에게 잡아먹히게 해서라도 당신의 자녀에게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능력과 은혜가 엄청나고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분에게는 정말 식은 죽 먹기요 손바닥 뒤집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신자가 초과의 하나님만 기대하면 오히려 신앙이 떨어진다. 기도 응답도 그것을 체험하는 인간에겐 어떤 형태였던 자극(刺激)이 되고, 자극이란 동일한 크기로 계속 되선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자극을 찾게 된다. 만약 갈수록 초과의 양이 커지지 않으면 어지간한 은혜를 받고도 실감을 못하고 오히려 불만이 더 쌓이게 되기 때문이다.

초과를 바라는 신앙은 신자가 기대하고 계획 해 놓은 수치 안에서만 반드시 그 응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힘들 때에 즉각적으로 채워지지 않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비례해서 은혜의 양도 늘어나지 않으면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다. 나아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목표치 안에 가두어 한정시킨다. 결과적으로 신자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도저히 어쩔 수 없어 죽게 되는 경우에서 건져 주시는 일 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리가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의 간섭과 위로가 외형적으로는 자주 초과의 모습을 띠긴 하지만 때면 그렇지 않다. 신자가 느끼기에 초과 되는 모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그 반대로 부족한 모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는 법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초월적일 뿐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먼저 움직이시며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초월적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물질계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반응하게 되는 인간인지라 초과만 먼저 알 수 있지 초월은 미처 인식조차 못한다.

그러나 신자가 초과보다 초월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신앙의 능력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선 더 큰 자극을 찾지 않게 되고 또 응답되는 수치만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 언제 응답이 될까, 왜 아직 응답이 되지 않는지 초조해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는 선하고 영광스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당연하므로 절대 응답에만 연연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쓰임 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바울처럼 자신이 궁핍하든 풍부하든 상관없이, 심지어 자기 생명을 앗아가든 자족하게 된다.

초월의 하나님을 단순히 초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신자의 지정의적 인식과 믿음의 범위를 넘어서 일하고 계신다. 초월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신자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한 것에 의존하여 불안해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무제한의 가능성이 신자 앞에 펼쳐진다. 정말 신자가 바라보는 지경과 밭로 밟는 땅 전부를 주신다. 초월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현실에서 아무리 애통하더라도 그분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예배에 참석했으니 복 주시겠지, 뜨겁게 기도하면 언젠가는 내 기대치는 아니더라도 적당하게 응답해주시겠지, 어느 정도 시간과 돈에 여유가 생기면 주위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 식의 차지도 답지도 않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실재(實在)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호흡하며 답살 돌는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너무 좋아 오로지 그분만 찬양하고 경배한다.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슴이 터지도록 채워지고 사단은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된다.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같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되고 신자 영혼 속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잘라내어 거룩하게 변화시켜 준다. 하나님의 약속 한 마디 한 마디가 신자의 존재, 삶, 인생 전부를 생명력 넘치게 바꾸어 준다. 그래서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의 일에 헌신하게 된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현실의 불편하고 힘든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세상과 사람이 먼저 보여 자꾸 초과의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을 죽이고 초월의 하나님을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위로는 젖 달라고 우는 아기에게 단순히 젖 주어 달래는 정도가 아니다. 때를 쓰면 더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신자의 필요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채워 주신다. 대신에 신자가 진정으로 애통해야 할 것을 애통해 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방법과 때와 장소에서 당신의 당신 되심을 확실하게 알도록 해 주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며 더 이상 당신과의 관계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바로 이것이 신자가 애통할 때에 받는 위로의 본질이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신29:29)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야곱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

군자(君子)란 어떤 사람인가?

공자가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이 도덕군자(君子)인지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은 미쳐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거나 감옥에 갇 각오하지 않는 한 남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나쁜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누구라도 남이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지 남에게서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자는 없다.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들 앞에선 선하게 행동한다.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빈둥빈둥 소일하는 것은 둘째 치고 주위의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한 시기과 질투로 뽕뽕 앓고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도 분노와 원망에 사로 잡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수 있다. 음란 포르노물에 중독되어 있거나 심지어 사기 칠 궁리에 몰두하고 있는 자도 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라도 자신의 모습을 진짜 솔직하게 꿰뚫어 보아 부끄럽지 않을 자는 없다.

예수 믿는 신자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혼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성경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인가? 수도원에서 정진하는 자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혼자 있을 때 모습으로 군자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때가 도덕성이 가장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숙한가 아닌가를 알려면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가장 많을 때에 신자를 관찰해 보면 된다. 그럼 그런 때가 언제인가? 두말 할 것 없이 시련과 환난이 겹쳐서 힘들 때다. 믿음의 진위(眞僞) 여부는 슬픔과 고통이 밀려 올 때에 가려지게 마련이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애통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위로를 받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다. 어려울 때에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기도 안 해도 믿음이 좋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믿음이 좋은 자는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 누구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 문제는 기도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실질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지 여부다. 나아가 더 중요한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기도 한 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아닌데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위로와 다르면 하나님의 위로다. 세상 사람은 힘든 시련이 닥치면 세상의 위로를 찾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몰라서인가? 아니면 못 믿어서인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절대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어떤 명칭으로 부르던 간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성(存在性)이나 전지전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상 사람들의 고통은 어떤 것들이며 또 그 고통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식을 일류 대학 못 보내어 안달이나 돈이 얼마가 들던 족집게 과외 선생을 부친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때돈을 벌려고 유능한 투자전문가를 찾아간다. 신체가 허약하면 헬스클럽에서 전문가의 조언대로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권력에 의지하거나 정 안되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서라도 복수하면 된다.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세상 문제에서 위로를 얻으려면 세상의 해결책이 훨씬 손쉽고 빠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들도 그들과 똑 같이 자식을 일류대학에 못 보내 안달이고, 주식으로 대박을 터트리기 원하고, 모욕을 준 사람을 혼 내주지 못해 꿈꿨던 것이 애통하다면 과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없다. 고차원적인 신앙지식이 요구되는 문제도 아니다. 잠시만 생각해도 그 대답은 당연히 ‘노(No)’이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신자들마저 그런 문제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기대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 세상 사람보다 더 큰 대박을 그것도 단번에 이루려거나, 세상 사람보다 덜 부지런하기 때문이다.

종게 봐줘서 현실의 삶에서 신자가 그들보다 소극적이고 영악하지 못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추구하는 내용은 똑 같은데 그 방법에서 덜 폭력적 덜 파괴적이라는 의미 말고는 없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 보고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뒷구멍에서 호박씨 까듯이 숨어서 나쁜 짓을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신자도 속으로는 자기들과 동일하게 세상에서의 출세를 바라며 돈을 벌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비겁하게 공짜로 이루려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기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들이 추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빌어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그들이 신자보다 훨씬 생각이 올바른 셈이지 않는가?

자신에게 절망한 기독교 상담가

신자가 힘든 일 가운데 기도한다고 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애통 거리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애통은 따로 있다.

킬링 필드라는 영화로도 소개되었지만 1980년대에 캄보디아의 공산 폴포트 정권이 양민 학살을 자행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부르스 탐슨이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전문가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근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미국 의사 두 명이 완전히 탈진한 모습으로 찾아 왔다. 캄보디아의 외딴 시골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억류된 동료 의사들을 구출하러 파송된 사람들이었는데, 캄보디아 국경에서 총과 야포 사격 소리를 듣고는 공포에 질려 꼼짝 않고 숨어 있느라 이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한 것이다. 국경은 넘지도 못한 채 임무를 포기하고 돌아 온 것이다.

그 딱한 사정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탐슨의 마음속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네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가라!”는 성령의 미세한 음성이 자꾸 들렸다. 도저히 그 부담을 떨칠 수 없어 “좋습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그 일을 맡기로 자원했다. 그러나 자기 방으로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너무나 큰 공포가 엄습해 와 초조와 불안으로 어쩔 줄 모르게 되었다.

“크메르루지에게 잡혀 총살당해 죽는 것은 아닐까? 요행히 죽지는 않고 포로로 잡혀 가도

사랑하는 처자식을 평생 못 보게 될 텐데... 지금껏 쌓아 온 재산과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데...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의술과 상담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데 괜히 이 일을 맡은 것이 아닐까?” 온갖 의심과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를 괴롭혔다. 숨 막히도록 몰려오는 공포 때문에 정말 그의 영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허우적대었고 가족 걱정 때문에 눈물이 닦을 새도 없이 흘러 내렸다. 마음속에서 끝없이 요동치는 온갖 갈등으로 도저히 어쩔 바 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렸다.

심령 깊은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 스스로 질책하는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 왔다. 그 첫마디는 “네가 그러고도 신자인가?”였다. 완전히 망치로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것 같았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남들 앞에서 서원한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네 꼴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사람들과 너희 가족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상담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위로와 은혜를 주셔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나아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대신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참 생명을 얻는다고 당당하게 권유했던 네가 아니냐?” 라는 자신과의 다툼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는 중에도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이 편지가 바로 유언장이나 다름없다 싶으니까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에 글이 지워져 다시 쓰고 지우고 또 다시 쓰기를 밤새 계속했다. 반면에 마음 한편 구석에선 “아까 했던 말을 지금 취소하면 안 될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그만 둘 적당한 핑계 거리가 없을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내가 출발하기 전에 억류되었던 선교사들이 풀려 나오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온갖 황당한 생각마저 오락가락했다. 정말 울다가 기도하고 또 후회했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밤새 잠 한숨 못자고 지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 영혼 심층에 흐르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엄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라는 인간의 꼴이 겨우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정의감에 가득 차 그 일을 자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서원까지 했던 자기와 그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지금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그 일에서 도망 갈 온갖 핑계를 궁리하고 있는 자기와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자기인가?

이러고도 기독교 상담가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 영혼의 진짜 실체를 자기 두 눈으로 선명하게 보게 된 것이다. 의사와 기독교 상담가로서가 아닌 단순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금 탐슨이 애통해 하는 핵심이 돈, 건강, 인간관계의 상처, 가족 간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곤경에 처한 자를 구하려는 정의롭고 선한 결심을 해놓고 자기 의지력이 모자라는 것을 두고 슬퍼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느냐 못하느냐 고민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도 마음이 흔들려 애통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일부 표면적 측면일 뿐이다.

그는 너무나도 연약하며 가난하고 유한한 자기 영혼을 두고 애통했다. 자신의 진짜 실체가 완전히 별거벗긴 채 하나님과 일대일로 밤새도록 대면한 것이다. 한 인간이 평생을 두고 쌓아온 경험, 지식, 명예, 교양, 도덕, 심지어 믿음을 다 합하여도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능력도 발휘 못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정말 한 마리의 작은 버러지만도 못한 피조물로서 우주 전체를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눈보라 치는 광야에 누더기 조각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불려 나와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었드린 것이다.

야곱이 밤새 씨름 한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이 새벽 기도 개근하고 제자 훈련 전 코스 수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으로는 절대 가름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의지하기에 평생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기분의 크기도 아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최면 같듯이 계속 되뇌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나아가 예의 톰슨 의사처럼 하나님과 내 생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을 하고 강한 의지력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조차 아닐 수 있다. 물론 믿음이 없이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다. 말하자면 믿음이란 그런 결단, 선택, 실행 등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신자의 영혼 속에서 형성된 어떤 상태라는

것이다.

참 믿음은 자기 존재 근원의 맨 밑바닥까지 잠수하여 자신의 진정한 실체와 자아를 완전히 까발린 채 한 치의 가감(加減)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말이다. 그래서 정작 자기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문제가 닥치면 자신을 포함한 세상 어느 누구의 권유, 가르침, 도움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아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방은 고립무원으로 꽉 막히고 자신은 완전히 부서져 철저히 고독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심령이 너무나 가난하고 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저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야곱은 압복 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 했다.(창32장)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사자를 붙들고 늘어진 것이 돈, 건강, 명예, 권력의 복을 더 달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는 이미 수많은 재산, 권속, 자녀들을 거느리고 일종의 금의환향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것들에 아쉬운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다음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먼저 보내어 형 에서에게 예물로 주었을 정도였다.

강을 건너기 전날 밤 야곱이 겪은 심령의 갈등은 바로 캄보디아 국경을 건너기 전날 밤 톰슨이 밤새 괴로워했던 심정과 같았을 것이다. 캄보디아에 들어서는 순간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톰슨이나 압복 나루만 건너면 시종을 사백 명이나 거느리고 기세등등하게 마주쳐 올 형 에서의 칼날 아래 자기 운명을 맡기게 된 야곱이나 그 처지는 동일했다.

“저는 두렵습니다. 불안과 염려를 도저히 주체할 수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난 21년간 겪었던 온갖 고생을 오직 고향 땅으로 돌아갈 일념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소원하여 형과 아버지도 속이며 차지한 장자권(長子權)이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도 오직 그 약속만 바라보고 이겨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지금껏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종들, 무수한 가축 떼들, 아내와 자식들, 나의 지혜와 담력과 의지 심지어 여호와를 믿는 믿음조차 지금의 불안과 염려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내일 형님의 칼에 맞아 죽는 것도 두렵지만 그 보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그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 더 괴롭습니다. 현재의 내 심령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강을 얻지 못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 처량합니다. 이 버려지만도 못한 죄인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솔직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랄 뿐입니다.”

탐슨은 자신이 과연 살아 돌아 올 것인가도 두려워했지만 영혼의 더 깊은 심층에선 자신이 일생동안 쌓아 온 것이 너무나 어이없이 한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것으로 인해 더 애통해 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형 에서로부터 지켜 주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이유로만 여호와와 사자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었다. 눈앞에 커다란 장애가 나타나자 하나님의 약속조차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 어쩔 줄을 몰랐던 것이다. 둘 다 믿음조차 아무 힘이 안 되는 연약한 영혼의 최후 막장에 다다른 것이다.

신자가 애통해 할 것은?

신자가 정작 애통해 할 것은 돈이 궁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들이 아니다. 신자라고 그런 환난이 닥쳐도 괴롭지 않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여전히 뼈를 깎는 아픔을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서 힘들고 기도가 끝나도 여전히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가장 먼저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조차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야 한다. 환난을 통해 겪는 고통 자체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함을 괴로워하는 것이 신자의 애통이라는 말이다.

많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신분, 위치, 특권이 과연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삶과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모른다. 말하자면 현재 자신의 주위에 형성되고 있는 모든 여건과 만나는 사건과 사람들이 십자가에 바탕을 둔 하나님의 간섭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자신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간혹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람도 체험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체험을

많이 했던 자들도 수시로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만 보고 그것을 잊거나 사단의 방해에 넘어가 자기도 모르게 또 다시 평강을 잃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뜻 안에 들어 온 신자의 바뀐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한 마디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열심이나 믿음의 크기와 아무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심지어 죄악 중에 있어도 십자가 앞에 돌아와 엎드리기만 하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신자를 모태에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택하여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있고 또 영원토록 그 사랑에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여기에 구태여 다른 어떤 심오한 계명이나 사상을 보탬 필요가 전혀 없다.

신자가 현재 겪고 있는 그 초조와 상처와 공포는 절대로 해결 안 된 채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신자가 걱정거리로 삼을 이유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다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힘든 일들이 신자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지 심판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외면하실 리는 없다. 따라서 신자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유념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항은 오히려 그런 환난을 거치지 않으면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나아갈 방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 환난이 현실적으로는 아주 힘들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울부짖어야 한다. 환난으로 힘겨워 하는 성도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으며 또 직접 당하는 본인이 아니고는 그 힘든 사정을 누가 감히 이해라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단순히 신자의 고통을 경감해주고 그 상처를 싸매 주는 정도가 아니다.

“네가 매번 새벽 기도마다 항상 똑 같은 문제만 들고 나와 울부짖지 않느냐? 단지 시간과 장소와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여전히 그 속내를 가만히 따지고 보면 돈이 없고 몸이 약하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문제만을 들고 애통해 하지 않느냐? 한 번이라도 너 심령의 그 가난하고 비참한 실체를 보고 애통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었다고 입술로 시인은 잘 하면서 실제로는 그 은혜를 알기는커녕 하나님조차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느냐? 어쩌다 그 달 수입이 5천불만 늘어도 마치 전 우주가 자기 손 아래 들어 온 것처럼 기뻐 날뛰다가, 지난달 수입보다 단돈 500불만 떨어지면 당장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며 실망과 좌절로 애통해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매번 그럴 때만 새벽에 나와 울부짖는 네 모습을 보는 내가 오히려 더 애통하다. 도대체 언제나 십자가가 너에게 참 생명이자 능력이 될 것이며 하나님 당신이 너 인생의 참 주인이 될 것이냐? 한 번이라도 너의 믿음 없음을 진정으로 애통해 본적이 있으며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대부분의 신자는 힘든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여 이겨내는 것만 믿음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것도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애통해 하며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탐슨과 야콥은 자신의 전인격체가 완전 누더기 조각이 되어 신자는커녕 도저히 인간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부셔지고 거덜이 나버렸다. 바로 그것이 ‘애통’이자 믿음의 발단이다. 그래서 환난으로부터 구해주겠다는 주님의 명료한 확약을 받기 이전에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된 것이다. 신자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의로운 손길로 그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다시 붙드는 것이 바로 신자가 받는 ‘위로’이자 믿음의 전부다.

야콥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와 사자를 보내지 않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달라는 것이지 당장 형 에서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무기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그를 환도 뼈가 탈골 되어 절뚝거리는 핸디캡으로 만드셨지 않는가? 틀림없이 여호와와 사자는 야콥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을 것이며 바로 그것이 야콥이 받은 축복의 전부였다.

그는 베엘에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받은 약속이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찌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28:15)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요1:51)고 약속하셨다.

야콥은 베엘에서 뿐 아니라 압복 강가에서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다시 붙들게 된 것이다. “언제든지”란 당연히 시련과 환난 때를 포함한다. 신자가 자기 믿음이 없거나 약함을 애통해 할 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신자가 받을 위로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 뿐이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 인생에 힘들고 슬픈 시련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아담의 원죄로 피조세계

전부가 이미 모순과 갈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신자는 힘든 일의 원인을 세상에서 밖에 찾지 못하고 그 대책도 세상에서 찾는다. 신자마저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해법을 찾으면 그야말로 불신자의 비난대로 압제 짓이다. 불신자는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문제를 하나님에게 들고 나오지 못하는데 신자는 뻔뻔하게 하나님더러 자신의 괴로움과 불편함을 책임지라고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리 신자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자를 사랑한다는 계시의 절정이자 완성이라고 해서 신자더러 그런 식으로 뻔뻔해지라는 뜻은 아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정작 실질적인 위로는 현실에서 구하려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든 내 편이니까 하나님의 수완만 빌려 쓰려 해선 안 된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전 존재와 전 인생을 바치는 것과 자기가 급할 때만 그 사랑을 찾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신자가 애통해야 할 것은 불신자와는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 현실의 조그만 장애에도 순간적으로 내 믿음을 포함하여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 힘이 안 된다는 것을 애통해 해야 한다. 연약한 육체, 유한한 능력, 형편없는 도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탐슨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일을 순종한다고 서원하고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산산 조각난 너무나도 가난한 영혼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애통해 해야 한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환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신자를 인내로 단련시켜 도덕군자나 종교적 성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평생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다. 단 한 가지, 그 어떤 환난 가운데도 신자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위로가 없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해 질 수 없고 평강을 구할 수 없음을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는 넘치기 시작한다. 기도한 급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애통해 하며 어떤 위로를 구하고 있는가? 당신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는 것을 애통해 하는가?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만 위로를 받으려 하는가? 여전히 돈이 없고, 병들고, 상처 받아 애통해 하며 오직 그것만 해결하려 든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교회로 오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면 당장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전문가나 기술은 얼마든지 널려 있다.

신자가 왜 온유해지지 못하는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5:5)

불신자의 비난

신자가 불신자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해 자주 듣는 힐난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왜 그리 사람의 의지가 약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면 되지 꼭 주일날 교회에서 울고불고 매달려야 하나?” 미국 최고 갑부중의 한 사람이자 여배우 제인 폰다의 남편이었던 CNN의 회장 테드 터드는 심지어 “기독교는 패배주의자들의 종교”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마저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보았지만 현실의 삶은 여전히 공상 맞다 못해 남들보다 훨씬 뒤쳐진 듯하면 마음 한 구석으로는 솔직히 그런 비난이 타당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 주실 것이야. 주일 한 번 빠지지 않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힘에 부치게 헌금도 했는데 나를 이대로 버려 두실 리가 없어. 이땅에서라도 안되면 죽은 후라도 나는 천국 가서 복 받지만 저런 못된 죄인들은 지옥 불로 심판하실 거야”라는 다짐도 한다. 본문 말씀대로 본인이 온유한 자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를 얻어 가면서 말이다.

이런 불신자의 비난과 그에 대한 신자의 반응은 잘못된 것이다. 둘 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동기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현실에서 복을 받느냐 마느냐에 두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불신자가 비난하는 초점이나 신자가 그 비난을 이해하는 각도가 본문에서 말하는 신자가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즉 신자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얌전하고 조용하며 힘을 동원하지 않고 무엇이든 양보하며 손해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쳐도 스스로 잘 헤쳐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자에게라도 의지해야 하는 기질과 품성, 말하자면 적극적, 능동적, 외향적인과는 반대인 소극적, 수동적, 내향적인 것을 두고 ‘온유’라는 것이다.

기질과 성품은 후천적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준 일종의 은사(恩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창조하셨다.

만약 온유가 그런 성격의 문제라면 알기 쉽게 말해 본문은 “소극적인자는 복이 있나니”의 뜻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람에게서는 복을 안 주신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른다.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에선 그 반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손해와 희생을 당해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가 된다. 심하게 말해 하나님은 한 연약한 인간을 두고 병 주고 약 주는 꼴로 처음부터 갖고 논 셈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인간을 심히 보기 좋은 완성된 전 인격체로 만드시고 그 만드신 대로 고유의 의미와 목적과 계획이 다 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억울하게 상처 받고 손해 입은 것을 반드시 신원해 주고 힘이 없고 약할 때에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성과 기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온유’ 뿐 아니라 팔복 전체에 해당된다. 팔복이 인격적으로 어떤 품성이 고매해지고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죄를 짓지 않으면 복을 주신다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팔복 강화를 권선징악(勸善懲惡) 적인 윤리 지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는 ‘천국’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들의 생명력이 넘치는 참되고 복된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에 신자더러 그런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다.

온유가 지면에 승한 사람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두고 가장 온유하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칭찬한 적이 있다. 누구겠는가? 언뜻 생각하면 다윗일 것 같다.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 사울 왕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오히려 두 번씩이나 살려 주었고, 자식이 반역하자 피난을 가면서도 원망은 않고 끝까지 손해를 감수했다. 시편의 고백을 보면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골수의 진액이 마를 정도로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했다. 어찌 그만한 온유한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을 지목하고 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민12:3) 우리 생각에 모세는 온유와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 아닌가? 그는 애굽

관원이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다.(출2:12) 신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겠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도 지팡이로 두 번씩이나 쳤다.(민20:11) 그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가린 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고 입경 직전 느보 산에서 그 땅을 멀리 내려다 보면서 쓸쓸히 운명했다.

그가 하나님께 소명 받을 때에 여러 번 사양했던 이야기(출애굽기 3장)를 잘 알고 있다. 그가 가장 중요한 변명으로 내세운 것은 “말이 능치 못하고 입이 뻗뻗하여 둔한 자”(출4:10)라는 것이었다. 말에 조리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할 말의 내용을 잘 모르면 조리가 없어지지만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교육 받은 그가 지성적으로 모자랐을 리는 없다. 또 고대 왕들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웅변과 수사학이다. 말을 잘해야 부하들을 잘 설득하고 통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가 입이 뻗뻗하다는 것은 말을 더듬었을 가능성이 많았다는 뜻인데 보통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말을 더듬기 쉽다. 어느 모로 따져 보아도 모세는 그 기질과 성격이 불 같이 괄괄했던 자였지 온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본문에서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프라에이스)는 처음부터 힘이 없어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기와 활력이 넘치도록 강하지만 그 힘을 정신적 물리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감기 몸살로 펄펄 끓던 열이 뚝 떨어져 상쾌하게 단잠에 빠진 상태,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다가 혹독한 비바람이 그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햇빛이 내려 쏘이며 너무나도 잔잔해진 상태, 길길이 날뛰던 야생마가 주인의 조련으로 온순해진 상태를 말한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항상 조용하고 침착하고 부드러웠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는 열정과 힘이 흘러 넘치고 심지어 분노가 끓어 오르지만 유효 적절하게 통제하는 자다.

그러나 무조건 꺾꺾 눌러 참고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는 것은 온유는 아니다. 말하자면 포커 페이스(Poker Face: 포커 노름을 할 때 상대가 무슨 패를 쥐고 있는지 짐작도 못할 정도로 겉으로 감정 표시를 드러내지 않은 것) 나 ‘크레믈린’(소련의 궁전 이름으로 철의 장막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속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지만 겉으로 태도는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발라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는 것은 온유가 아니라 교만의 절정이다.

온유란 불신자들이 신자를 비난한 것처럼 나약하고 비겁하고 게을러서 아무 것도 못하거나 안 해야 충돌 자체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요, 시기와 분노를 속에 감추고 겉으로만 씩씩하고 아양을 떠는 비굴도 아니요, 자기는 백로이기에 감히 까마귀 노는 골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서도 항상 겸손한 척 사양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고 해서 신자가 누구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기를 쓰고 노력하다 나중에는 턱뼈가 아파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라

온유의 참 모습은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고 친절해야 할 때 친절하고 섬겨야 할 때 섬기고 웃어야 할 때 웃는 것이 온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정작 화를 내야 할 때는 반드시 화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11:29)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항상 유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성전 마당에 가득 찬 환전상과 장사치들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바꾸었다고 호통을 치며 내 쫓으셨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문자적 계명에 치중하면서도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며 마치 천국을 독차지한 양 하는 바리새인들더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 부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는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지금보다 나았다고 애통해 하셨다.

반면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인간들의 처지가 안타까워 통분해서 우셨다. 율법대로 하자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죽임을 당해야 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 온 한 여인더러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셨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도 어떤 젊은 남자와 살고 있는 수가 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로는 생수를 주노니 세상에 주는 물과 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녀가 그때까지 묶여 있었던 죄책감, 굴욕감, 수치감의 멍에를 벗기고 구원을 베풀었다.

예수님은 꼭 화를 내어야 할 때는 정말 그 화를 폭발 시켰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는 한량 없이 베풀었다. 감정이 극도에 치달은 모습이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분노는 분노답게 사랑은

사랑답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신자가 예수님에게 배울 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 팔팔했던 모세를 성경은 왜 온유하다고 그것도 이 세상 사람 중에 최고로 그러하다고 표현했는가? 그가 온유해진 계기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질문을 바꾸어 보자. 신자가 어느 때에 가장 온유해지는가? 차분하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곳은 두말 할 것 없이 교회다. 교회 나와서 얼굴을 붉히며 화내는 법은 교회가 갈라져 서로 싸울 때 빼고는 없다. 왜 그런가? 그것도 간단한 이치다. 제사 지낼 때에 웃고 떠드는 사람 보았는가? 진위 여부는 둘째 치고 조상 귀신이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그 앞에서 제 멋대로 설치할 수는 없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면 어떻게 야단치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왜 소란이냐?” 교인들이 교회 나오면 일단은 자기 성질을 죽이고 성경을 가슴 가까이 모셔 들고 서로 만면에 웃음을 짓기 바쁘다. 아무리 그 속에 위선과 가식이 어느 정도 있다 치더라도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데라는 기본 인식은 있다. 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혹시라도 부부 사이에 다투는 일이 생겨도 “내가 방금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라고 마음을 고쳐 먹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신자의 가정, 직장, 학교, 가는 곳 마다 항상 동행하신다. 부부싸움 할 때도 당연히 그 싸움을 보고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신자 부부끼리 방금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선 싸우는 모습이 민망해서 잠시 피해주시는 법은 없다. 순간적으로 방금 예배 드리고 왔는데라는 죄책감이 드는 것도 함께 하신 성령님이 탄식으로 신자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다. 즉 신자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확실 할 때에, 지금 자기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자기가 서 있다는 의식이 있을 때에 가장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핑계 삼아 평소 때의 불만을 터뜨리며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라고 비방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는 온유한 자인데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온유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민12:6-8)

모세는 한 마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재해 있고 자기도 하나님의 목전(目前)에 있음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그 확신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다. 그가 범죄한 것은 반석을 두 번 친 사건에서 보듯이 오히려 그 뜻을 지나치게 실행했기 때문이었다. 모세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바로 이것이 온유의 비결이자 실체다.

그렇다면 모세의 평생 중에 가장 온유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 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돌이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출32:15-20)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흐르자 80이 넘는 노인이 돌 판을 던져 깨뜨리고 우상의 불탄 가루를 물에 타 마시게 하고 또 그 우상 앞에서 마시고 춤추던 자 3천 명을 사형시켰다. 분노를 터트릴 때로 터트렸지만 이는 온유의 절정이었다. 역설적 의미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 모세는 이 일이 있기 직전까지 40일 간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었다. 그분의 의로우시고 선하심을 직접 체험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복 주시려 율법을 세밀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의도와 목적을 완전하게 체득했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심령, 생각, 말, 행동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생명이 전적으로 주장하도록 했고 그의 성격과 기질도 들어 사용하도록 내어 드린 것이다. 이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도 하나님 당신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지 모세가 분노를 터뜨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죽는 것도 아니었다.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가진 모든 것으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온유가 온전해진다. 반드시 분노를 터뜨려야 할 때인데도 무조건 참는 것은 온유가 아니라 비겁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뻛히는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모세가 추구한 것은?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받기 전까지 80평생을 두고 고민하고 갈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과연 어떤 일을 추구하고 소망했겠는가? 틀림없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런 고통 속에 신음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였을 것이다. “나를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기적적으로 애굽의 왕자가 되도록 하였다면 그 지위와 능력으로 동족을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었는가? 그런데도 구하려고 시도한 첫 사건부터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40년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에만 허송세월 하도록 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하자 모세가 감히 불경하게도 온갖 핑계를 대며 주저한 배경에는, “지금껏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양치는 일밖에 못하는 늙은이더러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그런 큰 일을 하라고 합니까?”라는 섭섭함, 당혹감, 의아심 모두가 합쳐진 것이다. 그로선 80년을 혼자 괴로워했으니 하나님께 무려 네 번씩이나 주저하고 따질 수 밖에는... “내가 누구관대 이런 일을 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당신이 보내셨다는 것을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입이 뻗뻗한 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 같은 대답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였다. 특별히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로 이적의 시범을 보이고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셨다. 온갖 손 때가 묻은 낡고 허름한 지팡이를 말이다. 무슨 뜻인가? 지난 40년간 네가 목자 생활을 할 동안 하나님은 단 한번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비유컨대 네가 항상 오른 손으로 들고 다녔고 누어 잘 때도 바로 곁에 두었던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었다.

오래 동안 고민한 의문일수록 해답을 얻게 되면 그 확신의 강도는 커지고 어지간해선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80년 간을 혼자 갈등했던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어도 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엎드렸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 음성을 들었다. 성경은 그를 두고 천국에서나 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본 자라고 했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오면 얼굴에 반사된

그분의 광채를 일반인들은 감히 눈이 부셔 보지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떨기나무 사건 이후로 그는 단 한번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심을 해 본적이 없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과 맞대면하여 분명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인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의 뜻과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그 인생의 마지막 40년은 오직 하나님의 면전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행동했다. 그의 온유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할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첫째 복에서 셋째 복까지

팔복 강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하라고 했다. 하나님을 떠난 내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비참한지 철저히 자각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의 시련과 환난을 두고 애통해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의 가난함,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갈증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실패와 좌절 뿐임을 절감했기에 신자가 된 후라도 자기 심령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진 것을 애통해 하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치유의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재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온유해질 수 밖에 더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고 그분의 의롭고 강한 오른 손이 자신을 꼭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신자는 당당해진다.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곤란한 경우를 당해도 비굴해지지 않는다. 시련과 환난이 겹쳐도 슬픔과 염려와 불안 대신에 평강과 자유함이 생긴다. 거대한 폭풍우가 닥쳐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가 하나 남는 것 없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고요하다.

더 이상 야생마처럼 향방 없는 달음질을 하며 발길이 허공만 치는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는다. 비록 이전의 기질과 성격은 여전히 여전이 꺾꺾 살아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기에 그분의 뜻대로 절제가 가능하다. 이제는 자존심, 체면, 시험, 유혹, 정욕, 죄악 등이 내 심령에 스며들지라도 그것들이 자신을 제멋대로 짓이겨대는 것을 결코 방임해 두지 않는다. 예수님의 쉽고도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있기에 주님처럼 온유해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금 신자더러 세상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을 테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주고 그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 또 성격과 기질을 온순하게 바꾸고 항상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 너희가 신자라면 항상 주님의 면전에 있다는 분명한 자각과 그에 버금가는 행동이 따르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왜 신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온유해지지 않는가?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 찬양을 해도 승리가 따르지 않고 말씀을 배워도 변하지 않는가? 왜 세상과 사람 앞에 주눅이 들며 죄악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그리 쉽게 넘어가는가? 신자가 신자 된 본질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신자가 되었다고 우리의 성격이 착하고 온유해지거나 갑자기 담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항상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무조건 배포가 크지는 것이 아니다.

신자란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한숨을 듣고, 눈물을 보고, 의로움을 입고, 즐거움을 알아야 한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을 슬퍼해야 한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언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져선 충분하지 않다. 바로 내 자신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바로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으므로 어떤 일이 닥쳐도 요동치 않아야 한다.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입이 뻗뻗하다고 우기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4:12)고 약속하셨지 않는가?

모세가 애굽 관원을 쳐 죽일 때에 성경은 “좌우로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2:12)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 때까지는 모세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성격이 불 같아서가 아니다. 아직 사람과 세상의 눈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단지 정의감으로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직 그를 주장하지 않는 단계다.

반면에 두 돌 판을 깨고 삼천 명을 사형 시켰을 때는 자기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애통과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것이다. 개인적인 염려 불안 초조가 그를 흔들 틈이라고는 없었다. 바로 이것이 온유의 참 모습이다.

하나님은 눈동자 같이 신자를 지키시고 침 삼키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오늘도 교통 사고나 심장마비 안 나게 해 주신다는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한시도 그를 떠난 적이 없듯이 우리 모두도 모세의 지팡이를 갖고 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맞대면 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한가지다.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과 애통에는 참여할 마음이 없고 오직 기쁨에만 그것도 공짜로 편승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더럽고 악한 세력 앞에 당당히 맞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분 대신 터트리고 반면에 그것에 눌러 있는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분의 애통함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이다. 바로 그때 성령님을 통한 당신의 임재가 신자에게 참 능력과 위로가 되며 신자는 진정으로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5:5)

모든 인간이 가장 크게 괴로워하는 것은?

미국 전국에서 한 달에 수십만 통의 편지로 인생의 고충을 호소 받아 그 해결책을 신문에 연재하는 론 애슬리라는 상담가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가장 많이 괴로워하는가?”라고 물었다. 질문자로선 아마 돈, 사랑, 인간관계, 출세, 건강 중에 하나를 댈 것이라 기대했겠지만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결국 한 가지 주제로 귀결 되는데 그것은 Fear(공포)다.”

불경기라 수입이 줄어 Mortgage(주택대출금)를 제 때에 못 갚아 집이 혹시 차압 되는 것은 아닌가? 회사에서 Lay-off(해고) 당하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이 혹시 나쁜 친구랑 어울려 마약이나 범죄에 빠지지나 않을까?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혹시 폐암인가? 차가 너무 낡아 가다가 서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새 차는 무슨 돈으로 사지? 이처럼 염려 불안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살이다. 하나가 해결 되면 또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발생한다. 그 직접적 원인이라 무엇이 되었든 일생에 걸쳐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한 마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천성과 기질이 온순하며 정이 많고 겸손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을 확신하므로 자신의 인간적 세상적 기질의 절제가 가능하여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온유한 신자란 모든 사람이 평생을 두고 힘들어 하는 인생살이의 두려움이 없어진 자란 것이다.

솔직히 여러분은 어떠한가? 현실의 삶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졌는가? 고충 상담할 거리가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방이 팍 막혀 있거나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안절부절 못하고 신경질이 폭발하는가?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시련과 환난이 닥쳤을 때에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아니면 그런 어려움 중에도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온유해져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신자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참된 온유와는 거리가 멀고 두려움을 제대로 극복 못하는 쪽일 것이다.

신자가 현실의 삶에서 온유가 드러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신자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떤 장애와 위협을 제거해 줄 때만 그분이 함께 하셨다고 믿는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단순하게 수호신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포커스를 오직 그분에게 의탁하여 고난과 시련을 싸워 이겨내는 것에 둔다. 자연히 신앙생활의 중심도 기도 뜨겁게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와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는 것에 두고 그러면 장애와 위협 자체가 신자의 눈앞에 얼씬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신자가 갖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다.

신자들은 흔히 시련을 아예 없게 해달라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면 적게 해달라고, 또 적은 시련마저 발생 빈도를 낮추어 시련과 시련 사이의 시간 간격을 최대한 넓게 잡아 달라고 간구한다. 말하자면 이왕 닥칠 시련이라면 그 고통이라도 약하게 해서 두려움이 많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다. 심지어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거나 아예 잊게 해주고 나아가 다른 일에 몰두하게 해달라고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박수치고 찬양하고 울며불며 기도만 하고 있거나, 교회 일에만 죽기 살기로 매달려 현실의 삶은 방관 내지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믿음이 일종의 진통제, 수면제, 마취제나 도깨비 방망이 중의 하나로 전략해 버린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환난이 없어지거나 현실에서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며 하나님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 최초 인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부패된 피조 세계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 주시기 전까지는 시련과 환난이 신자 불신자 구분 없이 닥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신자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불신자 시절부터 갖고 있던 기복적 신앙관이 본인도 미처 인식 못할 정도로 잠재의식에 뿌리 박혀 있거나, 때때로 사단의 꾀에 넘어가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나, 심지어 강단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런 착각을 제거하지 않고는 믿음이 바로 설 수 없으며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 환난이 닥치기만 하면 그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두려움의 본질

신자에게도 정작 문제는 환난 중에 느끼는 두려움만 당장 없애려 하는 것이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에 관해선 큰 관심이 없다. 단순히 환난을 통해 현실에서 겪게 되는 여러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싫고 힘들어서 두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착각이다. 말하자면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궁핍함이 두려우니까 해고 자체를 두려움의 원인으로 간주하여서 해고만 안 당하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을 아주 단순한 수학 공식으로 해석하여 믿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 시절에 상관을 찾아가 뇌물을 바치거나 동료를 모함하는 등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힘과 정성으로 신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해고만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간구한다. 두려움의 원인은 불신자시절이나 신자가 된 후에도 동일하게 해고다. 그 두려움을 없애는 해결책도 해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달라진 것이라고는 해고당하지 않는 수단이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인가의 차이뿐이다. 이는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근본적으로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는다.

911 테러의 여파로 사람들이 항공기 여행을 꺼려하자 US Air Way라는 굴지의 항공사가 큰 적자가 나고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다. 그럼 불신자만 골라 해고했겠는가? 신자 중에 기도 많은 자는 해고 대상에서 빠지고 게을리 한 자만 해고되는가? 단지 평소 근무 성적이 나쁘고 태도가 성실치 못한 자부터 해고하게 마련이다. 회사가 판단하여 가장 손쉽게 경비를 절감하면서도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는 부서부터 폐쇄 조치를 한다.

신자가 이런 때도 자신만은 해고 대상에서 빼 달라고 기도한다면 혹시 자기보다 훨씬 형편이 딱한 자가 대신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까? 신자라면 오히려 정말 궁핍하고 어려운 자 대신에 자신이 희생당하겠다고 자원해야 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이 수호신이라면 인사담당자의 정신을 혼미케 하여 영업 실적도 그리 좋지 않은 신자마저 무조건 해고 대상에서 빼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오해는 말아야 한다.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인 간섭으로 신자를 보호해 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아주 예외의 경우에 한정되지 일상적인 일에서마저 그런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듯이 힘들고 고통스런 일이 두려움의 원인이자 실체라면 단순히 그 힘든 일만 없어지면 두려움도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형통하여 남부러울 것이나 부족한 것 전혀 없는 백만장자들에게도 두려움은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많다. 가장 쉬운 예로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은 집 내부 전체를 병균 하나 없는 Clean Room으로 만들어 놓고 살면서도 불안에 떨었다고 하지 않는가? 그에게 힘들고 고통스런 일이라곤 하나 없을 텐데도 말이다. 그러다 결국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지 않는가?

육체, 정신, 현실에 가해지는 어떤 직접적인 고통, 아픔, 쓰라림은 두려움의 본질이 아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군대에서 상관에게 방망이로 기합 받을 때는 그 육신적 고통으로 인해 솔직히 두렵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방망이나 주사가 얼마나 아픈지 이전에 직간접으로 경험하여 이미 그 위력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경 조직에서 나타나는 조건 반사적인 긴장이다. 이런 경우의 두려움은 기억 내지 회상이지 공포 그 자체는 아니다. 이전에 한 번 당했을 때 눈 한 번 찢끔 감았더니 견딜 만했으니 차라리 이번에는 제일 먼저 맞고 말지라는 각오가 생기면서 두려움이 줄거나 없어진다.

두려움의 본질은 다른 것이다. 할로인데이 때에 미국 곳곳에 유령 집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받고 구경 시킨다. 그러나 구경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속에 귀신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구경하기 전부터 모든 것이 다 기계로 조작되는 인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겁이 나는가? 캄캄해서인가? 그럼 사람이 캄캄하면 무조건 공포가 생기도록 본능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밤에 캄캄해도 평안하게 잠만 잘 자지 않는가? 캄캄한 유령 집이 무서워지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떤 모습으로 튀어 나올지 몰라 무서운 것이다. 막상 튀어 나오고 나면 아무리 기괴하고 무섭게 분장을 했어도 별 것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진다.

사람이 두려워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캄캄한 암흑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캄캄하면 바로 앞에 절벽이 나타날지 사자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위험이 닥칠지 전혀 모르니 아무 대비도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위험을 있는 그대로 몽땅 덮어 쓸 수밖에 없으니 두렵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위험에 대한 대비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일을 스스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천둥 번개가 치면 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가? 그 소리가 굉장히 크고 번쩍하는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도 하지만 그런 자연의 위엄에 비취볼 때에 인간이 정말 아무 힘도 못쓰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두려움의 본질은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통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모든 일의 결국이 예측 가능하고 거기에 이르는 길이 통제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는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는가?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자신이 가는 길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 점쟁이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통하게 알아맞힐 수 있어야 하는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통한 능력을 받아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여 잘 믿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뤄진다는 뜻인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목회자라도 환난이 닥치면 앞길이 어찌 될지 모르고 그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는 여느 신자와 다를 바 없다. 신자가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불신자와 정 반대만 되면 된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그 두 가지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오히려 온유를 유지할 수 있다. 신자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우주만물을 섭리하시는 그분의 예측과 통제 아래 온전히 들어가면 된다. 사실은 바로 이점이 신자가 되었다는 가장 본질적이고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

결국 신자가 기도하며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언제 어떻게 환난이 끝날 것인지가 아니다. 과연 이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여부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자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는 것은 영원불변의 진리다. 때로는 당장 인식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진리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신자는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것도 기도, 말씀에 열심인데도 말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8:29)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또 왜 혼자 두지 아니 한다고 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인데도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혼자 두지 않는다지 않는가?

신자도 마찬가지다. 신자더러 당장에 목사, 선교사가 되거나, 교회 봉사나 전도에 열심을 내라는 뜻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의 본질이 단순하게 구원을 얻어 천국가게 되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 세상으로 내어 보내셨다는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이 나에게 시킬 일이 분명히 있고 그 일에 목적하신 바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 보내심의 필연적인 과정임을 확신하여야 한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방향으로 그분께서 이끌고 나아가는 여정이다.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그 계획을 결코 이룰 수 없지 않는가?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진정한 의미는 수호신처럼 단순히 신자를 “어떤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다. 현재 나를 “어떤 지점으로 이끌어 가는 분”이라는 확신이다. 그래서 참 신자는 자신을 둘러싼 외부 사정의 Up-and-down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나 평강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신자에게 돈이나 건강을 줄 수도 뺏을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또는 나빠지게 할 수 있으며, 자존심과 세상의 평판을 세워 줄 수도 망가트릴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예정된 계획과 그 결과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자가 환난 중에 온유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신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자가 해고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 반면에 신자가 형통하고 풍성한 가운데 삶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음을 자기 편리한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기가 행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바라기 때문이다. 자기 인생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단지 현재의 고통만 없애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이 신자와 함께 하심의 근본적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자가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신자로선 그 일에 대한 예측과 통제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또 장래의 결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이라는 분명한 정답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이길 외에는 신자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생살이의 환난과 시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지 못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신자라도 자신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오직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나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므로 현재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신실하신 일정표(日程表) 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내가 단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뜻이 신자더러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하라고 독려하신 것만은 아니다. 그 이전에 신자에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자명한 이치를 밝혀 주신 것이다. “신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서 있다면 그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의 결말을 선하게 보장하지 않을 리 있겠는가? 또 그 결말에 이르는 과정이 비록 힘들고 고달픈 때도 있겠지만 이미 선한 결말이 보장되어 있는데 신자로 실패케 할 리가 없지 않는가?”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절대 절명의 위기를 구하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다. 그녀가 단순히 자기의 결단과 헌신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할 일을 선하게 여기신다면 반드시 이뤄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기꺼이 죽겠다고 나선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만무하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인정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앎이로다.”(롬5:1-4) 바울 사도는 신자란 환난 중에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워 할 수 있는 자라고 했다. 신자에겐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자가 어떻게 해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사업이 형통하는 것을 많이 체험해서 그러한가? 그 소망의 바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 대신 죽이셨다는 확신이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5-8)

신자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옛 사람이 완전히 죽고 또 그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예수님의 생명과 ‘나’라는 존재 전체가 일 대 일로 맞바꾸어졌고 하나님이 그분의 피 값으로 내 인생을 사주셨다는 것을 개인적 인격적 체험으로 아는 자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다. 신자가 정녕 하나님의 이런 확증을 믿을진대 더 이상 어떤 증거와 보증이 필요하겠는가?

나아가 십자가 사랑이라는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답을 갖고 있기에 현재 자기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지 않는가? 자신도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걷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말하자면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인생을 살게 된 자다.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인지라 시련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미 장래를 훤히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유함을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본질이며 ‘온유’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가신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겠는가?

불신자의 인생과 다른 신자의 인생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특이하다. 자기 인생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고 또 그 정답으로 가는 길도 알고 있지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앞날을 예측하고 계획하며 살아선 안 된다. 대신에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이 신자의 인생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측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된다. 자신이 예측하여 통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완전히 중단하고 자기의 전 존재와 삶과 일생을 전적으로 그분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대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물론 하나님이 신자를 떠나시는 법은 절대 없다. 신자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심지어 최악 가운데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신자의 곁에 계신다. 그러나 신자가 자신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확신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림 없이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수행하지 않고 잠시 보류해 두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단지 함께 하고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는 함께 하심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도 대부분의 신자는 그런 상태를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다.

불신자의 경우와 비교해보라.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야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것이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행하여 실패와 환난이 겹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려 든다. 요컨대 주님의 일은 하기 싫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예측하고 통제하려 들지만 앞날에 대한 정답은커녕 예측도 전혀 할 수 없으니 두려움이 없어질 리 없다. 온유한 상태는 평생을 가도 도달하지 못한다.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겼기 때문에 구태여 예측과 통제를 하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닌가? 이런 원리까지도 알고 믿는다. 그렇다면 신자가 환난을 만나면 두렵고 심지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해도 평강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종교적 활동을 하면 하나님이 환난 자체를 없애 주리라 기대해서 그렇다. 기도와 말씀은 환난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키우는 수단이다. 시련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키우지 않고는 절대 온유해지지 못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신자가 환난을 없애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데만 기도를 동원하고 있다. 신자가 되면서도 환난이 어떻게 끝이 날지 몰라 두렵기 때문이다. 신자마저 불신자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예측하고 통제하겠다고 덤비는 셈이다. 여전히 자신의 일생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에 대한 정답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사랑의 보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아프리카 최초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물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팔이 덜렁덜렁 달린 채로 살면서 평생을 두고 좌우명으로 삼은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불사(不死)다.(I am immortal until his works be done.)” 어찌 보면 불경스러운 정도의 말을 했다.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immortal’ 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자신이 불사신이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분이 자기를 절대 혼자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뜻이다.

여러분은 지금 리빙스턴이 가졌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과 사람 앞에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앞길의 수풀 속에 아무리 많은 사자가 숨어 있어도, 아니 눈앞에 나타나 당장 삼키려 들어도, 또 실제로 사자에게 물려도 절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고 온유를 뺏어 갈 수 없다. 그 어떤 일에도 신자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런 계획은 절대 방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한이 있어도 말이다.

신자라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살아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5:5)

사람이 평생 동안 필요한 땅의 넓이는?

온유한 자의 복에 관해 세 번째로 알아보고 있다. 첫 번째는 ‘온유’가 천성적으로 온순하거나 도덕적 겸손이 아니라고 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에 자신의 기질과 감정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 ‘뜻’에 관해 알아봤다. 두 번째는 신자가 자기 일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 있음을 확신해야 온유해질 수 있다고 온유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관해 알아볼 차례다. 주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했다. 강남의 복부인처럼 땅 재벌이 된다는 뜻인가?

톨스토이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왕이 한 충실한 신하에게 네가 하루 종일 걷는 땅을 상으로 주겠다고 보장했다. 얼마를 많이 걷든 상관없이 원이든 사각형이든 사방 둘레를 만들면 그 속에 있는 땅을 다 주겠다는 것이다.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걷고 뛰고 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다.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운동선수도 아니고 평소 때에 달리기 연습을 했을 리 없는 신하가 툼틀없이 마라톤 풀코스를 몇 번 뛰는 것 이상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뛰었을 텐데 안 죽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간의 탐욕을 빗대어 지어낸 이야기다.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나온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縱)과 횡(橫)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창13:14-17)

세상 왕과는 달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둘레를 만들 것도 없이 가로 세로로 한 번만 행하라고 했고 심지어 걷는 것뿐 아니라 보이는 것도 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하루 종일 걷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행하는 땅을 다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는 그 능력이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고 세상의 땅이 전부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있기 때문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사상 최초, 최고의 땅 재벌이 되었는가?

톨스토이는 자신의 우화의 결론을 이런 말로 끝을 냈다. “사람이 일평생을 두고 필요한 땅의 넓이는 오직 가로 1 미터 세로 2 미터이면 충분하다.” 농사를 직업으로 하거나 빌딩이나 공장을 지으려 하지 않는 한 큰 땅은 필요 없고 단지 죽어서 시신이 누울 정도의 땅이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의 삶에서 땅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전히 자기 소유(?)가 되는 땅은 무덤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동일한 결론으로 끝났다.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창25:8-10) 아브라함이 결국 자기 소유로 삼은 땅은 자기 시신을 눕힐 만큼의 몇 평 채 못 되는 작은 굴이었다.

그럼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전부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겨우 이것뿐이었던 말인가?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도 그 결말은 시원찮게 끝날 것이라는 뜻인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분명 동일할진대 구약에서 성도에게 준 땅이 몇 평도 안 된다면 신약에서 갑자기 수만 평으로 늘어날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 두 약속은 분명히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 땅의 크기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는 의미에선 신구약간에 차이가 전혀 없고 동일하다. 그 말은 또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온유한 자였으며 그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막벨라 굴의 몇 평이 아니라 훨씬 다른 의미라는 것이다.

롯의 선택은 잘못이 아니었다

‘땅’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계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양 떼와 소유가 점차 늘어나자 두 집안의 목자끼리 우물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로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창13:8)고 하여 헤어지기로 했다. 먼저 선택권을 행사한 롯은 물이 넉넉하지만 최악의 땅 소돔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기로 했다. 성경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 전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대부분의 신자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마저 이 기사를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뜻대로 순종하였기에 나중에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해석한다. 그 후 진행되어진 결과만 봐서는 이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어쩌면 아주 미흡하고 신자로 하여금 믿음에 대한 오해마저 불러일으키기 좋은 해석이다.

롯은 분명히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선택을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가나안 땅에 남기로 선택, 결단한 적이 없다. 그가 비옥한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일부러 척박한 가나안 땅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생각하듯이 그가 신령하고 믿음이 좋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10절) 무슨 뜻인가? 그가 선택을 했다는 것인가 안 했다는 것인가? 그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로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만약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여 끝까지 고집했다면 그로선 소돔 땅에 갈 수 밖에 없었고 또 갈 용의도 있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택권 자체를 양보하고 포기했다.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그 우선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선택권을 하나님에게 맡겼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는 것은 좌우 어느 쪽이든 상관 않겠다는 것이다. 어떤 땅이 자기 몫으로 돌아오든, 물과 풀이 많은 적든 기꺼이 그 땅에 가서 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원래부터 성격이 겸손하고 세상 욕심이 하나 없이 재물을 쓰레기로 여긴 것도

결코 아니었다. 땅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소유가 많아 동거하기 힘들고 좋은 초지를 두고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래서 서로 헤어지자는 것은 그 소유를 계속해서 증식 내지 최소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외형과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소돔과 가나안 땅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었다.

신자들은 제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신자라고 해서 죄악의 땅을 멀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땅에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를 시킬 힘이 모자라면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롯의 잘못은 죄악의 땅 소돔을 선택하여 가서 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면서도 그 땅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신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 삶을 통해 증거하지 못한 것이다.

신자는 라스베가스에 가서 신자답게 살면 된다. 로스엔젤레스가 오히려 천사의 땅이 아니라 더 큰 죄악의 도성일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인 곳은 세상 어디라고 죄악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가는 곳마다 죄악의 도성이니 따로 구별되어 있는 곳이 없다. 신자는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라면 그곳이 좌이든 우이든 어디라도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100%의 선택권을 완전히 위임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옥토가 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옥토도 광야로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물이 적고 척박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물이 많고 풍요로우면 사단이 함께 한다는 법은 없다.

그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시한 땅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자꾸 남쪽으로 물과 풀을 찾아 내려가다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큰 코 다칠 뻔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소유가 더 많아지는 복을 받았다. 그런 경험을 두 번씩이나 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을 피해 하늘에 오르든 음부로 내려가든 하나님 쪽에서 자기를 놓치지 않으며,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케 해줌을 철저하게 실감했던 것이다.

그래서 땅을 나누는 이 시점에 이르러선 아브라함은 온유한 자로 바뀐 것이다. 비록 인간이 좌든 우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할지라도, 심지어 오랫동안 기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여서 그렇게 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고 목적지에 도달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좌든 우든 결정하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뉘임을 알고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게 된 것이다. 요컨대 뉘은 환경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환경을 풍부하게도 열악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을 택한 것이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신자가 가는 길을 좌든 우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신자는 좌든 우든 선택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럼 신자는 앞발 뒷발 다 들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앞길이 다 형통해지는가? 그렇지 않다. 신자도 세상적 실력을 갖추고 현실에서 요구 받고 있는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말아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반면에 신자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정하라는 것이다.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그 방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면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기에 좌우에 상관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신자가 가는 길의 과정과 결과는 오직 그분의 손에 달렸으므로 자신은 정말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만 소원하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죄도 안 짓고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선택권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실에서 아내더러, 남편더러, 자식더러, 동료더러, 불신자더러, 먼저 좌든 우든 택하라고 하면 된다. 대신에 자신은 상대가 택한 대로 따라 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에서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똑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반드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앙생활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 듯,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따지는 것 같다. 하나님께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해서 그 뜻을 먼저 알아 자기의 삶을 그 뜻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미 자기의 갈 길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몽땅 맡겼는데도 왜 또 그 뜻을 구태여 알려고 하는가?

신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무엇을 하기 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지 헤아려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인격, 품성, 습관, 태도, 인생관을 바꾸어 자기 존재와 삶과 일생 전부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속하도록 해야 한다.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공의와 정직을 실현하며 사랑과 자비를 주위에 베풀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맛보기에 그 뜻대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는 일에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에 안타까워해야 한다. 그분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분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 행동해야 한다. 요컨대 신자는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먼저 되면 신자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선포했는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겔22:30-31) 이 황폐해진 땅을 위해 하나님 대신에 그 무너진 데를 막아 서줄 자를 찾았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요즘 식으로 치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할 자가 없더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신자는 그곳으로 이사 가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처럼 착각해 피하려고만 하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곳으로 이사 가서 막아서라고 하는데도 말이다. 만약 정말 신자들의 생각대로 라스베가스가 죄악의 도성으로 그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곳이라면 신자가 가서 막지 않으면 점점 더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 그럼 요나가 니느웨에 했던 것처럼 신자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심판을 구경만 하겠다는 심보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라스베가스에 진노를 쏟아 부어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정작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파숫군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숫군의 손에서

찾으리라.”(겔33:6)

신자란 세상 앞에 파숫군으로 부름 받은 자다.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 아프리카나 남미의 정글로 선교까지 갈 필요 없다. 가장 가까운 주위에서부터 성벽이 무너진 데가 없는지 살펴보고 가서 막아서야 한다.

부부사이에도 서로 자존심을 세우느라 사랑이 식고 짜증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자녀를 말로 상처주고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는가? 형제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시기 질투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직장 동료, 상사, 부하들을 정말 사랑과 존경과 섬김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마저 체면과 위신 세우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든 쓰임 받기를 원하며 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가?

신자가 다시 성을 쌓고 영적 부흥을 일으킬 곳은 수도 없이 많다. 그것도 지금 당장 바로 자신에게 시작하여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정말 심각하고 위대한 일 때까지 도저히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신이 무너진 성벽을 막고 서야 할 사람으로 부름 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일에 기꺼이 자신을 던질 각오를 하기 전까지는 그 무너진 곳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곳곳에 구멍이 나있고 심지어 이미 대적이 점령하고 있는 곳도 많은 데도 말이다.

하나님은 신자가 종횡으로 밟는 땅을 반드시 다 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횡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에 그 후손 되는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벽을 막아섰기에 기특하고 예뻐서 그런 상급을 주시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보다 신자가 자기 힘으로 차지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자 뜻대로 세상에서 성공을 쟁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자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주위에 비취며 소금

역할을 다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한다면 그 공동체는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신자를 본자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함께 맛보게 된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변화될 때에 그 공동체는 당연히 심판이나 멸망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진다. 그런 공동체에서 신자가 종으로 횡으로 밟으며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와 간섭이 끊어지려야 끊어질 수 없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 모두를 주겠다는 것이 수백만평의 땅을 믿음의 보상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더러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당신을 보고 걷는가, 당신의 손을 잡고 있는가를 도리어 묻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더러 당신이 보라는 것을 보고, 당신이 들으라는 것을 듣고, 당신이 하라는 것을 하며, 당신이 가라는 곳을 가기 원한다는 것이다. 신자가 이런 참 믿음의 바탕 위에서 걷는다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땅이 된다.

모세가 소명을 받으려 불려 나온 경우를 보라. 그곳은 시내산 기슭의 어느 척박한 땅이었다. 가시덤불 같은 것 밖에 자라지 못하는 사막 한 복판의 바위산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임재한 곳이라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 땅에 신발의 먼지가 묻을까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임재해 있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의미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한 모세는 그 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다. 모세는 정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남은 평생에 함께 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다. 비록 모세 또한 모압의 한 이름 없는 골짜기의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혔고 지금도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을 망정...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나님이 이번에는 좌로 보낼지 우로 보낼지 그 방향을 알려고 한다.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이 일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까요? 방향과 때와 방법을 두고 제발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마치 점치러 나오는 것과 같다. 앞 일만 예측하여 불안을 없애겠다는 정도의 순진한 마음이 절대 아니다. 예측만 되면 그 즉시 자기 힘과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빨리 해치우겠다는 불신앙이자 교만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

물론 신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항상 좌우든 순종할 준비가 먼저 된 후에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뜻을 묻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면 그 때 가서 순종하겠다는 것은 천양지차다.

신자는 더 이상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게 물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이끄는지 예의 주시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이 일에 물이 넘쳐날까 혹시 저 일에 풀이 더 많은 것이 아닐까 염려하고 초조해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정작 기도하고 애통해야 할 것은 아직도 세상의 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심령에 주눅이 들어 두려움과 불안이 가시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사람, 처해 있는 모든 여건 등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신하는가? 그럼 여러분은 이미 온유해진 것일 뿐 아니라 또 그 모든 것을 벌써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신자가 정말 책임지고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은 그분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뿐이다.

당나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5:6)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신자들의 가장 공통적인 고민은 틀림없이 “왜 신앙이 그 연륜 만큼 비례해 제대로 자라지 않는가?”일 것이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그저 안절부절 한다. 신자라면 고난이 있든 없든 기도를 매일 꾸준하게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 성경을 일 년에 한 번은 읽어야지라고 매년 결심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누가 좀 강제로 시켜주기라도 하면 나올 텐데라고 생각한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자들의 이런 형편을 잘 알기에 억지로라도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에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성실한 신자에게 시상까지 한다. 또 그렇게 하면 정말 신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도 성장해서 본인에게 더 유익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요4:23) 하나님의 구원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시85:9) 하나님은 선하사 인간의 죄를 사유하기를 즐기시되 그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더 후하시다.(시86:5)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강요, 허위, 위선, 가식, 조종, 사기 등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 일절 개입되어선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믿음이 좋고 기도를 잘하며 말씀을 깊이 알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이 물에 물 탄 듯한가? 매일 단 5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또 그에 맞춰 기도하기를 소원해보지만 빠짐없이 계속 이어진 적이 있는가?

본문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신자의 네 번째 복에 관해 말하고 있다. 바로 우리의 이런 신앙적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다. 당나귀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한다. 그 이유가 당나귀가 성질이 유달리 못되어 먹었거나 주인이 다루는 솜씨가 서툴러서가

아니다. 오직 한 가지 갈증이 안 나면 물을 마시지도 찾지도 않기 때문이다.

신자도 마찬가지다.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자라게 된다. 그런데 신자치고 신앙이 자라기를 소원하지 않는 자가 과연 있겠는가?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하면 그 갈증에 대해 대부분의 신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증과 소원

갈증을 단순히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의 세기가 최대치에 다다른 것이라고 여긴다. 그냥 물마시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막을 걸어가는데 목이 타 들어가듯이 물에 대한 소원이 가장 커진 것이 갈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원의 강도(強度)를 높이고 또 계속해서 그 소원의 크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책상 앞에 매일 성경 5장씩 읽어서 일 년에 한 번 통독하자, 기도는 최소 30분 이상 하자 식의 구호를 부쳐놓고 지키려 애를 쓴다. 그러나 3일도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고 만다.

그러면 자기 혼자 힘으로 하려다 보니 실패했나 싶어 일종의 강제력을 동원하려고 한다. 부흥회, 찬양, 간증, 은사 집회, 특별 새벽기도 같은 집회를 쫓아 다녀 본다. 그러나 여전히 그 효과는 길어야 2,3일 뿐으로 금방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 자연히 목사가 강제로라도 교회에 모아 놓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차라리 매일 교회 가서 사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다. 또 목사도 신자들의 그런 사정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빌미로 교회 일에 열심을 내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일부러 갈증 내려고 노력한다고 갈증은 생기지 않는다. 노력해서 갈증이 생기는 것은 운동으로 다이어트 할 때뿐이다. 말하자면 신자들이 신앙을 키우려는 모습이 마치 물을 많이 마셔야 몸에 좋다고 하니까 물을 마시기는 마셔야겠는데 당장 물마시고 싶은 갈증은 안 나니까 억지로 운동을 해서라도 마시겠다는 꼴이다. 물 마시기 위해 운동하는 바보는 없다. 운동을 하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지는 것이지...

갈증이란 소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기에 소원이 강해진다고 갈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최면술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물마시고 싶다, 물마시고 싶다 자꾸 되한다고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

요컨대 의지력을 동원해 소원을 키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갈증은 오직 본능일 뿐으로 몸속의 수분이 부족하면 몸 전체에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굶으면 굶주리게 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게 되는 법이다.

그리고 본능은 오직 당사자 자신만이 느끼고 채울 수 있지 세 삼자가 개입할 문제도 아니다. 당나귀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는 못하는 이유가 갈증이란 본능을 세 삼자가 당나귀에게 강제적으로 절대 주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신자가 차라리 교회에서라도 성경공부나 기도 모임을 강제로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당나귀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자체로도 신앙을 키우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본능적인 갈증이 전제 되지 않고선 입술만 잠깐 적셔줄 뿐이다.

거미줄로 창검을 막아낸 하나님

터키 갑바도기아 지방에는 석회암 동굴이 많기로 유명하다. 그 지역의 한 작은 동굴에는 이런 설화가 전해내려 오고 있다. 초대 교회 당시의 한 신자가 예수 믿는 것이 발각 나서 도망을 치고 있었다.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어야 하므로 필사적으로 내달려 산 꼭대기의 동굴에 숨었다. 로마 군인들은 계속 추적해 쫓아오고 있기에 동굴 구석에 숨어 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도 여전히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는 점차 가까이 들려 왔고 방향도 분명 동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속으로 다시 군인들을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해주거나, 지쳐서 추적을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게 해 주거나, 산중에서 맹수를 만나거나 계곡에 빠져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 기척이 없었다.

이젠 꿈쩍 없이 잡혀 죽었구나 하고 아예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거미가 동굴 입구에 나타나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이젠 “아니 하나님 군인들 수십 명이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는데 기껏 거미줄로 동굴 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어디서 커다란 바위를 굴러서 막아주셔야지요”라는 불평마저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덧 입구는 거미줄로 다 막히고 군인들도 마침내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쳐져 있는데 이 안에는 사람이 있을 리 없지. 다른 곳으로 가보자”하고는 군인들이 물러갔다. 이왕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곳에 사람이 급히 들어갔다면 군데군데 구멍이 나므로 금방 들킨다. 또 바위로 막혀 있어도 사람이 들어가서 안 쪽에서 막았다면 그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면에 거미줄이 완벽하게 쳐져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 동굴에 사람이 출입한 흔적이 없다는 뜻이 되지 않는가?

그 후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교회에서 큰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끝까지 추적을 당해 순교를 당했는지 살아남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이후로는 그가 평생을 두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불안해하기보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아무리 궁리해도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 절명의 순간, 벼랑 끝에 간신히 버티고 서 있어서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톡 치기만 해도 천길 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직 당신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간절히 당신의 도우심을 소원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생생한 체험을 통해 그에게 확신케 해 주셨다.

물에도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영성이 깊어질 것이라고 쉽게 착각한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은 단지 소원의 세기가 강해지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에서 가장 갈증이 심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는가? 배를 타고 가다 난파당해 조각나무에 매달려 아무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며칠을 열대의 바다를 헤맨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 주위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수평선까지 무진장하게 펼쳐져 있는 바다가 다 물로 이뤄져 있다. 온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지만 바닷물을 마시면 목은 더 타고 탈수증에 걸려 오히려 죽는다는 것을 안다. 반면에

어쩌다 열대성 소나기라도 만나면 하늘을 향해 입을 하마처럼 있는 대로 다 벌리고 미친 듯이 빗물을 받아 마실 것이다. 단 한 방울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 것이다. 같은 물이지만 바닷물은 죽음으로 이끄는 독이고, 빗물은 활력을 샘솟게 하는 생수이기 때문이다.

갈증이란 본인의 열정과 의지적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방금 운동장 몇 바퀴 달린 사람 앞에 아무리 바닷물을 갖다 놓아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생기지 않는 법이다. 생수의 맛과 영양가를 확신해야 갈증이 생긴다.

신앙생활에서도 기도 안 했더니 믿음에 힘이 빠지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다.

언제 기도가 가장 잘되는가? 새벽에 전화기 코드를 빼놓고 골방에 들어가 찬송가 테이프 들으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난 후인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기도가 잘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너무 힘든 일이 생겨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가 없고 온갖 고통을 겪고 있다면 새벽 골방이 아니라도 기도는 잘만 된다. 심지어 자신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지 않았고 또 의식도 못해도 입에서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외마디 비명이 저절로 새어 나온다. 제발 살려 달라,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 주님 도와 달라고 몇 시간이고 한 없이 되풀이 할 것이다. 일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하게 된다.

수차례 노력했지만 해마다 실패했던 성경 읽기마저 아무도 강요하거나 보는 사람 없어도 성공한다. 수면제 같은 성경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수시로 읽게 된다. 주위 형편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성경에 대해 공부해본 적이 전혀 없어 어떻게 읽을 줄 몰라도 손에 집히는 대로 펼쳐 놓고 첫눈에 들어오는 구절이라도 열심히 읽는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마치 운수 맞춰보듯이 아무렇게나 펼치고 눈에 뜨인 첫 구절을 읽었는데도 큰 위로를 받게 되고 마치 그 말씀이 자기의 현재 처지를 대변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도 된다. 기도자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절실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자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쪽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권능의 빛을 비추어 더욱 당신 곁으로 가까이 오게끔 만드는 섭리다. 하나님은 신자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기 때문이다. 신자더러 기도하고 말씀 보는 권능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자꾸 깨닫게끔 만드는 것이다. 말하자면 신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생기지 않는 갈증을 하나님은 생기게 해주신다.

갈증이 결단보다 앞선다

말기 암 환자가 한국의 모 재벌 회장이 치료했다던 미국 텍사스의 세계 최고 암센터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설령 불신자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원에 올라간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렸더니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틀림없이 자신의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내 남은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먼저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알고 계시며, 세상의 어떤 것도 정작 인간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산성임을 확신한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는가? 당연히 후자다. 말하자면 암을 치유하려는 ‘갈증’이 가장 먼저 오고, 다음에 기적적인 치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 본 후,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의지적 ‘결단’은 맨 마지막에 따르는 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려한다. 의지적 결단을 먼저 하여 신앙 생활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소원하는 갈증이 가득 차리라 기대한다. 신자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자신의 인격, 영육간의 전 인생에 조금씩 채워져 나중에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아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자연적이고도 본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갈증이 없이는 은혜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더러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 말하자면 기도란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매 순간순간 공급 받고자 하는 일종의 숨쉬기 운동이다. 신자가 자신의 능력에 힘겹고 급한 일만 전문적인 해결사인 하나님에게 의뢰해 임시 처방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십년을 다닌 집사인데도 아직 술 담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했다.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했다. 여전히 대표기도 때마다 벌벌 떤다. 이러니 언제 내 신앙이 자라지?”라고 말한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믿음을 키우려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의로운 신자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도리어 인간적이고도 종교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물론 자신이 노력하여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신앙이 좋다는 것을 오직 얼마나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느냐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다. 또 교회 십년 다니면 반드시 집사가 되어야 하고, 집사가 되는 자격 요건과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 술 담배를 끊는 것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말하자면 기도 잘하고 성경구절 줄줄 외우고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신앙 좋다는 자격증이나 훈장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있으나 없으나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자신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과 아쉬움이 없다. 하나님과 인격적 대면이 자기 삶에서 실종되어도 전혀 애통해 하지 않는다.

신앙이란 고매한 사상이나 심오한 교리를 습득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다. 그 갈증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이 좋은 것이고 약하면 약할수록 신앙은 약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도우심, 인도하심, 위로하심, 생명 주심, 죄를 씻으심, 영원으로 이끄심 등 그분이 당신의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 빠짐없이 다 차지하겠다는 열망이 신앙이다. 망망대해 한 복판에서 표류하는 자가 빗물을 한 방울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하듯이 말이다.

따라서 신자는 이미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고 자신도 절제할 수 없는 갈급함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 자여야 한다. 구태여 갈증을 만들어 내려고 힘들여 노력해선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

신자가 강제로라도 성경보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단지 신자의 의무로 생각하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왕이면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 둘 중의 하나다. 갈증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심하게 말해 기도와 성경이 신자의 심심풀이 땅콩 수준으로까지 전락했다. 기도하는 재미를 맛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는 재미를 체험한 사람도 당연히 말씀을

본다.

하나님에게 중독된 신자

하나님에 대해 갈증을 갖는다는 것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 좀 경우에 안 어울리는 듯해도 사실은 이보다 더 정확한 단어도 없다. 바로 ‘중독(中毒-addiction)’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란 하나님에게 중독된 자라는 뜻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약 중독자가 히로뽕 주사 맞듯이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베풀어 놓으신 보혈의 주사를 맞은 자가 신자이며 그 보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에게는 바로 마약과 같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마약에 중독되는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주는 것보다 마약이 주는 쾌감이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한번 맛보면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더 찾고 더 자주 찾게 된다. 그 강도도 자연히 높아지며 아예 체질적으로 자연스럽고도 기계적으로 반응한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심지어 현실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몽땅 망하더라도 그것만 찾게 된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리를 믿기로 노력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마약에 취하듯 완전히 매료되는 것이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고 당신만의 거룩하고 영원한 계획으로 인도하셔서 지금도 그 과정을 향해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은혜를 맛보는 것이다. 죄악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있었던 나를 그분이 먼저 찾아 오셔서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

예수님은 신자가 누리는 네 번째 복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을 들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에 대해 중독 증세를 나타내며 항상 갈증을 유지하는 신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달픈 환난이 닥치더라도, 아무리 사람과 죄악과 사단이 신자의 가는 길을 훼방할지라도, 그래서 심지어 기가 막힌 사망의 웅덩이를 지나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신자를 외면하고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말하는 이 네 번째 복 앞에 어떤 복이 있었는가? 온유의 복이다. 그 복은 무엇을 뜻했는가? 언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기에 더 이상 염려 불안하지 않고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된 자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미 양껏 맛본 자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말래야 찾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나귀에게 물을 먹으려면 물가로 끌고 가는 것이 절대 급선무가 아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한참 동안 일부러 물을 안 주는 것이다. 그리고 물가로 끌고 가보라. 아마 끌 필요도 없이 물 냄새만 맡고도 혼자 먼저 뛰어가 고개를 물 속 깊이 쳐박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 못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 하는 자 있는가? 그 시련을 끝까지 믿음으로 참아 내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먼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시련도 하나님이 신자를 향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해야 한다. 말하자면 당나귀에게 그 주인이 일부러 물을 안 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당신을 향한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다음 스케줄은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물가로 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신자의 고난 가운데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신다. 영원한 생수라고 해서 신자에게 더 이상 환난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기에 그 사랑에 중독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만들어 주신다. 따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란 한 번 먹고는 두 번 다시는 갈증이 안 생기는 물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말해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는 생수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영원토록 오직 그분이 주시는 생수만을 찾고 또 마시게 될 터이니 말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주사를 제대로 맞은 적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이 되어 자꾸만 그 사랑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믿음을 따로 더 키울 필요도 사실 없다. 기도하고 말씀 보려 억지로 노력할 필요도 없다. 저절로 무릎 꿇게 되고 말씀에 갈급하도록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물론 신자도 연약하고 게으른 인간인지라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 그러나 그런 때에는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해 있는 성령님이 눌러서 탄식을 하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랑을 갈급하게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증 외에 신앙을 자라게 할 방도는 전혀 없다. 갈증은 의지적 소원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반드시 갈증이 생기게 되어 있다.

테레사 수녀를 닮으려 하지 말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5:6)

세 종류의 의인

일반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의인(義人), 위인(偉人), 성자(聖者) 셋으로 분류한다. 쉬운 예를 들자면 평생 콩나물 장수로 모은 전 재산 10억을 장학금으로 희사한 할머니는 의인이다. 전화기 등을 발명한 에디슨과 노예 해방을 시킨 링컨 대통령 같은 자는 위인이다. 인류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긴 자다. 마지막으로 성자는 평생을 두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나 생명마저 희생하여 오직 남을 위해 섬기며 사랑하는 삶으로 일관한 테레사 수녀, 슈바이처, 간디 같은 사람이다.

신자 또한 이 땅에서 신앙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 세 가지 중의 하나의 모습이 되어 있길 소원한다. 특별히 예수 믿는 신자가 본받아야 할 가장 완벽한 표본으로 테레사 수녀를 꼽는데 주저함이 전혀 없다. 비록 신자가 이뤄낸 일이나 도달한 수준이 질적, 양적으로 그보다 훨씬 못 미칠지라도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는다. 그래서 평소 자신의 모습이 불신자인 콩나물 장수 할머니보다도 못할 수 있는가 하고 괴로워한다.

예수님도 본문에서 신자는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야 한다고 했기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본질은 아니다. 신자더러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굶주리고 목말라야 할 의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 지점이 의인, 위인, 성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문에서의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고 가르친 그 의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비중을 가진 계명으로 꼽으셨다.(마22:37-40) 그 말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반드시 현실적으로는 불쌍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가 결과적으로는 이웃 사랑과 같다는 논리가 된다. 다른 말로 의인, 위인, 성자의 모습 셋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인가? 또 신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포커스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다윗의 부하들

이 문제를 추적하기 위해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다윗이 길에서 며칠을 물도 못 마시고 굶은 한 애굽 소년을 만나 도와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0:11-15에 나온다. 그런데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단순하게 의를 실천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했다는 기록이 아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이스라엘 땅에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 적국인 블레셋에 도피했다. 그것도 단신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삼상22:2)들과 가족 등 수백 명이 함께 가드 왕 아기스에 투항했었다. 아기스로선 유다 사정에 능통한 다윗을 부하로 부려먹게 되었으니 손해 볼 것 하나 없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하나 주어 거주케 했다.

당연히 다윗으로선 블레셋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며 모든 면에서 잘 보여야 했다. 그래서 동족이 사는 유다 남쪽을 노략질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유다를 괴롭히는 남방의 이방 민족인 아말렉을 쳐서 그 노획물을 유다의 것인 양 블레셋에게 갖다 바치곤 했다. 로빈훗 같이 일종의 의적활동을 하면서 적국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한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다윗으로선 블레셋의 녹을 먹는 신하 입장이라 자기 동족을 치는 전쟁이지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함께 거주하던 자기 부하 600명을 이끌고 가드 왕의 진지에 갔더니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혹시 다윗 일당이 전쟁 중에 변심하여 이스라엘 편을 들면 큰일이라는 반대에 부딪혔다. 그 바람에 다윗으로선 다행스럽게 동족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그 동안 그에게 많이 당했던 아말렉이 그가 없는 틈에 쳐들어와 처자식들을 몽땅 포로로 잡아가고 성읍을 완전 폐허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자 집과 가족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린 비참한 상황을 보고 흥분한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삼상30:6) 다윗으로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경우에 빠졌다. 올 데 갈 데 없는 자들을 거두어 먹여 살려 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드는 셈이었다.

부하들의 뜻은 아주 단순했을 것이다. “우리가 시글락을 떠나지만 앓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앓았을 것이다. 너만 믿고 따라 나섰더니 이 꼴이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가 유다 땅에서 돈 없고 권세 없이 억울하게 당하고 손해 보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같은 핏줄이요 우리 조국이지 앓느냐?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내키지 앓았는데 네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이 일이 생겼지 앓느냐?”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전쟁에 동참하는 일을 두고 아마 공개적인 반대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도 아닌 채 매일매일을 살얼음 위를 걷듯이 고생하는 것도 순전히 처자식 때문인데 이제 몽땅 잡혀가고 없으니 더 이상 무슨 재미로 살 것인가? 차라리 우리가 죽느니만 못하지 앓는가? 이 모든 일이 네 때문에 일어났으니 너라도 대신 죽어야 이 원한과 억울함의 반이라도 씻겨지지 앓겠나?”

물론 그들의 분노와 억울한 사정을 이해해 줄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윗의 처자식도 잡혀가긴 그들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혈혈단신으로 사면초가에 빠졌고 복수의 희생 제물이 되어 생명이 날아갈 판이었다. 성경도 그 사정을 “크게 군급하였으니”(삼상30:6)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실망하고 좌절했는가? “너희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앓느냐? 블레셋에 동조하지 앓았으면 아말렉보다 그들이 먼저 쳐들어와 우리는 다 죽었을 것이다. 아말렉이 쳐 들어오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지 앓느냐? 나로선 최선을 다했다. 나도 처자식 잃고 원통하긴 마찬가지다”라며 같이 분통을 터뜨리며 맞대꾸했는가? 그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6절)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며, 한량없이 관대한 마음으로 부하들을 끝까지 용서하며 포용했고, 자기 전부를 희생해서라도 벌어진 모든 일에 스스로 책임졌다고 선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 또 그래서 다윗의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한 것이기에 신자도 그대로 본받아야 한다고 단순히 마음먹어선 안 된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公儀)라는 속성에 견주어, 영어로 따지면 Justice(正義)로만 이해하려 든다. 그래서 선하고 곧으며 공평하고 의롭고 착하고 거룩한 일을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단순히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이런 식의 이해가 믿음의 바탕에 깔려 있으니 지금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부하 탓을 전혀 하지 않고 용서하는 선한 모습만을 바라보게 되고 또 바로 그 점을 자신이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솔직히 신자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본 결과는 어찌 되는가? 교회 생활 수십 년이 지나도 항상 “나는 왜 불신자인 콩나물 장수 할머니보다 못한가?”라는 죄책감 밖에 남지 않는다.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만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것조차 떳떳하지 않고 자량이 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영어로 치면 Righteousness다. 흔히 생각하듯이 선과 악의 개념(good or bad)이 아니다. 맞느냐 틀리냐(right or wrong)의 개념이다. 이렇게 접근해 보면 이 구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와 신자 개인에게 간섭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인간이 그 선악간(善惡間)을 절대 따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신자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과정 전부가 인간의 판단에 의롭고 위대하고 성스러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정의로 해석한다면 역으로 따져서 의롭지 않고, 위대하지 않으며, 성스럽지 않은 일들은 절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며 나아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금 다윗이 처한 곤경을 보라. 처자들은 대적들에게 잡혀갔고 부하들은 집단으로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자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선한 측면은 없고 오히려 악한 모습뿐이다. 그럼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은 전혀 간섭하지 않았고 오직 사단이 꾸며낸 일인가? 그렇지 않다.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다윗의 전쟁 참여를 허용했다라면 그들로선 더 어렵고도 악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자기 동족을 살해했어야 했고, 어쩌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설령 전쟁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온다고 해도 어차피 그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시글락은 노략 당했을 것이다. 또 이미 한번 전쟁을 치른 뒤라 처자를 되찾으려 갈 시간적 군사적 여력이 아예 없어졌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히 인간이 의롭다, 불의하다 구분 지을 수는 없다. 심지어 그분이 하신 일을 큰일과 작은 일로 나눌 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전부가 위대한 큰일이며, 거룩하고 성스럽고 선하며 의롭기만 하다. 그분의 역사를 거룩함과 사악함으로 구분 지으려 시도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교만하기 짝이 없다 못해 웃기는 일이다.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기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마치 흰색 분필로 흑판에 글을 적으면 흰색 말고는 다른 색이 전혀 나올 수 없듯이...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거나, 아주 시시껄렁해 보이는 하찮은 일이거나, 심지어 억울하고 짜증나며 의심과 불만과 불신만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완전히 실패해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신자에게 간섭하는 일은 언제든지 옳고 맞으며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요컨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선해서(good) 그 분이 의로운 것(right)이 아니라,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right)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good)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신자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의 방향도 그렇게 끌고 간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줄 때만 그 분이 선해 보인다. 그분은 절대로 의롭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는 어지간히 믿음 생활을 해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범사에 이런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구별해 내어 그것에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성경은 분명히 신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일이 선하게 결론지어진다고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해서 신자도 그 사실을 잘 안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런 확신이 없다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신자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부분에 아직 인식이 없든가 둘 중 하나다.

하나님의 의가 궁극적으로 완성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골고다 언덕 주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뜻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내가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너를 위해 죽었다. 네 모든 죄악뿐 아니라 원통하고 억울하고 상처 받고 눌리고 묶인 것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네 대신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 모든 것에서 너를 풀어 주었고 또 새 생명을 주었으며 이제부터는 더 풍성하게 줄 것이다”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恩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롬8:32) 하나님은 신자를 다룰 때에 오직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의 원칙만 적용한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롬8:38,39)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때려 죽여도 신자의 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무조건 옳다, 절대 그른 법이 없다(right, not wrong)고 믿는 것이 신자가 붙들어야 할 그분의 의의 전부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의 의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가장 일차적인 모습도 테레사 수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그런 사랑을 베풀기 훨씬 이전에 참된 믿음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든 다윗처럼 크게 군급해도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분이 이루시는 어떤 일이라도 다 선하며 옳다고 확신하기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다. 처자식은 잡혀갔고 성읍도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보석처럼 빛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 여호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간절히 물었다.

다윗은 굶주린 애굽 소년이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요즘 식으로 비유하자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당장 달려가야 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택시 정거장 곁에 있던 거지 소년이 “돈

한 푼 줍쇼.”하고 손을 내민 셈이지 않는가?

그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니? 내 아이가 다 죽어가는 판에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하고 매정하게 거들떠도 보지 않든지, 귀찮고 시간 잡아먹는 것이 아까워서 급하게 한두 푼 던져 주고 택시를 타고 ‘횡’하니 가버리지 않겠는가? 평소에 이웃을 돌보는 일에 헌신 된 자라도 거지 소년의 형편이 딱하고 불쌍하긴 하지만 자신의 사정이 너무 급하므로 직장 동료들에게 좀 돌봐주라고 맡기고 갈 것이다.

다윗으로선 일 분 일 초가 아까운 긴급한 상황이었다. 조금만 지체해도 자기 부인들이 대적에게 겁탈을 당하거나 자녀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갈 형편이었다. 실제로도 오죽 위급하게 아말렉 족속을 쫓았으면 처음에 600명이 나섰다가 도저히 피곤하여 더 이상 행군 못할 자 200명을 도중에 남겨 두고 400명만으로도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소년을 돌봐주기 위해 두세 명 정도 더 남겨두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영민하여 아말렉 족속의 정보를 캐려고 그를 돌 본 것도 아니었다. 성경은 분명히 애굽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말렉 족속이 아니므로 이번 시글락 침략에 직접 연관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다윗이 항상 이웃을 돌보는 선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에 그를 도운 것도 아니요, 아말렉의 정보를 캐려고 그를 문초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참된 의, 이웃 사랑이 아닌 그분의 인도만을 추구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말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간섭하신 결과라는 것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비록 크게 군급한 일 가운데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운 뜻이 넘치고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심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군급한 일이 일어나든 무조건 자기편이신 하나님 앞에 두 말 않고 일단 무릎을 꿇고 겸비하게 당신의 뜻을 물었다. 범사에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였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 나섰다. 어떤 사소한 일도 무심결에 흘려보내지 않았다.

다윗은 분명히 출발 전에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말까요?”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확답을 받고 움직였다.(삼상30:8) 이제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애굽 소년을 만났기에 비록 아말렉 족속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심문하였다.

그 결과 소년은 아말렉 족속이 숨어 있는 곳으로 다윗의 군대를 즉시 인도했다. 또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大小)를 물론하고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아 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삼상30:19,20)고 기록하고 있다. 부하들도 자기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였다면 탈취는커녕 처자식도 못 찾을 뻔했음을 알고 그 공을 모두 다윗에게 돌렸다.

그러나 이 일은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다윗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의, 즉 자기를 향한 선하고 의로우신 인도와 보호만을 굶주리다시피 목마르게 구했던 것뿐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 일행이 잃었던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되찾게 했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의를, 현실적인 보상보다도 당신의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절대적 권능과 온전한 은혜를, 배부르게 채워주셨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라

다윗의 일생 동안 그의 삶과 존재에서 가장 큰 비중, 아니 전부를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증이다.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한 것, 손아귀에 제 발로 걸어 들어 온 원수 사울을 두 번씩이나 살려 준 것, 불쌍한 피난민 600명을 돌봐 준 것,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블레셋의 침공을 물리친 것 등 그가 이룬 모든 의로운 일들이 단지 사람을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자 한 때문이 아니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당신의 의라는 확신을 갖고 겸비하게 순종했을 뿐이다.

그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기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행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절히 추구했다. 그 때마다 그는 일대일로 만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고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맛보아 알았다. 자기가 겪는 모든 일, 모든 여건, 모든 만남, 모든 사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음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의 전 일생을 걸었고 그분의 마음에

맞도록 온전하게 반응했다.

신자가 가장 먼저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테레사 수녀를 꼽아선 안 된다. 일생을 두고 수도 없이 어려운 환난과 역울한 경우를 겪었지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다윗을 본받아야 한다. 신자란 무슨 뜻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무엇을 믿는다는 뜻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믿는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을 의롭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고 확신하는 것이 신자다.

따라서 신자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근본 목적과 이유도 그 의로우심을 맞본 신자가 아직 맞을 못 본 이웃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주위에 나눠주는 것이다. 신자에게 부쳐 준 모든 이웃들 속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닮게 만든 형상이 희미하게나마 아직 남아 있음을 발견하여 그 형상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의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줄로 그어준 구역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 몇몇이 끼리끼리 모여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전하라고 부쳐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끼시고 돌보시는 사랑에 신자는 단지 동참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자연적으로 신자는 반응하고 쓰임 받는 것이지, 신자가 자의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도덕적, 종교적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결과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가 일생을 두고 믿음으로 이뤄내야 할 목표로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큰일을 소망하고 실현하는 것인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자기 삶의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간섭해 달라고 굶주려야 한다. 특별히 자기 속에 더 후미지고 슬프고 힘들고 상처 받고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미치도록 소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고 또 찾아 주리고 목말라야 한다. 정말 생명을 걸고 찾아야 한다. 주의 자비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고백이 순간순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것이 우리더러 의인, 위인, 성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아느냐? 네가 나의 선함과 의로움을 맛보기를 소원하느냐? 내 은혜의 강물에 너의 존재, 삶, 일생 전부를 내어 던지겠느냐? 네 눈에, 네 생각에 비록 크게 군급하여 탈출구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속에도 나의 의가 더 크고도 신비하게 숨겨져 있음을 확신하느냐?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고 언제든지 겸비하게 무릎 꿇고 네 생명을 나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느냐?”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나 신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없다.

예수님은 당신을 떠나서는 신자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요15:5)고 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사령관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목숨을 걸고 기도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리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영웅들은 의인, 위인, 성자라기보다는 전 평생을 걸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또 찾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맞다, 선하다고 믿었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의에 자기 목숨을 걸고 반응한 자들이었다. 때려 죽여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었던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서 자기의 세상적, 인간적, 도덕적, 종교적 의를 채우려는 자들은 아무리 해도 배고파진다. 수도 없이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목숨과 바꾸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미치고 그 의가 자기를 통해 세상에 증거 되기만을 진정으로 소원하는 자는 배가 부르도록 채워주신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닌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채워달라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실 리가 만무하지 않는가?

불신자에게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5:7)

속담과 성경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속담이나 경구가 성경 말씀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예를 들면 가족끼리 화목하고 사랑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한다. 성경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욕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잠17:1)고 한다. 또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예식장보다는 초상집을 찾아가야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더 고마워하고 또 오래도록 그 사람을 기억해준다. 성경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됴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留心) 하리로다”(전7:2)고 했다.

본문의 공홀히 여기는 자 공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도 어디에서 많이 들던 속담 같지 않은가? 언뜻 스스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한국 속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와 비슷한 뜻인 것 같지 않은가?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 즉 앞으로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 올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신자니까 불신자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상식적인 내용은 아니다.

지금 공홀히 여겨야 하는 주체(主體)는 당연히 신자다. 그런데 신자란 하나님으로부터 공홀히 여김을 받은 자다. 따라서 본문을 풀어 쓰면 “하나님으로부터 공홀히 여김을 받은 자는 그렇지 못한 자를 공홀히 여기는 것이 복되나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공홀을 끊임없이 공급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는 스스로 최선을 다하거나 선을 베풀다는 의미는 없다. 대신에 최소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홀함을 입은 자인데, 신자 본인이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자가 단순히 자기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 예수를 믿기로 했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관한 교리는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분명한 개인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공효함을 입었다는 확신은 잘 없다. 말하자면 십자가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복음 속에 들어와 가슴으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공효함을 입은 신자만이 이웃에게 공효함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만이 이웃을 ‘공효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불신자도 남에게 사랑을 충분히 베풀 수 있지만 이웃에게 공효함을 입게 할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효함을 입은 신자뿐이라는 뜻이다.

셋째는 앞의 두 전제의 필연적인 결론으로 신자가 이웃에게 반드시 나눠주어야 할 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또 일반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공효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신자 각자가 가장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공효를 입었는가 아닌가이다. 또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공효가 일반적인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남들에게 사랑이 아닌 공효를 베풀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를 찾는 두 가지 이유

예수를 모르던 자연인이 하나님을 찾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는 이유는 한 마디로 자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많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도덕적 죄악이든, 현실적인 고난이든, 죽음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든 결국 자기 힘으로는 해결 못할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해결해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후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비록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지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와 관점에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기는 약점과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와

자기는 완전히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그것이다. 약점과 핸디캡을 그 정도의 차이만 다르지 결국은 사람이 갖는 단점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이해해선 안 된다.

약점의 쉬운 예로 음치를 들 수 있다. 아무리 음치라도 가요 학원에서 꾸준히 교습을 받으면 본인이 충분히 만족하거나 전문가 수준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나아질 수는 있다. 또 노래 못하는 것 때문에 망년회나 회식 자리에서 조금 창피 당하고 대접 못 받는 것으로 그치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만큼 불편한 것은 아니다. 또 사람에 따라 노래는 못하지만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한다든지 해서 그 약점을 보충할만한 다른 장점을 가질 수도 있다.

반면에 핸디캡은 어떤 것인가? 어떤 치명적인 결점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 TV에서 난장이들의 모임인 LPK(Little People Korea)의 부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나면서부터 척추에 이상이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척추 수술을 다섯 번이나 받는 바람에 골다공증이 생겨 자꾸 호흡이 가빠지며 병세는 더 악화되는데도 더 이상 수술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물론 아무리 운동하고 훈련해도 걷고 뛰거나 계단을 오르고 등산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단순히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 이 청년처럼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 지내면서 나아질 가능성이 전무한 자가 핸디캡이다.

약점이란 평균 수준에 미달한 것에 불과하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 갖추어야 할 요소로는 외모, 건강, 집안, 학벌, 지성, 재산, 인격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각 항목별로 최고 수준의 상태를 10점이라 쳤을 때에 평균 이하인 1-4에 해당하는 것들은 단점이며 6-10점을 받는 것은 장점이다. 약점은 객관적으로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은 부분이나 평균 이상의 점수라도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좀 더 나아졌으면 소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핸디캡이란 점수로 따지면 아예 0.0001도 줄 수 없다. 사람으로 구실을 하려면 걷고, 보고, 듣는 능력은 구태여 점수로 따질 필요도 없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기본적 자질인데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쉬운 예로 시력을 점수로 따지려면 일단은 조금이라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든 일단 수치로 측정되면 그것은 약점이다. 그러나 장님의 경우 심지어 마이너스 무한대의 수치로도 표현이 안 된다. 핸디캡이란 남보다 훨씬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런 자질이 없는 자라는 뜻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다. 그 뜻이 우리더러 단순히 너희는 약점과 허물과 죄가 많음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여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너의 도덕적, 인격적, 영적인 상태와 존재 전체가 스스로 좋아질 가능성은 아예 제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너는 처음부터 천성적인 소경이자, 앓은뱅이이자, 귀머거리이므로 아무리 노력하고 연습해도 그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적 측면에서 모든 인간이 몇 가지 약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핸디캡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신자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여러 면에서 낫지. 나도 몇 가지 약점이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또 이웃에게 온정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 마치 노래 실력이 형편없었는데 열심히 연습하여 이제 노래방에 가서 창피 당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또 그 향상된 실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 예외 없이 허물만 몇 가지 있는 상태가 아니다. 속에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염려, 짜증, 시기, 질투, 분노, 음란, 사기, 꾀함, 탐욕, 죄악이 줄기차게 솟아 나오는 존재다. 나이 든다고 그 양이 줄거나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질적으로 확실히 구별 될 만큼 나아지지도 않는다. 나아가 혹시라도 조금 나아졌다 해도 그 상태를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은 없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도대체 장소와 시간과 환경에 전혀 구애 받지 않고 스스로도 종잡을 수 없이 튀어 나온다. 그것들이 밖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요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닌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솟구친다.

간혹 나이 들어 상당히 고상해져 죄와는 아주 거리가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의 실체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정작 본인은 자신의 탐욕을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아 더 이상 채울 기력을 잃고 쉬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포기했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깨끗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착해져서 그 사람의 욕심이 죄악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주는 법도 인간 세상엔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욕심을 갖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덤벼드니까 “이 세상은 전부 도둑놈뿐이고 믿을 놈 아무도 없으니 차라리 내가 손해 보고 말지”라고 푸념하며 체념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도둑이 아니라는 뜻이지 않는가? 그럼 과연 오직 그 혼자만 도적이 아닐 수 있는가? 또 그렇게 말하는 자를 두고 선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했다. 그 때에 성경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요8:9)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 여인을 정죄하려던 사람들이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율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간음한 여인을 감히 심판할 수 없다고 실토한 셈이므로 따지고 보면 자기들도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인간은 나이, 학식, 교양, 지위 등 모든 외적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부가 죄인일 뿐이다. 그것도 유대 사회의 간음죄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죄인이다. 단적으로 말해 인간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 혹은 ‘부족한 자’가 아니라 핸디캡의 우리말 의미 그대로 ‘병신’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베푸는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무조건적이며 영원한 사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베푸신 아가페 사랑이다. 말하자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자더러 당신이 실현하신 그런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라고 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현한 사랑을 그 외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신자도 질적 양적으로 최대한의 사랑을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세상에선 모두가 각기 약점을 지닌 채 하는 사랑이므로 그 몇 가지 약점만 보완해주고 힘을 덜어주는 정도의 사랑밖에 못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허물이 있긴 하지만 조금만 고치면 쓸 만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십자가 사랑의 핵심은 우리

모두 휠체어 탄 핸디캡으로 보고 그렇게 대우하셨다는데 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당신을 닮아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나 타락 이후의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덜 충만하거나 힘이 빠진 정도가 된 것이 아니라 아예 빠져 달아난 상태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육 간에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아담과 이브가 서로 별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그 순수한 모습은 찾아보려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측은해 원 상태로 되돌려 놓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런 절실함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그런 절실함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그분과 자신만의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OOO야! 지금 너의 꼬락서니가 그게 뭐니? 너를 겨우 그 모양 그 꼴로 살라고 세상에 보낸 줄 아느냐? 너는 나를 닮아 얼마든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라는 음성을 들은 자가 신자인 것이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18)고 선포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뜻이다.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즉각적으로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느냐고 반발한다.

그들의 뜻은 “물론 나도 허물과 약점이 많으며 때로는 잘못도 저지르는 죄인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또 고쳐 가고 있다. 그런데 왜 꼭 예수가 와서 내 죄를 위해 죽어야 하느냐? 이천년 전 로마 사형수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고쳐야 하고 정 고치지 못하면 그만큼 자기의 죄 값을 자기가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를 죽여 놓고 자! 이 예수를 믿으면 용서해 줄게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런 반발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에만 타당해 보이는 말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을 약점 몇 개를 가진 것이 아니라 휠체어를 탄 완전한 핸디캡으로 보고 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범하고 있는 죄악이 인간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악과 사단과 사망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순과 갈등이나 각 개인이 범하는 죄악과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부패했기에 그로 인해 야기되는 인간의 고통과 죄악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귀속된다. 그런데도 스스로 부패된 인간인지라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나아가 그런 상태를 개선 시킬 능력도 의사도 없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 거룩하고 신령해지는 일에는 완전히 시체다. 하나님으로선 그런 휠체어에 탄 영적인 병신을 그 죄 값을 물어 모두 죽일 수는 도저히 없지 않는가? 그러니 필연적으로 당신이 직접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길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신자들은 끝까지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을 외면한다.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고쳐서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고개를 뺏뺏이 쳐든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별거벗은 모습을 꺼내 놓고 용서를 구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떤 선행을 했던 이웃에게 아무리 큰 사랑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야 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

얼마 전에 끝난 미국 TV의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주제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우리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리라 생각도 계획도 하지 않았다. 비록 오늘이, 이번 달이, 올해가 너의 날, 너의 달, 너의 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네 곁에 있어 줄게.” 친구 사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밝혀 놓았다.

솔직히 우리 모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때에 뺏이 그리 잘났으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한가? 또 모든 일이 스스로 마음먹고 계획한 대로 이뤄지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경우와 비교해 어느 쪽이 더 많은가? 나아가 도덕적, 인격적, 종교적으로는 얼마만큼이나 선한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에는 어떤 열심과 진정으로 임하고 있는가? 아니 구태여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언제라도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자신은 있는가?

그럼에도 예수를 부인하는 모든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전히 자신의 몇 가지 안 되는 약점과

허물을 스스로 고치려 들고 또 고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그렇게 결심한 순간과 그 이후를 비교해 얼마나 나아졌는가?”이다. 처음 고치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에 소원하고 계획했던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있고 또 평생을 두고 그 일에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만약 진짜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공효는 받지 않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해도 된다. 나아가 기독교의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도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마음 놓고 비방해도 된다.

간혹 아직은 자신이 계획했던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단지 게으르거나 노력을 덜 해서 그렇지 앞으로 힘을 더 내면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신이 100% 생긴 자가 단 한명이라도 나타난다면, 어찌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도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것임,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베풀러 이 땅에 다시 오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불신자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또 있다. 온갖 세상의 갈등과 모순으로 인한 환난과 시련이 겹칠 때에, 시험과 유혹에 빠져 죄악 중에 헤맬 때에, 까닭 모를 짜증과 염려와 분노와 놀림이 겹칠 때에, 아무리 세상의 재미와 가치를 추구해도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이 공허할 때에, 그 어느 때라도 자기와 함께 해줄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그것도 그 모든 경우에 동정심, 이해타산, 자존심, 위선, 체면, 교만, 자랑, 사기, 거짓, 위선, 조종 등을 단 한치도 개입시키지 않을 그런 친구가 있는가? 이 질문에도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감히 단언컨대 예수를 끝까지 외면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불신자에게 물어 볼 질문이 하나 더 남았다. 스스로 되돌아보아 도망치고 싶은 과거, 아무리 친한 친구 형제 부모 배우자 사이에도 털어 놓고 싶지 않는 실패와 죄악, 남들이 조금이라도 눈치 채면 안 될 자신만의 비밀스런 더럽고 추한 습관,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아도 자기가 아닌 것 같으며 쳐다보기도 싫고 없애 버리고 싶은 흉악함, 잔인함, 음란함, 기만성 등이 자기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미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으로선 이 세 가지 질문을, 1) 정말 자신을 선하게 완성시킬 자신이 있는가? 2) 내면의 갈등과 추한 면을 씻어줄 사람이 세상에 있는가? 3) 정말 부인하고 싶은 추함이 자신 속에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는 결코 만족 시킬 수는 결코 없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그들 모두에게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날카롭고도 엄숙하게 던졌기 때문이다. 약점 몇 가지만 고치면 성자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들에게 나면서부터 휠체어 탄 병신이라고 하는데 좋아할 리가 누가 있겠는가?

신자는 다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 예수를 잘 믿었더니 천국으로 보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가 아니다. 자신은 도덕적, 인격적, 영적으로 모두 철저히 병신이라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여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본 자다. 나아가 평생을 두고 휠체어를 타는 핸디캡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다. 그래서 자신을 참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그 긍휼을 받기를 소원하게 된 자다.

그래서 아직도 자신들이 병신인 줄 모르고 약점만 고치려 드는 다른 병신을 볼 때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자다. 상상을 해보라. 휠체어를 타고 뒤에서 누가 밀어주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자꾸 혼자서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내리려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서 온 몸에 성한 데 하나 없이 피로 범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쓰럽고 당장 휠체어부터 가져와 앉히고 밀어 주고 싶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병신’을 대신해 모든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휠체어를 말이다.

긍휼이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 스스로 돕는 자 하늘이 돕는 것이 아니요. 불쌍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이며 또 내 이웃도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 그에 걸맞게 반응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이 없이는 우리 모두 도저히 가능성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도 알게 해 주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직 그 긍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에게만 미친다. 그것도 긍휼을 이미 입은 사람을 통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진다. 당신은 지금 몇 가지 약점을 고치려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휠체어를 타고 있는가? 예수님만이 당신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가 되어 날마다 교제 하고 있는가? 그분이 당신의 휠체어를 가는 곳 마다 뒤에서 밀어 주고 있는가? 아니면 혼자서 걸어보려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마5:7)

순교망상증의 신자들

본문에는 최소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공홀을 입은 자라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를 믿는 신자만이 이웃을 공홀히 여길 수 있으며, 셋째는 이웃을 공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공홀을 다시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그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신자만이 이웃을 공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 불신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들 중에도 신자보다 얼마든지 더 성실하게 이웃을 섬기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공홀이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인데 바로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에게 베푸는 것들의 질적 양적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 올려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기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테면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아프리카의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찾아가서 돕고 또 그러다 풍토병에 걸려 죽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간혹 신자 가운데 오지에 가서 빈민 구제하며 선교하다가 죽는 것을 신자가 해야 할 가장 큰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자들이 있다. 말하자면 순교가 신앙의 궁극적인 완성인양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과대망상증이다. 물론 순교의 의미와 가치는 대단하다. 그러나 순교란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한해,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 허용하시는 일종의 최후의 비상수단이지 신자 모두를 순교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을까? 본문 말씀에 그 정답이 이미 나와 있다. 공홀을 “베풀어라” 혹은 공홀을 “실천하라”고 하지 않았다. 공홀히 “여기는”

자라고 했다. 단어의 뜻대로 직역하면 아직은 행동으로 옮겨진 단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단계다.

요컨대 본문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똑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생각하듯이 똑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사랑하겠다고 마음만 먹고 실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더 말이 안 된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고 또 실천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마음만 먹었다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법은 없다.

간혹 목사님들이 아무리 밋더라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들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상대가 변화 된다고 가르친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란 그 본질상 의지력으로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다. 원수를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상대가 내 마음 속에 아직도 원수인 상태로 자리 잡고 있어선 절대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원수로 여겨지지 않아야 한다. 사랑할 구석까지는 없어도 최소한 미워할 구석은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어야 억지로라도 사랑해 볼 엄두가 나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 그 뜻이 신자는 끝까지 핍박 받아 순교해도 되고 대신에 핍박하는 자는 잘되어 형통하라고 빌어 주라는 뜻이 아니지 않는가? 원수가 지금 잘못된 생각과 이유로 핍박하고 있으니 그 핍박을 멈추고 서로 미워하는 부분이, 특별히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간섭을 빌라는 것이다. 아무리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기도가 병행 되어 최소한 자기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법이다.

이웃과 다툼이 생기는 이유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실망, 상처, 갈등, 분쟁, 분노, 저주 등은 절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의지적 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신병자나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누구나 이웃을 사랑할 마음은 있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도 한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이웃을 미워하겠다고 덤비는 자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왜 미움과 다툼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상대가 미운 짓을 하니까 그렇다. 그럼 상대가 나에게 한 짓이 사기, 폭력, 살인 같이 더럽고 추하며 잔인하고 흉측한 일을 했는가? 아니다. 그야말로 별 것 아닌 일이다. 심지어 선한 의도에서 좋은 일을 한 것도 많다. 그럼에도 미워지는 것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다. 거의 모든 경우에 내가 정해 놓은 수준과 기대에 상대가 못 맞춰주어서 그렇다.

주일예배 중에 남편이 자칫 졸았다간 집으로 돌아가는 차중에서 마누라가 바가지를 꿇기 시작하고 곧 부부싸움으로 번진다. 그런데 사실은 남편이 설교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안타까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명색이 여전도회 회장에 구역장인데 그 남편이면 아직 믿음이 약해 장로, 집사는 안 되어도 좋지만 최소한 설교 중에 졸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라는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아 분통이 터진 것이다.

간혹 남편이 설교를 잘 들어주기를 진정 원하면서도 짜증내는 경우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 이유도 대동소이하다. 내 남편의 영적인 수준이 이런 쉬운 설교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인가 하고 자기 수준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초신자 시절에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지금 현재의 자기 수준과 비교한다.

남편이 설교 잘 듣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아내라면 절대 바가지를 긁지 않는다. 왜 졸음이 왔는지, 설교의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었는지 물어 보고 차분하게 보충 설명해 준다. 나아가 남편에게 초신자 성경 공부를 권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남편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장애를 없애고 성령이 역사하여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더욱 간절히 매달려 기도한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머리에 이상한 색으로 염색하고 귀를 뚫어서 귀고리를 하고

나타나면 다짜고짜 사내자식이 그 꼴이 뭐냐고 야단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자식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외모의 적정 기준을 부모가 정해서 갖고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장로 아들인데도 완전히 양아치나 히피 꼴을 하고 나타났으니 남들이 왜 저러나 뒤에서 수군거릴 것이 뻔하니 더 화가 나고 무조건 싫은 것이다. 자기 아들이 지금 어떤 스트레스에 쌓여 있고 또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나아가 어떤 상처와 갈등이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에 저런 모양을 했을 지에 대해선 아예 생각조차 않는다. 해볼 마음도 없을 뿐 아니라 장로인데도 영적인 두뇌가 그런 쪽으로는 전혀 돌아가지도 않는다.

상대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기대에 맞는 자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겠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그 기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반드시 자기 기대대로 끼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분쟁, 상처, 원한, 저주는 오로지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자기가 기대하는 평균 이상까지 끌어 올리고 싶고 또 그렇게 고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기인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인간은 단순히 약점과 허물을 몇 개 갖고 있어서 스스로 고치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대신에 스스로는 도저히 거룩하고 완전해지지 못하며 평생을 두고도 나아질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일생을 휠체어에 타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핸디캡으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이웃의 약점으로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을 휠체어 없이는 꿈쩍달짝 움직일 수조차 없는 핸디캡으로 여기라는 것이다.

만약에 내 남편, 아내, 자식, 교회의 성도, 이웃집 불신자들이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핸디캡이라면, “야 이 놈아! 남들은 잘도 걷고 뛰는데 너는 걷기는커녕 기지도 못하느냐? 이 바보야!”라고 야단칠 수 있겠는가? 또 억지로 걷게 하려고 훈련시키다 걷지 못하면 미워할 수 있겠는가? 걷게 만들려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가?

도덕적인 사치와 교만

오래 전에 휠체어 탄 핸디캡 유학생과 뒷바라지 하는 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에서 몇 개월간 같이 지낸 적이 있었다. 학교의 핸디캡 전용 아파트가 준비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그 기간 동안 마땅히 다른 곳에 갈 데도 없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 댄에는 목사로서 선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자부심을 가졌고 핸디캡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교회의 식사 교제 때마다 국은 안 먹고 밥하고 반찬만 먹는 것을 눈치 채고 국을 안 좋아하느냐, 맛이 없느냐 물어도 씩 웃고만 말았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가 그 이유를 알려 주었다.

그 학생은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 불수가 되는 바람에 소변의 통제가 안 되었다. 호스가 달린 플라스틱 주머니를 항상 허벅지에 차고 다녔는데 소변이 나오면 자동으로 그 주머니에 고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자연히 소변이 자주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 뒤처리도 보통 힘들고 귀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은 좋아 하지만 일부러 안 먹은 것이었다.

그 어머니에게 “많이 힘드시지요?”라고 위로 반 호기심 반으로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다.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나이 40이 다 된 병신 아들을 수발하는 것이 왜 안 힘들겠어요.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과 난처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도 저런 모습으로라도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오줌통을 차고 다닐지라도 오래오래 살아만 준다면 다른 소원은 없어요.”

그때서야 그 동안 제가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는 자부심이 얼마나 엉터리였음을 알게 되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다. 나름대로 인간적 도움을 주었던 것은 기껏해야 인간적 의를 내세운 도덕적 사치요 교만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리가 이웃의 시련과 상처와 고통을 알면 얼마나 깊이 알겠는가? 이웃을 섬긴답시고 한 일들의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 앞에 사랑의 흉내만 낸 걸치레요,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앞장세운 일인지 모른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일조차 실제로는 상대의 고통에 진정으로 동참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또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동료, 이웃, 불신자들을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허물이 많아도 단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 내 성도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겠는가? 그래서 평생 동안 설령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더라도 그런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이라도 그 자리에 오래만 있어 주는 것이 간절하고도 유일한 소원이 되어 있는가 말이다.

하나님과 동격이 되어라

예수 믿는 신자만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 신자의 교만이거나 기독교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다. 긍휼이란 단순히 남을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기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다. 그렇다고 남에게 최고의 희생으로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다. 남을 사랑하거나 불쌍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인간을 판단하듯이 판단하고, 인간에게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끼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와 사단과 사망에 묶여 있는 불신자들에게 갖는 안타깝고도 측은한 심정을 헤아려 보라는 것이다. 또 이미 그분을 알고 따르는 신자조차 현실의 여러 시련, 환난, 상처로 괴로워하고 시험과 유혹에 빠져 죄악으로 달려 갈 때에 당신께서 얼마나 한숨 쉬며 애타할 것인가 그 심정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격의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만이 가지는 긍휼한 심정을 바로 신자가 가져서 남을 그 긍휼로만 판단하고 대우하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자더러 갑자기 인격적으로 완전히 거룩해지라거나, 바다 같이 포용력이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인간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성자는 될 수 없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일종의 핸디캡이 되었다. 몇 년 전에 큰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남이 잘 모르는 어려움을 평생 지니게 되었고 나아질 가망성은 없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짐으로써 더 악화되어 간다.

휠체어 탄 그 학생을 이전에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동정심을 갖고 측은하고도 안타깝게 여겼었다. 그러나 나도 일종의 핸디캡이 되고 나니까 그 학생을 향한 안타까움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

나는 겨우 이 정도로도 이렇게 힘든 데 그는 얼마나 더 힘들까? 그의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필요 없이 그가 느낄 고통이 내 가슴 속으로 가득 차도록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비로소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일반적인 사랑, 동정, 섬김 그런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공홀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저절로 생겨났다.

핸디캡이 되어야만 핸디캡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과부 사정은 과부만이 알아준다지 않는가? 핸디캡이 아닌 자도 얼마든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핸디캡인 자를 성심껏 도와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강자로서의 여유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진정한 공홀보다는 인간적 동정심이 우선될 수밖에 없고 의를 베푼다는 개인적 자량과 가식이 끼어들게 마련이다. 또 그런 여유가 떨어지면 섬기는 것도 끝나거나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 있다.

정상인이 비정상인을 섬길 때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그 사람의 고통에 동일한 아픔을 갖고 동참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핸디캡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 들여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홀이란 그 핸디캡이 단지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핸디캡 때문에 더 사랑스러워지는 사랑, 그리고 그 핸디캡이 더 악화되어도 그 사랑도 함께 더 커지는 사랑이다. 동일한 고통을 똑 같이 가슴으로 체험하여 그 아픔이 구구절절이 자기 안에 완전히 녹아내리지 않고는 도움이나 섬김은 할 수 있어도 공홀을 절대 베풀 수 없는 법이다.

불신자는 왜 공홀히 여기기 못하는가?

불신자도 자신이 몇 가지 약점과 허물이 있는 죄인이라고 인정한다. 또 그런 결점들을 고치려 노력하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잘못들을 뜯어 고치고 많은 선행을 베풀면 죽은 후 극락으로 보내주는 신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꼭 죽어야 하느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 이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바꾸는 신령한 일에 대해선 나면서부터 완전한 바보천치요, 병신이요, 심지어 시체라는 사실은 꿈도 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고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똑 같이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다. 자기 같으면 벌써 고쳤을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 참된 용서와 사랑이 따를 수 없다. 부족하고 잘못하는 자를 도와줄 수는 있다. 단 상대가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그 약점을 고치려고 성의를 보이는 한도 내에서는 말이다. 그러나 절대로 상대를 휠체어가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핸디캡으로는 보지 못하니까 공황을 베풀 수 없는 것이다.

신자는 어떤 자인가? 바울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2-24)고 고백한 대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도저히 스스로는 고치지 못하는 핸디캡이라고 인정한 자다.

자기 속에서 종잡을 수 없이 솟아오르는 온갖 더럽고 추한 죄성들을 아무리 뜯어 고치려 들어도 실패만 거듭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혼자 힘으로만 감당할 수가 없음을 잘 안다. 그래서 단지 치료약이나 심지어 수술 정도로는 안 되고, 사망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 줄 자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자다.

그래서 그 때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찾게 되는 자다. 그러면 그분이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당신의 거룩한 빛을 신자의 놀리고 찢기고 상처 받은 영혼에 비취주신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신자를 붙들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시켜 주신다.

그때 비로소 신자는 아무리 동족을 수탈한 죄 많은 세리, 현장에 간음하다 잡혀 온 여인,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공황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분을 본받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다. 또 그 죄인들 속에 사랑할 만한 것들을 발견해서 공황을 베푸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들 속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죄에 찌든 모습밖에 발견 못하지만 문제는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속에도 똑 같은 모습과 크기로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도 오직 예수님의 공황이 필요 했고 그 공황만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었듯이, 저들에게도 똑 같이 오직 그분의 공황만이 필요 하며 그 외의 어느 것으로도 저들을 살릴 수 없음을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신자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다.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빌2:5-7) 된 마음이다. 예수님은 육신만 인간의 모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고통과 상처와 죄악 중에 눌러 있는 인간의 심령을 끌어안고 함께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했다. 신자더러 바로 그런 마음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신자가 되었다고 선불리 죄인과 원수들을 사랑하려 들지 말라. 테레사 수녀처럼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남을 섬겨야지라고 결심도 하지 말라. 오히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며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그분의 긍휼 없이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점검해 보라. 그때 비로소 나와 똑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의 상한 심령을 바라 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궁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핍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마5:7)

설교자의 가장 큰 유혹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심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쉽게 저지르는 잘못이 하나 있다. 잘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한다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다. 믿음을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면 가뜩이나 고달픈 삶의 행로에 지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자 교회로 모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부도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암에 걸릴 확률은 신자 불신자를 불문하고 대동소이하다. 물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듯이 신자를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며 성경이 분명 약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약속들에는 언제나, 명시적으로든 아니면 전체 문맥상의 흐름에서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 활동에 열심과 정성을 다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건반사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목사가 그런 유혹에 잘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은 신자들이 그런 설교를 듣기 좋아하고 심지어 요구하기 때문이다. 목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자도 그런 생각이나 기대를 접어야 한다. 혹시라도 그런 메시지를 듣더라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간단하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붙여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들 중에는 이미 그런 분별력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무응답 자체가 응답이라고까지 이해하는 신자도 많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성숙한 신자마저 정작 현실의 큰 시련과 환난에 부딪치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부터 드는가? “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봉사와 헌금과 전도와 구제에 열심이었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고난을 주시는가? 제대로 믿음도 없고 교회도 건성으로 다니며 뒤에서 나쁜 짓은 골라 하는 사람은 아무 탈 없이 잘만 사는데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말로는 기복신앙을 부인하면서도 속으로는 잘 믿으면 형통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진전된 것이 사실상 별로 없다. 믿음에 문제가 없으면 현실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는 기복 신앙과 어법(語法)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내용은 정확하게 똑 같다.

공홀히 여기면 공홀을 받는가?

본문에는, 신자는 하나님의 공홀히 여김을 받은 자요, 신자만이 이웃에게 공홀을 베풀 수 있으며, 또 그러면 하나님의 공홀을 받는다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다. 이제 그 세 번째 의미를 살펴 볼 차례다. 그런데 이웃을 공홀히 여긴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홀을 받게 된다면 방금 믿음의 실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따져 본 내용과 서로 상충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신자가 가진 믿음의 수준이나, 그 믿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정도가 하나님의 공홀을 받는 전제나 조건은 절대 될 수 없다. 공홀이란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가? 전혀 그럴만한 처지, 조건, 상태, 자격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수 되어 있었음에도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고 새 생명을 허락한 것이 바로 공홀이다.

십자가의 공홀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만 있지 인간 쪽의 조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거하여 인간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숭고한 희생이 가르쳐서 그 보상으로 구원해주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 당신 되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마련되어 있던 구속 계획에 따라 죽으셨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의 회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공홀은 작동되기 시작했다. 오직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가 어떤 죄악 속에 있던 단지 자녀이기 때문에, 나아가 사랑이신 당신의 품성 때문에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십자가 구원 이외의 길은 결코 있을 수 없었다.

한 마디로 말해 당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신 당신의 자녀가 타락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공홀을 베푸는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 외의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구원해 주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조건, 전제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공홀히 여기는 자는 공홀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가? 이를 역으로 말하면 공홀히 여기지 않는 자는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공홀히 여기는 자만이 공홀히 여김을 받는다가 된다. 공홀의 본질대로 인간이 남에게 공홀히 여기든 말든 모든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공홀을 베푸실 것 같으면 구태여 이런 말씀을 따로 할 필요가 뭇 때문에 있겠는가?

영원히 행복해지는 비결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행복하기 원하는가?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머리가 산뜻해지고 새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하루는 간다.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라.” 맞는 말이다. 집을 떠나 낯선 곳에 이르면 며칠은 아주 즐겁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즐거운 여행이라도 일주일이 경과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집을 사면 전식구가 함께 집을 꾸미고 가꾸느라 신난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치장이 끝나는 대신에 고치고 손 볼 데가 서서히 눈에 띄면서 골칫거리로 둔갑한다.

“일 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결혼으로 인한 행복이 일 년밖에 안 가면 너무 짧은 듯한가? 집안의 장남이었던 어떤 목사님이 자랄 때에 너무 고생하며 외롭게 커서 결혼하면 아내와 함께 있고 또 같이 힘을 합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첫날밤을 지낸 다음날 새벽 곤히 누워 자고 있는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자니 앞으로 박봉으로 어떻게 아내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나 걱정이 앞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래서 결혼의 행복도 12시간을 채 못 넘긴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영국 사람이 결혼으로 일 년 동안 행복할 것이라고 한 것은 그나마 후하게 봐준 것 같다. 아마 골치 덩어리 아이들이 생기기 전의 신혼기간은 부부 둘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슈퍼 로또에 당첨되어 돈 걱정 하나 없이 호사스럽게 보내면 되는가? 영국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 본문처럼 이웃을 공홀히 여기는 것이 인간이 누리는 행복 가운데 가장 크고, 깊으며, 흔들리지 않고, 싫증나지 않아 오래 지속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학창 시절에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일일 봉사로 방문해 본 적이 있는가? 농촌 봉사 활동을 몇 주씩 다녀온 적이 있는가? 아까운 자기 돈과 시간을 투자했고, 몸은 피곤하여 녹초가 되었어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리고 그 기쁨이 친구들과 운동하고 생맥주집에 가서 노닥거리는 재미와, 심지어 여자 친구랑 데이트 하는 기쁨과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가?

세상에도 신나고 재미있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한 걸 같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이것 말고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텐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또 거의 대부분의 세상 재미들은 함께 즐기는 자들과 시기, 다툼이 일어나며 심지어 허무함, 죄책감마저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대체로 겨우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더라는 후회만 남는다.

그와 동시에 심령 깊숙이 미쳐 채워지지 않던 공허감으로 인한 미련이 끝까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메워줄 뭔가를 소원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세상 재미란 필연적으로 더 신나고 더 화끈하고 더 오래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또 찾게 만든다.

반면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데도 아무런 아쉬움이나 부족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영화 선전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인 스틸, 서스펜스처럼 감각적으로 말초신경을 건드리며 대뇌의 표피를 짜릿하게 자극하는 그런 재미는 전혀 없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주지 못하는 의미와 보람과 가치는 가슴 뿌듯하게 채워진다. 지금껏 느낀 재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격이 소리도 없이, 빛도 발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스며들어서 우리 존재 전체에 완벽한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준다.

세상의 재미는 “내가 겨우 이 풀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자기모멸로 끝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재미는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형성시킨다. 세상 재미는 잠시 잠깐 그 때뿐이지만 이웃 사랑은 그 일이 끝난 후에도 한참 감동이 남고 아무리 오랜 후에 회상해도 그 여운이 줄거나 가시지 않고 오히려 새록새록 돌아난다.

나아가 이웃 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거나 강요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더욱 이 일에

헌신해야겠다는 다짐이 저절로 생기며 실천하게 된다. 말하자면 오랫동안 모르고 또 잊고 있었던 자신의 참 모습을 되찾은 것 같다.

바꿔 말해 이웃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지름길, 아니 거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게 인간을 창조했다는 뜻도 당신의 본성인 사랑을 인간에게도 근본 품성으로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은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문제는 아담의 타락으로 그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 그 바람에 이웃 사랑이 아닌 방법으로 자꾸만 자신의 자아를 회복하려 들게 되었다. 이는 애당초부터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도다. 사랑이 채워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라면 다른 어떤 것을 채워도 그렇게 될 수 없으니 항상 허망하고 갈급하기 마련이지 않는가? 평생토록 행복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영국 속담은 일종의 성경적 진리에 해당한다.

왜 하나님은 북한 정권을 그대로 두시는가?

흔히 하나님은 왜 북한 정권을 심판하지 않고 계속 그냥 두고 보시는지 의아해 하는 신자가 많다. 김정일 같은 천하의 죄인을 당장 벼락을 맞게 해서라도 없애야만 하나님의 정의가 공평하게 증명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악을 다루는 가장 근본 원칙은 죄인을 그 죄 중에 그대로 둔다는 것이며 또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롬1:24,26,28)

하나님이 악인에게 벌을 주지 않고 가만 두는 것이 어떻게 가장 큰 벌이 될 수 있는가? 설명이 조금 이상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라. 김정일에게 벌을 주어 정신을 차리게 만들면 김정일 자신에게는 그것이 벌인가 상인가? 벌을 받아 정신 차려 좋은 사람이 되면 그것은 상이다. 죄악 중에서 욕신과 정신과

영혼이 썩어진 채로 가만 두어서 완전히 썩어지게 만드는 만큼 사실은 더 큰 벌이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죄인을 그 정욕, 욕심, 상실한 마음대로 둔 결과가 어떠하다고 성경은 증언하는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롬2:29-31)

불신자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예수가 “밥 먹여 주나!”라고 큰소리치고선 투기, 사기, 부정부패 등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만 추구하는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비록 잠시 욕심이 편안하고 재미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로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쓰리고 텅 빈 심령이 그와 반비례로 썩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원인 모를 짜증, 놀림, 불안, 염려 때문에 결국 그들의 발걸음은 기껏해야 점쟁이, 술집, 도박장, 섹스, 마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또 그럴수록 하나님과는 더 등을 지게 되어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진다.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며 몸뚱이는 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이다.

불신자가 받는 이런 벌을 역으로 따지면 바로 신자가 하나님에게 받는 축복이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신자의 속에 자연히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말하자면 불신자가 죄에 그냥 거하도록 하는 것이 별로서 따로 형벌이 따르지 않듯이, 신자를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그냥 두시는 것이 복이지 그것으로 인해 따로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니 하나님의 큰 축복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품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말하자면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이웃 간에 사랑하도록 장착해 놓았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의 꾀에 넘어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다. 쥐뿔도 잘난 것 없으면서도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해 제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아예 못 쓰게 만들었다. 이미 바이러스가 먹은 프로그램으로는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작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선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행복의 주머니를 채울 수 없는 법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이 그 허황해진 심령에

비추이면서 그 바이러스가 제거된 자가 신자다. 그 빛 속에서 “내가 나의 형상으로 닮게 만들었던 너는 나의 품 안으로 되돌아오라. 왜 문 밖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느냐?”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비로소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신자가 예수를 믿었다고 더 거창한 행복을 보상으로 주시지 않는다. 단지 이웃 사랑하는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품성을 못 쓰게 만든 바이러스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이웃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신자가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평생의 행복이다.

이전에는 아예 원수로 지내며 외면했던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믿고 그 거룩한 이름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되어 의와 생명과 거룩을 실천하며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것, 현실에선 비록 여전히 환난과 시련이 겹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더 키워 가는 것, 세상에서 어떤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덮칠지라도 절대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대적하며 승리하는 것... 등등 신자의 행복은 수도 없이 많다.

사실 너무 고상하고 복잡하게 표현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 언제 어떤 모습이든 담대하게 나아가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게 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신자의 행복의 본질이다. 문제가 해결되어 시련이 끝나야 행복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다. 신자의 행복은 다르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

신자와 불신자가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가? 신자가 더 거룩하고 신령해지고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인가? 아니다. 불신자에게서 믿음을 더한 것이 신자이고, 신자에게서 믿음을 빼면 불신자다. 더도 아니요 덜도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것만이 가장 큰, 아니 유일한 차이다. 현실적, 지성적, 도덕적으로 불신자보다 더 나아진 것 하나 없다. 오직 한 가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뿐이다.

믿은 것 그 자체가 바로 신자의 행복이라면 성경은 왜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마치 보상으로 받을 것처럼 약속하고 있는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야 신자가 쉽게 알아듣고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열심을 내기 때문인가?

교도소의 사형수들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박효진 장로가 인터뷰한 기사를 한 기독교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다. 그가 간수로 근무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흉악한 죄인들을 사랑한 것은 아니라고 실토했다. 오히려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 한심하고 나쁜 놈들인지라 뜯어 고치는 일이 자기 소명이라고 다짐했다. 그래서 훈계하고 심한 경우 무지막지하게 때리기도 해 ‘지옥의 사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죄수들 사이에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아무리 때려도 반응이 없을 때는 독이 더 올라 진짜로 죽을 만치 때렸는데도 도대체 변하지 않고 더 나빠졌다고 한다.

그런 어느 날 본인이 성령 체험을 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야말로 천하 죄인 중의 죄수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그의 심령이 거둬난 것이다. 비로소 그 사형수들보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만 할 진짜 죄수임을 깨달았다.

그 때부터 죄수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측은해졌다. 감옥 밖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자들은 겁이 많고 체면 때문에 속으로는 똑 같은 죄를 수 없이 범하면서도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더 영악하고 치사해 죄를 짓고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을 뿐임을 알았다. 자기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반면에 어리석거나 성질이 급하거나 돈과 권력이 없는 자들만 감옥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똑 같은 죄인 된 입장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 자기 혼자 의분과 열심을 갖고 고쳐보려 할 때보다 죄수들이 더 쉽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당신과 함께 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단순한 복음에 흉악무도했던 사형수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고꾸라졌다. 심지어 사형 집행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전혀 두려움과 떨림 없이 담대해졌다. 너무나 큰 변화에 당황하며 쳐다보는 교도관들에게 오히려 “꼭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래야만 천국 갑니다.”라고 전도하며 죽는 자도 있었다.

이웃이 힘들게 고생하는 모습이 불쌍해서 내가 가진 여유를 조금 나눠서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의 핵심이 아니다. 박 장로가 사형수들을 인간답게 바꾸겠다고 시도한 것도 교도관이라는 신분상의 여유가 있어 도와주려 했던 것이다.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성의와 열심이었을 뿐이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공휼을 나눠주지 않으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야말로 죄인 중의 죄인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도 똑 같은 죄인임을 알 때에 그들의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상처, 놀림, 메임, 원한, 분노 등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을 씻어 주고 감싸 안고 위로하려고 들면 들수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나의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대신에 저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도 구원하여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공휼, 위로만이 그를 살려 낼 수 있음을 확신하여 하나님 당신만의 은혜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해야 한다.

그래서 참 신자란 남을 도울 때에 비록 오해와 반발과 멸시와 박대를 당하더라도 어떠한 억울함도 남지 않고 자신에게 상처도 되지 않는 법이다. 자기의 성의와 열심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가 바친 만큼 비례해 성과가 나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공휼 외에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상대가 아직은 공휼을 베푸는 분이 누구인지, 왜 이런 공휼을 베푸는지, 또 그 공휼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얼마든지 인내하면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더 기도하게 된다.

공휼히 여겨야만 공휼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처형한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7:60)라고 박해자들의 용서를 빌었다.

하나님은 신자가 신앙생활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여유라도 내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반드시 기쁘게 받으시고 때로는 보상도 하신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모두 내

코가 석자 아닌가? 우리가 이웃을 도우면 얼마나 도울 수 있겠는가? 돈으로 메울 수 있는가? 시간으로 메울 수 있는가?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그들 보다 내가 더 슬프고, 상처 받고, 눌린 적이 많지 않은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훈 없이는 이 자리에 성하게 앉아 있을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예수를 안 믿으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다는 뜻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망하거나 돈이 없어 찢찢맨다는 뜻도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훈 안에 들어가 그 은혜에 잠기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영혼의 안위와 평강을 맛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공훈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맛을 본 자는 자꾸만 그 공훈을 또 찾게 된다. 한시라도 그 공훈이 떨어지면 자신은 또 다시 세상에서 헛걸음을 디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예를 든 박 장로님처럼 이웃에게 예수님의 공훈을 제대로 베푸는 자는 그 공훈의 풍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공훈을 이웃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또 자신의 사정이 힘든 자는 힘들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공훈을 찾고 또 찾게 된다. 신자가 하나님의 공훈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조금씩 알아갈수록 그 공훈에 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기도하면 더 기도하고 싶고, 찬양 부르면 더 찬양 부르고 싶고, 말씀 보면 더 말씀 보고 싶어진다. 이웃에게 공훈을 베풀면 자신도 또한 공훈을 더 갈급하게 원하게 되며 하나님은 당연히 공훈을 무한정으로 베풀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신자가 하나님의 공훈을 소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아가 공훈은 신자로 공훈을 또 찾게 만들고 하나님은 또 채워주므로 공훈 그 자체도 신자의 행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훈히 여기는 자만이 공훈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이웃을, 특별히 예수를 모르거나 잠시 떨어진 이웃을 공훈히 여기는 것만이 신자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도 평생을 두고 말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 보았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8)

마음의 눈으로 보다

물론교의 초창기에 웃지 못 할 코미디 같은 사건이 있었다. 물론경은 그 창시자 죠셉 스미스가 100% 소설처럼 지어낸 이야기다. 그럼에도 꿈에 나타난 천사로부터 뉴욕 근교의 어떤 농장에 가보라는 계시를 받고 찾아 갔더니, 황금 판에 고대 이집트어로 쓰여 있는 경을 발견했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물론경이라는 핑계를 댔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트려 주었으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경의 서두에 그 황금 판을 직접 보았다는 증인들(Eyewitness)의 이름을 열거해 놓았다. 당시의 기자나 학자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그들에게 “황금 판이 어떤 모양이더냐? 종이가 아닌 황금 판에 경을 다 적어 놓았으면 그 부피나 크기가 엄청났을 텐데 얼마만 했느냐? 이집트어가 어떤 모양과 크기로 적혀 있더냐?” 등등 계속 따지고 물었다. 그 중 한명이 드디어 양심에 가책을 느꼈는지, 집요한 추궁에 못 견디었는지, “내 육안(肉眼)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았다”고 대답했다. 결국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그런 황금 판이 없었다는 것을 시인한 꼴이다. 당연히 그 사람의 이름은 증인 명단에서 삭제되고 다른 이로 대체 되었다.

예수님은 신자가 누릴 8복 가운데 6번째 복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았는가? 혹시라도 육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 마음이 아직 청결하지 못해 하얗게 되도록 하이타이로 세탁 중인가? 혹은 이제 겨우 세탁을 해 볼까 마음만 먹은 단계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실체를 인간의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 우리는 물질계 안에서 육신 상태로 있고 하나님은 영으로 물질계 밖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감히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껄썸해서 안 보여 주는 것도 아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티끌 같이 적은 더러움과도 공존할 수 없다. 중력이 무한대인 블랙홀이 중력을 가진 어떤 물체라도 접근하기만 하면 흡수해서 소멸시켜버린다. 마찬가지로 무한대를 넘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찌든 인간이 서면 그분을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순간적으로 소멸해 버린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신자는 죽은 후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이 청결한 신자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을 본다고 했다. 그분의 실체를 보면 죽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기도를 간절히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다는 뜻인가?

만약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런 직통 계시를 뜻한다면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수한 뜻이 있을 때만 그 분을 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예수님은 팔복 강화를 통해 엘리트 신자 계층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신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동양 철학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나무, 물, 돌, 짐승에도 하나님의 신이 깃들여 있다거나, 하나님의 실체가 따로 없고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거나, 사람 안에 우주 전부가 있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체라고 말하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해둘 것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는 의미 자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쉽게 말해 ‘본다’는 것과 ‘보이는’ 것을 분간하지 않고 같은 의미인양 혼동하고 있다.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이는 것 전부를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보통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아무리 쳐다보아도 그저 “야 참! 별이 너무나 많고 정말 아름답구나!” 정도로 그친다. 또 한 2-3분만 쳐다보고 있으면 목이 아프고 어지럽다. 반면에 천문학자가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여기는 전갈자리, 저기는 황소자리, 거기서 남쪽으로 몇 십만 광년이 떨어진 곳에 지금 블랙홀이 별들을 삼키고 있구나.” 온갖 신기한 현상과 움직임을 상세하게

구별해 가면서 보므로 보면 볼수록 재미있고 신날 것이다. 밤새도록 봐도 목이 아프기는커녕 지겹지도 않다. 일반인에게는 밤하늘이 보였고, 천문학자는 밤하늘을 보았다.

이처럼 보고 있는 대상물이 무엇인지 정확한 지식을 갖고 보아야 ‘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단지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천체 물리학자가 아니고 망원경이 없어도 밤하늘을 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교과서에서 배운 북극성과 북두칠성 같은 별자리들을 찾는 놀이를 하면서 당연히 재미있어진다.

반면에 구체적인 개념 없이 어떤 대상을 아무리 오래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아도 그것은 보이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다. LA에 멕시코 TV 방송이 많은데 스페인 말을 한 마디도 모르고 봐보아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파란 것은 하늘이라는 정도 밖에 모르지 않는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동일한 이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 분을 보지 못한다. 그랜드 캐년에 가본 경험이 있는가? 입이 썩 벌어질 정도로 장엄 하고 웅대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어떤 완악한 불신자도 “뭔가 조물주는 있는 것 같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아”라는 숙연한 생각을 잠시나마 갖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으로 그치고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그 웅장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어렴풋하게 보여진 것이지 불신자 본인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만으로는 신자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신자란 자기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알고 바라본 자다. 단지 보여지기만 한 하나님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리 많이 보아도 여전히 그는 불신자일 뿐이다.

그럼 결국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라고 독려하는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볼 수 있다고 해 놓고 또 이제 보아야 알 수 있다니 도대체 무슨 뜻인가? 멕시코 TV를 보려면 아무리 스페인어를 몰라도 일단은 채널을 맞추고 보아야 하듯이 하나님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분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는 그분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 삶 속에 임재 해 있다는 인식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불신자라도 “누군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나? 믿어져야 믿지!”라고 반문하는 데에 있다. 그들도 힘든 시련이 그치지 않을 때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지하여 보호와 인도를 받고 싶어

한다. 심령 속에 까닭 모르게 불쑥불쑥 솟구치는 초조, 짜증, 두려움, 놀림, 분노를 없애고 사기, 거짓, 위선, 음란, 탐욕, 죄악들을 깨끗이 씻고 싶은 소원마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믿기지 않으니 믿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없는지 하소연 한다.

그런데 불신자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로 사실상 정답은 이미 밝혀진 셈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인생, 존재 속에 모순과 왜곡을 발견하여 현재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뒤틀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갈등하고 고민했기 때문이다. 또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왜 늦게 목사가 되었는가?

모든 이의 인생은 단 하나 예외 없이 시련과 환난이 그치지 않는 힘든 길이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이를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조금만 사려가 깊은 사람이라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자기 인생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때때로 든다. 또 이상하게 세월이 갈수록 그런 느낌이 더 강해진다.

살다 보면 제일 미치고 환장할 때가 언제인가? 당장에 돈이 없고 병들어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월척이 넘는 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려 반쯤 올라 왔는데 낚시 줄이 끊어져 바로 눈앞에서 그 고기를 놓쳐 버리는 것 같은 경우다. 이젠 드디어 내 팔자가 형통하나 보다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져 수포로 돌아가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다.

그것도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엉뚱한 사태로 일이 꼬여버리고 방향이 전혀 반대로 틀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자기로선 가장 큰 힘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부분에서 어이없게도 망한다. 자기가 가장 자신했던 부분에서 실패했기에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더 괴로운 것이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금이 부족했는가, 권력자에게 미쳐 부탁하지 못했는가, 정보 수집을 등한히 했는가, 세밀하게 일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는가, 모든 정성을 쏟아 부어 놓지 못 했는가 등등 실패의 원인을 자기 쪽에서 찾아내려 한다. 그리고 나름대로 수정하고 준비한

후에 재차 시도한다. 그래서 어쩌다 성공하면 온 천하가 자기 손으로 떡 주무르듯 할 수 있으리라
기고만장 한다.

그러나 한두 번의 성공으로 인생 전체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실패가 결정적인 순간에
반복해서 일어난다. 나중에는 건디다 못해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나? 내 친구가 청와대 높은 자리에
있는데 한 건만 눈 찔끔 감고 봐달라고 청탁을 넣어봐? 마지막 남은 이 돈으로 몽땅 슈퍼 로트를 사서
대박을 기대해 봐?” 온갖 말도 안 되는 수단을 다 강구한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판단하지 그런 실패의 배경에 있는 진짜 실체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가장 자랑했던
부분에서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자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친다.

제가 40살이 넘어 미국으로 이민 왔고 또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어떤 계기로
목사가 되었는지 묻는다. 그렇게 묻는 의도는 뻔하다. 무엇인가 드라마틱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 나이에 전혀 다른 분야의 길로 들어설 리가 없다고 지레짐작한 것이다.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거나, 하다못해 큰 병에 걸려 기적적으로 나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을 직접 보았는가라는 질문이다.

물론 저도 극적인 체험을 간증 하자면 책으로 써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한결 같은 제 대답은 “다른 길로 가려니까 자꾸 하나님이 막더라.”는 것이다. 계획과 예상 밖의
장애가 나타나 이리 가도 넘어지고 저리 가도 얹어졌다. 결국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 길로 이끄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논리적 설명도 불가능하다. 또 그 대답만이 가장 정확하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이 내 계획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나 외의
어떤 다른 손길이 작용했다는 뜻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은 나인가 그 손길의
임자인가? 너무나 간단한 이치 아닌가?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거나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계속해서 자기 노력으로 이루려고 고집해 보지만 그 삶 앞에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참담한
실패뿐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특별히 심오하거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다 동원하고 처갓집 돈까지 몽땅 끌어넣어 이번엔야 말로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해 죽기 살기로 매여 달렸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 “아무래도 이것이 아닌 것 같아”라고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자신의 준비 부족이거나 재수가 나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재조명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 간혹 험통한 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낭패와 상처가 따라 다녔던 내 인생 행로가 단지 우연이나 재수가 교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 성공과 실패의 구체적인 원인과 경과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미리 정해진 것 같은 일정한 흐름을 따라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되어진 모든 일들에 간섭하고 계셨고 또 실제로 당신을 보이셨는데 자기는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고자 어느 날 부흥회나 기도원에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불을 받는 체험을 하게 해 주신 것이 아니다. 저는 40년간 온갖 실패를 겪었다. 그래도 “내가 겨우 이런 사람으로 멈출 수는 절대 없어. 내가 누군데? 나는 얼마든지 최고로 잘 할 수 있어!”라는 고집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당연히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 수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고, 솔직히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 밖에 보지 못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 눈에는 똥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 한 적도 없이 오직 돈 벌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은 아예 관심 밖이었다. 아주 가끔은 그것도 큰 실패를 겪어야 어떤 심술궂은 신이 일부러 나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밀어 넣었다고 불평할 정도의 영적 수준밖에 안 되었다.

인생살이란 회로애락이 번갈아 일어나게 마련이다. 개별 사건 하나만 따져선 지난 경험과 자기 지식에 비추어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지 가끔 알 수 있을 때도 있다. 그러나 누구나 한두 번은 자기 인생 전체가 사방으로 완전히 막혀 아무 대책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 뭔가 이게 아닌 데라고 진정으로 고민하다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내 인생 전체를 큰 물줄기에 따라 끌고 가는 어떤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 힘이 무엇인지 또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의 실패와 그 목적지가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는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힘이 이끄는 방향을 바꿀 수 없었는데도 자꾸 거역하려 했던 것이 지난 모든 실패의 원인임을 알게 된다. 또 앞으로도 혹시 그 흐름을 거역하려 들면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그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힘을 아무래도 거역할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내 힘을 포기하고 그 힘에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 여전히 어떤 일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방향은 잘 모르지만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그 힘이 이끌고 가주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참으로 이상하고도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그 때까지 나를 묶어서 못살게 굴던 불안, 염려, 초조, 짜증, 분노 등이 그치고 자기가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평온해진다.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해 자포자기했거나, 단순히 생각을 바꿔먹은 것도 아니다. 분명히 나보다 월등한 힘을 가진 제 삼의 존재가 있음을 알고 그 분께 자기 인생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내 속에서부터 나의 지정의로 노력해서 얻어낸 평강이 아님을 본인은 확실히 안다.

말하자면 나를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거룩하고 전지전능한 절대적 존재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 흔들릴 수 없는 확신으로 다가온다. 나의 주관적 생각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 몸 밖에 분명히 실재(實在)하는 객관적 제 3의 실체가 내 곁에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면 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비록 육안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니다. 한 죄인의 영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취져 영안(靈眼)이 열렸기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뤄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됨으로써 불신자 시절처럼 보여지는 그분을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며 본 것이 아니다.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두 눈을 뜨고 똑 바로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결과는?

제 힘만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려 했던 한 죄인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분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죄인은

기도하지 못한다. 도덕적인 죄 때문이 아니다. 사단이 그를 묶고 있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기 때문이다. 또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본 자는 다르다. 물론 처음에는 스스로 생각해도 유지하다 싶을 정도로 당장 고난을 겪는 현실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매어 달린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소한 현실적 요구의 바탕에도 항상 근본적으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믿음은 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셔서 저를 알고 있고 또 제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제 모든 슬픔과 고민을 아시고 내 한숨을 들었지요? 이 곤고한 삶에서 빠져 나오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심령 깊숙한 곳에 텅 빈 공간을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습니까?”라고 상호 인격적 앎을 근거로 기도한다.

때로는 자기가 생각에도 심하다 싶은 거창한 것을 기도할 때도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현실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열매들이 하나씩 맺히기 시작한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 당신만의 어떤 일관된 의도가 드러나며 선하고 공평하고 의롭지 않은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더 이상 일부러 고통을 먹이는 심술궂은 신의 장난, 조종, 속임수가 아님을 알게 된다.

나아가 지난 세월 동안에 힘들었던 상처와 실패와 좌절과 분노마저 그 때 당시로선 나에게 가장 최선이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지금의 열매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된다. 심지어 세상과 사람 앞에서 낭패 당했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선 오히려 그럴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결국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새어 나오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

많은 불신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한다. 아무리 완악한 불신자라도 감당 못할 큰 실패를 겪고 나면 자연히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려 하고 또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도 해본다.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인가? 마음이 여전히 교만해서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보려는 목적이 오직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환난만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의 존재, 삶, 인생 전부를 하나님 뜻 안에서 재조명해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벌거벗은 인격이 그 인격 전부를 걸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의 실체를 보고자 간절히 소원하지 않는 한 그분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현실적 필요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베일 속에 더욱 감추신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진심으로 항복한 적이 없으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힘이 모자라 행복했던 일을 들고 나와 옹드린다면 말이다.

말로는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믿어져야 믿지?”라고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바로 지금 이 고통 받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믿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뜻일 뿐이다. 해결해 놓은 것이 화끈하게 마음에 드는지 검사해 보고 또 내 마음에 믿어지는지 안 되는지 그 때 가서 보자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 도깨비 방망이처럼 똑딱 해치워서 뭔가 보여주어야 믿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자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문제는 신자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하나님 당신을 보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하나님 당신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능력만 빌리려는 자에게는 하나님 쪽에서 도리어 관심을 표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신자가 분명히 주인과 종,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로 서있지 않고는 어떤 것도 둘 사이에 진척되는 일은 없는 법이다.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괜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은 진정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어 본 자라면 무슨 뜻인지 안다. 이 두 말이 상이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신자는 그분이 살아 계셔서 자기 곁에 항상 임재 해 있으며 자기를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럼 신자 곁에 계신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 바로 그 분을 보았다는 뜻이지 않는가?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 더 이상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신자도 불신자처럼 그분 대신 그분의 능력을 보고 싶다는 뜻임에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보자. 당신은 하나님을 보았는가? 그래서 지금도 보고 있는가? 보이는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9)

즉흥적인 성경 읽기

하나님은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어(갈4:4) 인류 구원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다. 역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나시기 훨씬 전부터 마련해 놓은 구속 계획이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미리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조성하셨다는 뜻이다. 당시 역사를 성경 기록과 검토하여 신학을 공부해 보면 그 많은 상황과 사건들 하나하나가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일어났어야만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것들이 서로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그 각각에 하나님의 고유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놀라게 되는데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다.

그런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시키려 했다는 것도 포함된다. 헬라어는 예수님 당시의 지구상의 언어 가운데 그 표현법이 가장 세밀하고 정확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현존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과학적이라고 평을 받는 독일어의 어미변화는 200여 개인데 비해 헬라어는 800여 개로 각 어미변화마다 뜻이 다 다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당신의 궁극적인 인류 구원의 계시를 후대 사람들에게 혼탁하지 않고 정미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반면에 우리 한국어에는 시제, 단수 복수, 관사 등의 구분이 거의 없다. 모든 표현이 그저 두루 몽실하다. 물론 그것대로의 감정 표현이 아주 풍부하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노랗다는 표현만 해도 샛노랗다, 누르팅팅하다, 노르끼리하다, 등 도저히 외국어로 번역할 수도 없다. 추측컨대 우리 민족성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서 언어에도 그렇게 반영되었는가 보다.

한국 신자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봐도 아주 즉흥적, 감정적이다. 조금만 힘들어도 목사가 권하지 않아도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스스로 나와 울며불며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 그러다 응답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밀었는지 본인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짝 변한다. 부흥회에서 조금만 은혜 받아도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당장에 이 세상을 뒤엎었을 것 같다.

틀림없이 감정적인 측면에서 신앙 열심과 정성만큼은 세계에서 최고일 것이다.

그런 신앙 기질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거의 대부분의 신자가 더럽고 추한 생각을 죽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버린다. 청결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먹자는 것이다.

그 해석이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한대로 신앙생활에 실제로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내 마음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텐데 무엇을 청소해야 하나? 왜 이런 자꾸 쓸 데 없고 나쁜 생각이 나지? 이런 생각이 아예 떠오르지 않게 할 좋은 방법은 없나? 대신에 착한 마음만 자꾸 생기도록 해야 할 텐데 기도를 할까, 성경을 볼까?”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소망한 대로 성과를 얻겠는가?

말하자면 사람이 이제 두 번 다시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착한 마음만 먹기로 결심한다고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말이다. 또 그런 노력을 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치면 하나님이 보이는가? 만약 착한 마음을 먹고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이 잘못되었을 리는 없으니 당연히 그 해석이 틀렸다는 뜻이지 않는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럭비공과 같아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본인 스스로도 모른다. 미국 이민 와서 한국에서 안 해보던 험한 일을 하며 고생하는 마누라가 안쓰러워 잘 대해줘야지 결심했다가도, “누구 아빠는 월수입이 얼마래”라는 말만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 낸다. 혹시 그런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결심 했다가도 저녁 식사를 제대로 차려 주지 않으면 조금 전에 참았던 그 일까지 덧붙여서 화가 치솟는다.

스스로 결심하지 않아서 또 결심한대로 노력하지 않아서 마음이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이미 마음 밭에 쓴 뿌리와 엉경위가 무성하게 만발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것이다. 마누라 강요에 못 이겨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따라 나와서 반성했다고 청결해지지 않는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헬라 원어 ‘청결(카사로쓰)’은 물리적 과학적 용어다. 영어로 치면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는 ‘clean’이 아니라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성분으로 되어 순수하다는 ‘pure’의 뜻이다. 순금(pure gold)은 오직 100% 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깨끗한 금(clean gold)은 그 성분과 상관없이 표면의 잡티를 제거하여 깨끗이 닦은 상태다.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가지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순전(純全)한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따라서 생각이 착한지 나쁜지와 상관없이 여러 잡생각이 완전히 제거 된 상태다. 두 마음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만 된 상태가 청결한 마음이다. 말하자면 악한 생각을 제하고 착하게 마음을 먹는다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마음은 카멜레온처럼 상황과 사람에 따라 천의 얼굴로 변신이 자유로운데 어떻게 몇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어떤 상태의 한 가지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1:5-8)

두 가지 이상의 마음을 품으면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더럽고 추한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가 두 마음이 되었다고 한다. 그럼 한 마음이 되려면 당연히 의심을 제거하고 ‘오직 믿음’만 있는 상태가 되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보려면 시도 때도 없이 속에서 솟구치는 사기, 음란, 거짓, 죄악 된 마음을 죽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부터 죽여야 한다. 그렇다면 정작 따져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의심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면 무조건 큰 죄나 지은 양

어쩔 줄 모른다는 것이다. 현실적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초조하고 불안해지면 당장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할까?”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하든 그 염려하는 것 자체를 중지하려 든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지 싶어 성경공부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 본다. 기도의 내용도 순수하고 겸손하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이 의심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의심이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은 저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잠시 잊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제가 두 마음을 품은 것 같습니다. 주위와 환경과 사람만 보는 바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끝내고는 정말 전쟁터에 나가듯이 비장한 얼굴을 하고 입술은 한 일자로 딱 다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을 읊조린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심이 정말 사라지고 온전히 믿어졌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염려를 맡겼으면 기쁨은 몰라도 최소한 평강은 있어야 하는데도 왜 꼭 결사대처럼 죽기 살기로 덤벼야 그 믿음이 유지되는가 말이다.

의심의 반대는 물론 믿음이다. 믿음이 생기면 의심이 없어지고 그 반대로 의심이 사라진 것이 믿음이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의심 자체를 없애려 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스스로 아무리 믿음 자체를 키우려 노력한다고 키워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정말로 믿어져야 믿어지는 것이며 또 진짜로 믿어지면 의심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저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결정하는가? 반드시 말이나 일을 시켜 보고 믿을지 말지를 판단한다. 말하자면 시험(Test)을 해서 자기가 정해 놓은 기준을 통과하는지 떠본 후에 믿는다.

신자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그럼 왜 신자들은 하나님을 시험도 안 해보고 무조건 믿으려 드는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니 불경스러운 것 같은가? 절대 아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법은 절대 없다. 하나님에게 의심이 드는 것은 죄인 된 인간의 자연스런 반응이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해 보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하나님을 의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믿거나, 시험해본 경험도 하나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

기독교에서 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 하여,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더러 무조건 당신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 자유의지를 주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만 당신께 나오라고 했다. 의심하면서도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나오는 것과 의심이 드니까 확실한 믿을 거리를 달라고 솔직히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어느 쪽을 기뻐하시겠는가?

시험(Test)의 세 종류

나아가 하나님 스스로 신자더러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자기 백성들 앞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신30:15)라고 하시면서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을 보이셨다. 계명을 지키는 길로 가면 복을 받고 그 반대로 가면 화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둘 중 어느 길로 갈지는 신자의 책임과 선택에 맡겨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뜻이다.

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선 온전한 십일조를 바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보장하셨다.(말3:10) 그런데 간혹 십일조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에서 감사하는 뜻으로 나중에 내는 것인데 미리 내고서 복을 더 주는가 안 주는가 시험해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의아해 하는 분이 있다.

물론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의 성격은 신자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이며 또 그 감사의 표시로 사후에 내는 것이 원칙이다. 헌금을 자기 힘에 부치도록 내 놓고 그에 비례해서 복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유혹’(Temptation)과 ‘연단’(Trial)을 뜻하는 시험 말고 어떤 기준을 통과하는지 알아보는 ‘시험’(Test)에는 세 가지 경우가 포함된다.

첫째는 흔히 이 구절을 오해하듯이 하나님이 십일조를 내면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복을 받아 내고자 십일조를 바치는 경우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동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 돈 액수만큼의 과자가 떨어지는 것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단순히 기계로 보고 그 기계를 ‘조종’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로 어떤 새로운 이론을 정립한 학자가 실험한 결과로 그 이론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시험이기 보다는 ‘증명’에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므로 따로 증명이나 구태여 변호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을지 틀릴지 실험으로 증명해 보여야만 한다면 참으로 우스운 하나님이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실험은 따르지만 조금 다른 뜻의 시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아직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적이 전혀 없어 그대로 따라 해서 분명히 ‘체험’해 보려는 것이다. 둘째 실험은 ‘증명용’ 실험이라면 이것은 ‘체험용’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신자더러 당신을 시험해 보라는 뜻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십일조를 내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겠다고 해서 다음 달 월급이 갑자기 두세 배로 늘어나게 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일조를 선뜻 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한 달 수입이 3천불인데 그 중 300불이면 최소 한 달간 가족의 식비는 충분히 되는데 그냥 내자니 너무 아까운 것이다. 수입의 1/10이 빠져 나가면 9/10로 어떻게 살아 나갈까 걱정인데다, 그것을 꼬박꼬박 모아 뒀 돈을 만들면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차피 갖고 있으면 써버릴 것인데도 마치 생돈 1/10이 나가는 것 같은 심정이다.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풀어 설명했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말3:11-12)

벌레가 생겨 열매가 썩거나, 서리나 우박이 내려 익기 전에 떨어지는 일을 막아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나무마다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 과수원이 아름다워지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지 과수원을 갑자기 몇 배로 늘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갑작스런 병이나 사고로 예정에 없던 비용이 나가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는 것이다. 열매에 황충이 먹고 수확기가 되기 전에 비바람이 치는 것도 다 하나님 당신의 주관 아래 있는 일임을 알라는 뜻이다.

이전에는 10/10을 갖고도 부족하게 살았는데 생활 형편을 줄인 것도 아닌데 1/10을 내고 9/10로도 쓰고 남는다는 것을 반드시 직접 체험해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네 삶의 온전한 주인임을 절감할 것이라는 뜻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는” 길이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종교적 열심과 성의를 더 보이라고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과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사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될 뿐 아니라 실제로도 풍성한 기쁨과 열매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치사하게 돈으로 시험하라고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신자더러 치사하게 십일조 같은 돈 문제로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을까? 뭔가 더 고상한 것을 걸어 보라고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산상수훈대로 살면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하셨으면 신자가 자연적으로 더 거룩해지니 하나님으로선 일거양득(?)이 아니었겠는가 말이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에 대해 인간이 가장 잘 알아듣고 눈이 번쩍 뜨이도록 정신을 차리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돈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돈 문제를, 그것도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통해서 들고 나오셨겠는가?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자기 백성들이 제대로 율법대로 사는지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더 이상 참다못해 마지막으로 돈을 걸고서라도 정신 차려 바른 길로 가게 하자는 뜻이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징벌이 끊이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그들 앞에 펼쳐 놓은 두 길 중에 축복의 길을 외면하고 저주의 길로만 갔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도 그저 조금 힘든 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해 놓고 복을 안 주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설 새 없이 불평했다. 유대인들은 희생 제사를 바치면 자동판매기처럼 당연히 복이 따라 올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서 나의 은혜와 사랑을 열방에 증거하고 그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너희 과수원에 황충을 금하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자가 누구인지 잊은 채 오직 창고에 쌓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구나. 좋다! 그렇다면 정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창고에 넘치도록 쌓아줄 테니까 다른 것은 안 해도 좋으니 최소한 온전한 십일조라도 바쳐 보아라. 그래서 과연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라.”고 제안한 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의 임무를 등한히 해도, 율법을 안 지켜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자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 만이라도 제대로 깨닫게 체험해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돈에 굴복하지 않고 살기만 해도, 다른 것 다 놔두고 그것 하나만을 보고서라도 복을 부어주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선 참고 또 참아 최대한 양보한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신자에게 제발 순수한 믿음만이라도 보여 달라고 하셨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간을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셨다. 하지만 사실 침묵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400 년간을 더 기다려 준 것이다. 그것도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가슴을 치고 한탄을 하면서도 그랬다.

하나님의 이런 기가 막히고 애끓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 어느 민족도 체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약속조차 틀림없이 지키지 않을 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400년의 기다림이 수포로 돌아가자 인간 쪽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단지 믿음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지 않는가? 또 얼마나 무궁한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가?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구원 뿐 아니라 현실적 복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런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바로 너희가 가장 아쉬워하고 그저 불안해하는 돈 문제를 걸고서라도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면서 말이다. 비유컨대 하나님으로선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최후의 카드마저 보여준 셈이다. 그럼에도 소위 믿음이 있다는 자들조차 1/10조라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망설이고 심지어 더 이상 그 약속은 유효하지 않다고까지 주장한다. 제 복을 제가 차 있어 버리는 격이다. 다른 어떤 약속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눈앞에 더 가까이 펼쳐져 있는데도 말이다.

결국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온전한 믿음이다. 돈, 세상, 사람, 사단, 사망,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 된 신분과 특권을 흔들지 못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100%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미국의 D.L. 무디 목사는 성경 구절 중간 중간에 항상 메모를 적어 놓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뜻을 풀어 설명하거나 주석을 옮겨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영어 알파벳 T와 P 두 글자뿐이었다.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그 뜻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T는 Tested(시험해 보았다), P는 Proved(증명되었다)의 약자라고 했다. 어떤 글에는 T만 있었는데 아직 시험 중이라는 뜻이었고 완전히 입증이 되어 믿어지면 P를 덧붙여 넣곤 했다.

믿음에 있어선 날 때부터 신령한 영적 천재란 없는 법이다. 무디는 알다시피 구두 수선공 출신으로 신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했지만 부흥 전도사로 지금의 빌리 그래함보다 전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던 그도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 직접 생활에 적용해서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만큼만 그 믿음이 자랐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오직 한 마음이 되지 않아서다. 오직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이유는 확실하게 안 믿어지니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약속대로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시험을 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하나님이 아주 명시적으로 약속해 놓으신 십일조라는 것이다.

Test 했더니 Prove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이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 보았다는 뜻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다. 역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유가 성경 공부를 덜 했거나, 착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시험해보지 않은 이유는 의심이 들지 않아서다. 그리고 의심이란 단순히 신앙이 흔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이 안 되었다는 것이다. 두루 몽실하게 물에 물 탄 듯, 혹은 맹목적으로, 아니면 조건을 걸고 거래 하듯이 하나님을 두 마음 이상을 가지고 믿고 있다는 뜻이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약간 양심에 찢리는 것들을 형식적으로 반성하고 다음 주는 착하게 살고 말씀과 기도예 더 열심을 내어야지라고 결심하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십일조 내었으니 하나님 복 주시겠지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거기다 목사 말하는 대로 무조건 아멘해선 평생 가도

하나님을 못 본다.

각자의 영혼의 성전 문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닫고 있거나 하나님 쪽에서 먼저 닫고 싶어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 마음이 되었는지 심각하게 갈등하고 고민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정말 하나님 당신을 보여 달라고 울부짖어야 한다.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심지어 돈 문제를 걸고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아무 의심 없이 완전히 믿어지기 전까지 자꾸 시험해야 한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떻게 야단쳤는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계3:15) 더우라고 해서 화끈하게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요, 차라고 해서 제자 훈련 전 코스를 개근해서 성경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도 아니다.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어떤 종교라도 믿는 것이 낫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니까 믿어보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믿지 말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정말 ‘아바(아빠) 아버지’라고 세상의 어떤 것 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를 수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가?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슬픈 일이나 기쁜 일 모두를 주관하고 계시며 결국에는 당신의 영광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는가?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련 중에도 자신의 고통을 당장 끝내는 것보다 장래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더 소원하는가? 아니 다 제쳐 두고 단 한 가지라도 확신하는 것이 있는가? 즉, 돈에 쪼들릴 때에 돈이 나를 살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럴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기에 돈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이다?

도무지 이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고 그 의심한 것의 결말을 분명히 볼 때까지 무엇이든 시험해 보라. 단 자기 당면한 현실 문제만 해결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실체를 보고 싶은 소망으로 시험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길 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절대 따로 없다. 하나님을 보는 복은 절대 누리지 못한다.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물론 제자들과 숫자로 비교도 안 되는 숫자의 큰 무리도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볼 것이라고 신자가

되는 복을 이미 말씀하셨다. 또 이 복은 여섯 번째 복이다. 어느 모로 따지나 사실상 이미 믿은 자가 대상이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분을 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험해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뜻이다.

우선 예수를 믿고도 자꾸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분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럴수록 자꾸 종교적 노력을 통해서 질적 양적으로 믿음을 키우려 들지 말고 오히려 의심을 제거하여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과 지난 체험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것이다. 정 그런 노력으로도 부족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형식으로 시험해보라는 것이다. 단 체험이나 체험을 통해 받을 복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말이다.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불신자 남편의 불만

신자 아내를 둔 불신자 남편의 불만이 무엇이겠는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이유가 많다. 예수를 믿었으면 남편에게 더 잘해야 하지 않겠는가? 새벽 기도 갔다 왔으면 남편 아침밥을 더 정성껏 차려 주고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사랑으로 뒷바라지해야 할 것 아닌가? 집안 정리도 더 깨끗하게 해야지 집구석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왜 구역예배다, 심방이다, 전도다 하고 싸돌아다니는지 꼴도 보기 싫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된다.

정작 문제는 남편이 혹시라도 그런 불만을 내비칠라 치면 하나님의 일 하는데 걱려는 못해줄 망정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원수인양 몰아세운다. 다 아이들 공부 잘하고 당신 사업 성공하라고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좋아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아내는 사실은 종교생활만 하고 있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불신자 남편이 기대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쉬운 예로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횟수는 점차 줄어들어야 한다. 부부 중의 어느 한쪽만 신자라면 당장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가려 하기 이전에 본문처럼 화평케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방인 선교의 발상지이자 거점이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신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행11:26) 되었다. 이 때 ‘그리스도인’이란 원어로 따지면 ‘작은 예수(little Christ)’라는 뜻이다. 그만큼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았고 또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일이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다 십자가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목적과 결과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화평’이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엡2:12)들을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엡2:14,16) 하셨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 구분 없이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그들끼리도 서로 하나 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신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고후5:17)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고후5:18)을 맡은 자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란 자기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사회, 민족, 국가 등 어떤 공동체에서나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케 하는 자를 의미한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신자들이 교인을 볼 때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는가? 모였다 하면 서로 싸우고 나뉘지는 자들이다. 불신자와 신자, 불신자와 불신자끼리의 담을 허물기는커녕 신자들 사이조차 오히려 담을 쌓고 원수처럼 싸우니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인가?

물론 교회도 다른 모든 인간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모였지 완전한 자가 모인 곳은 아니다. 불완전한 죄인끼리 모이면 언제나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또 교회 다니는 신자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천은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20-30%도 안 될지 모른다. 나머지 70-80%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 교회의 멤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변명과 핑계가 신자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다. 그 핑계대로 따지자면 불완전한 죄인이 모인 교회 안에 막힌 담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자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자일진대 20-30%나 되는 참 신자는 그 동안 도대체 담을 허물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아예 손을 놓고 방관만 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담이 쌓여져 가는 것을 알게 모르게 거들은 것은 아닐까?

교회의 분쟁은 주로 어디에서 발단되는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제직회다. 그것도 제직회를 시작할 때에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렇다. 제직을 맡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거듭난 신자라는 고백을 한 세례 교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거듭난 크리스천, 즉 작은 예수로 불리어져야 할 자들이 먼저 분쟁을 시작하여 키우고 급기야는 분열까지 간다.

교인들이 거창하게 직장파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화해시키려 들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라도 화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신자들 중에 교인끼리 화목은 둘째 치고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친척, 등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도 원수처럼 지내는 자가 수두룩하다. 그것도 거듭난 신자임에 틀림없고 교회에서 아주 존경 받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까지 그렇다. 도대체 교인마저 남들과 화평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역설적이지만 그 원인은 신자들이 자꾸 스스로 남과 화평하려 들기 때문이다. 솔직히 우리 모두 남과 원수 사이로 지내길 원하는 자도 없고 또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자기 믿음이나 소원과과는 상관없이 이상하게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담이 쌓이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심지어 화평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말에 오히려 상처가 덧나는 경우마저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말로서 알아먹고 고치는 존재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야 그나마 겨우 정신을 차리는 고집불통이다. 솔직히 우리 모두 어렸을 때 부모님의 훈계, 자랄 때에 형제나 친구의 충고, 결혼 후의 배우자의 잔소리에 마음이 녹아지고 그대로 따라서 고친 적이 많은가 오히려 반발하고 미워한 적이 많은가? 내 자신이 그러할진대 남도 나와 똑 같거나 더할 것이라고는 왜 생각 못하는가?

화평을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신자가 화평케 하지 못하는 아주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모든 경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유다. 신자 스스로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한 자는 남과도 화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가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 속에 평화가 없는 자가 남과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자기와 불화한다는 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열등감, 기질이나 성품상의 도덕적 결함, 의지력의 결핍 등과는 다른 차원이다.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된 신분, 위치, 소속, 특권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해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신자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미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그저 주여 믿습니다.”만 연발하고 있다. “믿습니다. 아멘!” 하여서 신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기에 “믿습니다. 아멘!” 하라는 것이다. 전자는 “믿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의 뜻이라면 후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라는 뜻이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에 감사하는가? 기도하면 암 같은 불치병이 낫는 것인가? 죄송하지만 심지어 무당도 굿을 하면 죽을병에서 고쳐 주기도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신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권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신자란 자기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에 이미 성령의 전으로 바뀐 자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롬8:1) 된 신분으로 바뀌었다. ‘결코’ 없다는 것은 단순히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 아니다.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죄에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예수를 믿으면 절대 지옥에는 안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역으로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었다는 뜻으로 그치지 않는다. 로마서 8장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신분의 특권을 어떻게 결론짓고 있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8:35,37-39) 사망과 장래만이 아니라 생명과 현재 일에서도 천국은 실현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은 환난, 곤고, 핍박이 닥치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율법을 어긴 적이 있는가? 이웃에게 구제를 등한히 했는가? 성전 제사를 잘못 드렸는가? 기도와 금식을 정해진 때에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죄책감이 들 때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 말, 생각을 회개하여 고치려 들지 않았다. 하나님 쪽에서 신자에 대해 뭔가 기분 상했던 일이 있었거나 자신들이 바친 열심과 정성을 몰라준다고 여기고 그분에게 따지려만 들었다.

성경은 신자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 대신에 환난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 자식을 초달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허락하는 징계는 있지만, 죄에 대한 심판 일변도의 환난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모든 징계는 신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벌주기보다는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해 죽이실 만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 악의 세력, 죄악 등이 방해해도 절대 줄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1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감히 세상의 어느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비록 네가 죄를 지어 내가 징계를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는데도 왜 너는 불안해하느냐?”라고 신자에게 되묻고 있는 셈이다.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길

줄지에 전 자식과 모든 재산을 잃고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으로 괴로워하는 읍에게 세 친구는 “네가 지금 그 꼴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벌 받았지? 네게 죄와 허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용할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다그쳤다. 불신자 남편도 신자 아내에게 “새벽 기도 40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 기도한 꼴이 겨우 이게 뭐냐? 예수가 우리 밥 먹여 주냐? 차라리 그 시간에 가게 문 일찍 열고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낫지?”라고 구박한다. 신자가 된 특권은 유별난 것이 아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특별히 현실적 지성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우월한 자가 그런 주장과 반발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남편이 야단치더라도 속으로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을 말릴 수는 없어 그래 예수가 밥 먹여 준다. 왜?”라고 반발하면서도 신자니까 끝까지 교회를 가야 한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다. 겉으로는 남편에게 고분고분하게 굴든, 같이 맞대놓고 싸우든 더욱 자기 믿음만 단단히 지키라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자신이 없고 약한 차원이 아니다.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당연히 힘들고 슬퍼진다. 남편의 구박 가운데

들어 있는 “예수가 밥 먹여 주냐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더 벌지?”라는 그 사상과 생활 방식은 완전히 틀렸기에 절대 반대하고 그렇게 살 뜻은 죽어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 안에 나를 영원토록 붙들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련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바뀐 신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며 그 특권을 놓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확신하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도 염려 대신에 소망을 키우며 평강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가 하나님과 화평한 증거다. 나아가 그런 화평이 있어야만 자기 자신과도 화평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런 확신에서 더 고차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한 것이기에 바로 그 자체가 자신과 화평하는 것의 본질이기도 하다.

나아가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룬 신자라야만 이웃과의 화평도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예수 믿는다고 뉘달하는 남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임을 믿는다. 단지 나에게 비천 예수님의 광채가 아직 그에게 비취지 못해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도리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해진다. 믿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는커녕 잔소리만 한다고 같이 따지거나 교리로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에게도 공화를 베풀어서 신령하고 거룩한 당신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한다. 남편이 바라는 대로 새벽기도나 구역공부 갔다 오면 예수 믿는 주부답게 자녀를 돌보고 남편 시중드는 일을 정말로 정성껏 더 잘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과 남편이 화평하기 이전에 남편을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상적인 아내라면 남편과 화평하게 지내길 소원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교회 가는 문제로 서로 싸우는 것도 따지고 보면 화평하자는 것이지 일부러 사이 나빠지고 헤어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문제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성의와 열심만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경건한 노인의 고백

존 맥스웰 목사가 한 신실한 노인 신자에게서 이런 고백을 들었다. 노인은 청년이었을 때는 “이 세계를 변화시킬 능력과 은혜를 달라. 그러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기도를 했다. 중년에 와선 “내 주위의 가장 가까운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다 노년에 와선 “남을 변화시킬 능력보다는 저부터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만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은 그냥 두고 자기만 먼저 바뀌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도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변화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비록 지난 세월 동안 시간을 낭비하긴 했지만 말년에나마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최근에 대형 교회로만 신자가 몰리는 까닭이 무엇인가? 답임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그 많은 회중 속에 들어가 숨으려는 뜻이 더 많지 않을까? 남과 관계를 맺기 싫고, 이웃과 화평하기 귀찮고, 남에게 상처 받고 싶지 않다는 심보다. 내 코가 석자라 남을 섬길 여유와 시간이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그 핑계는 본인이 아직도 자신과 화평하지 못했다는 표시일 뿐이다. 인간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리난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나아가 그 사랑을 받아 변화되고 안 되고는 본인의 책임이다. 물론 사단이 부단히 그 일을 방해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요컨대 하나님의 화평시키는 힘을 막는 자는 자기 자신 외는 없다는 것이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바뀐 신분, 위치, 특권에 관한 확신이 없어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에게 겉을 먹고 있는 것은 다른 어느 누가 아닌 오직 본인의 잘못이다.

많은 신자들이 현재 닦친 시련이 끝나면 ‘평안’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기실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다. 잠시 잠깐 동안 ‘편안’해질 뿐이다. 참 신자라면 환난 중에도 얼마든지 참 평안이 생긴다. 예수 안에 있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쬼을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찾고 자신과도 화평한 상태를 유지하기 보다는 자꾸 주위 환경이 자기와 화평해지기만을 간구한다. 신자가 시련과 환난 중에 화평을 유지하지 못하면

평생을 가도 절대 참다운 화평을 맛보지 못한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피조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은 부패하여 왜곡되어 있고 또 그 속에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환난이 끊이지 않는다. 신자 개인의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믿음의 본질은 시련을 끝내는 실력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화평하여 자신과 이웃과 화평을 이뤄내는 실력이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에 천사들이 이 땅에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평화’가 있다고 찬양 했다. 또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죄인들과 당신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담을 통과한 자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당신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신다. 이 십자가의 영광을 제대로 확인하는 자는 항상 자신과 화평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막힌 담을 허는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앞에 어떤 복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화평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신도 자기와 화평을 이루었고 또 남과도 화평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왜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하고 자신이 없는가? 왜 교회에서마저 서로 상처 주고 시기하고 분쟁하여 나뉘지는가? 종교는 흘러넘치는데 제대로 된 십자가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불신자 남편과도 종교 문제로 다투지 신앙으로 화평하려 들지 않는다. 남편을 정말 하나님과 화평시키려는 뜻은 없고 어떻게 하든 교회로만 끌고 가든지 자기 종교 생활에 방해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갈수록 신자들이 불신자들 앞에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힘이 빠지고 그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인가? 그럴 리는 절대 없지 않는가? 십자가 안에서 제대로 화평을 누리지 못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이단을 두고 “스스로 정죄한 자”(딤후3:10,11)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자라는 뜻이다.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혹시 하나님에게 잘못 보인 것이 있는지 염려하여 그저 열심과 정성을 바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신자마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한다면 단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 빼고는 이단과 다를 바 무엇이 있는가?

진짜로 화목하는 직책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신자는 스스로도 화평을 누려 넉넉히 승리한다.
그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한다. 하나님과 화평 속에 모든 해결책이 다 들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 그 화평의 은혜를 잘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화평 하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 자신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더더욱 넘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마5:19)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교회 안에 가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평소 때에 항상 온유하며 신실하여 가장 존경을 받던 장로가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스캔들에 휩쓸리는 것이다.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워 탄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거나, 교우한테 빌린 돈을 떼먹고 잠적했다거나, 그 자녀가 아버지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정신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부끄러워 다른 교회로 옮겼다든지 하는 일이다.

그런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인자하던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이다. 보통 사람도 어지간해선 범하지 않는 잘못인지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절로 고개가 갸웃 뚱해진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서 그런가? 돈과 여자와 자식에 이기는 장사는 없어서인가? 장로쯤 되려면 믿음이 어지간해선 안 되고 교회 다닌 경력도 대단할 텐데 그 동안 믿음과 생활이 서로 따로 놀았다는 말인가? 믿음이 실제 삶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왜 교회를 다녔는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한 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 생명을 바쳤다. 그래서 신자도 그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따라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기에 망정이지 이전 같으면 절대 그대로 안 두고 요절을 냈을 텐데”라며 이를 악물고 참는 경우가 많다.

비폭력 무저항주의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 속에 복수의 칼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아무리 두들겨 패도 반항은커녕 아무 표정 없이 말 한마디 안하고 끝까지 맞고 있는 자가 사실은 더 무섭다. “안 되는 것은 무조건 되게 하라”는 군대에서조차 그런 사람은 고문관 취급하여 열외로 처준다.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다른 항거 수단이 도저히 없을 때에 동원하는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다. 어찌면 물리적 폭력은 없어도 폭력 중에 가장 큰 폭력이 될 수 있다.

신자의 화평은 다르다. 무조건 비폭력 무저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남아 있으면 아무리 평화적 방법을 동원했다고 해서 화평이 된 것이 아니다. 문제를 부인, 외면, 타협, 왜곡, 봉합해선 더 추하고 골치 아픈 새로운 문젯거리를 만들 뿐이다. 물리적 힘이 동원된다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는 것처럼 가리는 것이 더 나쁜 것이다.

교회의 가장 존경 받는 장로가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한 까닭은 그 동안 자기 속의 죄성과 탐욕과 상처를 그냥 곁만 적당히 봉합하여 남들 앞에선 경건한 척 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속에서부터 끓아터진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그런 영적 모순과 갈등에 대해 장로가 되기 전부터 또 되고나선 더더욱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대처했던 것이다.

부활 후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

예수님은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지 ‘화평 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말은 항상 정확하지 않아서 언뜻 들어선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없다. ‘화평 하는’은 문법적으로 따지면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다. 쉽게 말해 나는 ‘걷는다’는 자동사다. 걷는다는 동작의 주체는 ‘나’이며 그 동작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도 ‘나’다. 마찬가지로 ‘화평 하는’이 자동사일 때는 내 하나 화평하면 그만이라는 뜻이 된다.

“나는 죄 안 짓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서로 빚진 것 없고 빚질 것도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혹시 상대방부터 상처나 손해를 입더라도 예수 믿는 자로서 용서해 주고 없던 일로 친다. 예전 같으면 손해 배상 청구를 하거나 반드시 앙갚음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신자가 된 후 그 정도 된 것만도 대단한 발전이다. 그러나 본문의 ‘화평케’는 우리말 번역도 그렇지만 원어로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용법으로 쓰였다. 그 말은 화평케 할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화평케 하는 행동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행동의 영향과

결과도 당연히 자기보다 목적인 상대에게 미쳐야 한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 실제로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떡이 전해져 그 사람이 들고 있어야 한다. 미운 사람이 떡을 받긴 받되 남들과 적게 혹은 같이 받아서도 안 된다. 심지어 내 손에 남에게 줄 떡이 남아 있어도 안 된다. 단순히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참고 말지”로선 얼마나 화평과 거리가 먼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신자에게 기껏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가르치려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자칫 “예수 믿지 않는 놈들과는 상종도 말고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 박수치고 찬양하자”도 아주 완벽한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될 수 있다.

누군가 우스개로 예수님이 부활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마디가 “놀~랬~지?”였다고 한다. 많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화평이 마치 이 개그 같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들이 나를 죽였어도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네 놈들에게 ‘메롱!’ 하고 놀라게 해줄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한 셈이다.

그래서 신자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는 신자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절대로 복을 받는다. 나중에는 형통하여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해 줄 것이다. 그 동안에 내가 기도하며 찬양하여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너희들이 결코 뺏지 못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속으로 골백번 다짐한 후 불신자들 앞에선 입술을 굳게 다문 모습으로 끝까지 참고 넘어가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화평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였다. 저들에게 실제로 화평이 생겼다. 나에게만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나에게서 화평이 없어도 저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나의 화평은 저들을 용서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를 먼저 택하여 거룩하게 만들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한 것이다. 만약 신자에게만 화평을 주려면 따로 뽑아서 훈련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샬롬의 행복

본문에서 화평이라 번역된 헬라 원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처서 ‘샬롬’에 해당한다. 서로

간에 화평과 번영이 넘쳐 완전한 행복에 이르러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이 아니다. 단지 큰 갈등이나 분쟁 없이 그저 덤덤히 지내는 상태가 아니다. 둘 사이에 담만 안 쌓았다 뿐이지 용서하고 화해한 수준까지도 가지 않고 단지 비폭력 무저항이니까 화평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둘 다 만족하여 행복해지는 살롬은 아예 시작도 안 되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화평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에 앞서 “그리스도 안에” 쪽에 무게 중심이 먼저 실려야 한다.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그 분께 복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 그 받은 복도 실제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나 자기 노력의 결과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예수 믿어 신자가 되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분이 하신 일을 반드시 우리도 그대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한다. 본문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신자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당시 로마 귀족 사회에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라고 전부 다 아들로 취급하지 않았다. 가정교사를 부쳐 엄격하게 교육 시킨 후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여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자만 아들로 칭함을 받았다. 대신에 아들이 된 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 받아 대내외적으로 아버지와 똑 같은 권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요컨대 아들이 바로 아버지였다.

당시의 그런 관습이 은유적 의미로 포함 되어 있다. 신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그분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 하는 자다. 쉽게 말해 실제 그 아들이었던 예수님과 똑 같이 행해야 한다. 화평케 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십자가에 죽고 죄인을 대신 살리셨다. 화평케 할 대상인 상대가 살아야 한다. 기가 펄펄 나도록 살아야 한다. 그래서 상대가 살롬이 될 때에 나도 살롬이 되며 두 사람이 동시에 살롬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요10:10)이라고 했지 않는가? 돈만 바라는 샅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만 참 목자인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양을 살리셨다. 마찬가지로 신자도 그와 똑 같이 해야 한다.

성경이 신자더러 그 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것이다. 단순히 예수님을 도덕적, 종교적으로 닮으라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신자 혼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이를 만큼 참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다른 뽀족한 수도 없는데다 장로 체면에 참고 말지”는 아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 “그놈에게 도대체 사랑을 베풀 만한 구석이 없고, 남에게 줄 사랑도 내게 남아 있지 않으니, 만나서 괜히 서로 피곤하지 않도록 가능한 피해야지”라는 뜻과 같다.

신자가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는지 아주 쉽게 점검해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다. “지금 진정으로 화평케 할 대상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 보는 것이다. 혹시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 나를 두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할 정도라 누구랑 원수지거나, 돈 떼먹었거나, 서로 상처 주고받은 자 없어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대상이 딱히 없는데…”라는 생각이 드는가? 세상에선 그런 자를 화평한 자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전혀 아니라는 증거밖에 안 된다.

화평케 하는 것은 단순히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일이다. 거창하게 아프리카 빈국이나 회교권의 우상 숭배 민족에게 까지 갈 것 없다. 매일 만나 찌지고 뒹으며 사는 아내, 남편, 자녀들, 시부모와 이웃과 직장 동료와 교회 성도들 모두가 화평케 할 대상이다.

신자는 그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과 똑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찔림을 주고 영향을 끼쳐서 새 생명으로 인도되는 변화를 일으켜 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서로 완전히 행복해지는 경지에까지 가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듯이, 신자 개인의 선호도, 호불호(好不好)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그 상대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해주어야 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살롬을 모든 이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복의 근원이 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듯이 그도 또한 신자가 보고 배워서

답아야 할 대상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창12:1-3) 그의 영적인 후손인 모든 신자도 당연히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의 불림을 받은 자다.

그럼 복의 근원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3절 후반부에 너를 ‘인하여’ 복을 주되 다른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에 사용 된 ‘인하여’는 원어적으로 ‘통과하여(through)’라는 뜻이다. 따라서 복의 근원은 복이 발생하는 ‘원천(源泉), 복이 머무는 정거장, 복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단지 복이 통과하는 파이프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의 발상지 자체는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는 복을 받을 길이 없으니 분명히 그는 복의 근원이 된다. 불신자에 대한 신자의 입장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다. 요컨대 아브라함이나 오늘 날의 신자나 단지 복이 지나가는 파이프일 뿐이다.

그래서 신자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남에게 그대로 전해 주어서 화평케 하는 자다. 만약 신자가 화평케 하지 못한다면 복의 파이프가 출국 쪽에서 막혔다는 뜻이 되며 반대로 화평케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 그런데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면 파이프가 뚫어지는가? 말하자면 그렇게 했더니 이웃과 화평해졌는가? 그렇지 않다.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스캔들을 저지른 장로가 성경 적게 보고, 기도 안하고, 교회 봉사에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흔히 신자들, 심지어 목회자마저 복이 통과해야 할 파이프에 녹 쏘여 막힌 것은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청소란 이미 속이 썩어서 막혔을 때 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물이 안 막히고 잘 흐르게 하고 흐르는 물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또 아무리 잘 흘러도 찌꺼기는 처져서 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이 자신을 ‘파이프’로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 잔이 넘쳐나이다 하면서 ‘컵’으로 보고 있다. 또 가끔 남을 섬기거나 용서해줄 때도 자신의 자존심과

이해타산을 개입시키려 든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전할 때도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여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더러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고후3:3)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파이프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막혀 있는 경우뿐이다. 양쪽을 다 열어놓고 물이 팔팔 흐르게만 하면 썩을 이유나 시간이 없다. 그리고 막힌 것은 일단 열어 제친 후에 청소해야지, 막힌 것을 열지도 않고 청소해봐야 여전히 속은 계속 썩어 들어가는데 걸만 광택 내는 꼴이 된다. 교회에서 가장 존경 받는 장로가 너무나 희한한 일로 실족하는 것처럼 말이다.

신자는 한 쪽(입구)은 하나님에게 연결 되어 있고 다른 쪽(출구)은 가족, 성도, 이웃, 불신자, 세상 등과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다. 신자니까 이웃에게 해를 안 끼치고 또 내가 해를 당해도 복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상대를 화평케 하여 새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는 일을 하지 않는 신자는 복의 출구가 막힌 신자다.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출구가 막혔으니 파이프 속에 꼭 찬 찌꺼기 썩기지 않는다. 가장 먼저 세상과 사람을 향해 자기 마음을 완전히 열어야 한다. 나의 의는 일절 앞세우지 말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100%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안타까움이 먼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신자가 하나님을 향한 입구에 대한 감각은 대단히 예민하다. 영육 간에 강건하지 못하면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가로막혀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오히려 입구 쪽은 너무 크게 열어 놓고 있지 않는가? 매일 새벽 기도, 삼일 저녁 예배, 금요 찬양, 구역 공부, 기도 모임, 전도 및 제자 훈련 눈코 뜰 새 없이 입구는 청소하고 넓힌다.

파이프란 양 쪽이 다 뚫려 있고 컵은 한 쪽이 반드시 막혀 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파이프로 만들어 복을 부어 주고 있는데 신자는 출구 쪽을 막고 컵으로 그 용도를 바꾸어버렸다. 그러니 처음 하나님을 알고 난 후 그 컵이 다 찰 때까지는 은혜가 충만하다가 차츰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 줄 여백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당연히 그 동안에 고여 있던 물이 썩기 시작한다.

결국 신자의 막힌 출구를 열어 컵을 파이프로 바꾸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간혹 출구를 열지 않아 물이 너무 썩어 신자의 신앙마저 위태로워지면 하나님이 새 물을

부어주신다. 그러나 여전히 썩은 물과 혼합되는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 컵 전체가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물이 들어와도 잠시 산소 함유량만 조금 늘어난 상태는 되지만 또 다시 썩기 시작한다. 교회 오래 다닌 신자들이 어찌다 은혜 받지만 곧 또 다른 환난이 겹치면 곧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네 꼴이 어때서?

신자가 되면 누구라도 이전과 다르게 남들과 화평하기를 소원하고 또 노력도 한다. 말하자면 그나마 출구를 뚫을 마음은 있다. 그런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 내가 지금 겨우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남을 돕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과 여유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불평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남을 돕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컵부터 먼저 채우겠다는 심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소유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 없이 전부를 바쳐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예수님을 그대로 닮으려 한다고 꼭 순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신자이므로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끌어 모아 불쌍한 이웃에게 갖다 주라는 것도 아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형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유익하게 마련해준 최선의 상태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다. 어떤 현실적 형편에 처해 있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고야 만다는 믿음과 소망이 없고는 출구를 절대 쉽게 열지 못한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부어줄 복의 근원이 되는 실력이다. 끊임없이 컵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파이프 상태로 남아 그 속을 깨끗케 하는 실력이다. 그런데 파이프 입구는 신자가 된 후로 항상 열려 있다. 때때로 내 욕심으로 막힐 때가 있어도 성령이 내주하여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주거나 강권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자가 실제로 노력하여 키워야 할 믿음의 실력은 “출구를 얼마나 활짝 열 것인가”이다. 그것도 자신의 현실적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들어오는 만큼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입구와 출구의 지름을 똑 같이 만드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한 조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다. 이제 너는 복이 통과할 파이프를 쓸 테니까 혹시라도 그것을 담아 놓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복이 오직 너를 통해서만 세상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네가 먼저 빈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란 자신을 통해 이웃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다. 자기 속에 어떤 숨김, 막힘, 썩음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그대로 깨끗하게 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내 형편과 내 꼴이 왜 이런가? 하나님 내 형편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듭니다.” 하면서 자기 속부터 채우려는 심보를 없애지 않고는 어떤 도덕적 종교적 화평의 노력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아니 그럼 현재의 그 꼴은 내가 해준 것이 아닌가? 그럼 지금 그 꼴에다 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냐? 왜 그 꼴이 어때서?”라는 질책만 받을 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항상 신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물론 아직은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지금 그 길을 통과해야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 그 길을 불평하고 가지 않겠다고 고집하면 그 분이 정해 놓으신 목적지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사람, 처해 있는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신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는 바탕 위에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이다.

믿음이 좋아 보였던 장로가 마누라를 버리고, 돈을 떼먹고, 자식을 정신 병원으로 보내는 뒤에는 말 못할 개인적인 이유도 많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마누라와 자식과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그들과 단단히 연결된 속이 텅 빈 파이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대신에 내가 잘못만 안 하면 된다는 식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신자가 만나는 누구라도 육신적으로 병이 들었든,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았든, 경제적으로 궁핍하든, 영적으로 미혹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든, 그 모두가 화평케 해야 할 대상이다. 구태여 찾아

나설 필요 없다. 신자를 항상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어
생생하게 살려 내고 그와 나에게 살림이 동시에 넘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내 파이프의 속을 비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과시키는 길 밖에 없다. 그런데도 교회로 모여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만
전념하여 이미 활짝 열린 하나님 쪽 입구만 자꾸 더 크게 벌리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입구의
지름이 출구의 그것보다 훨씬 커져 파이프 속이 썩어가는 마찬가지로이지 않겠는가? 비록 그 속도는
느리겠지만...

왕따를 당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5:10-12)

자동차에 붙은 물고기

예수 믿는 표시로 많은 신자들이 자동차에 물고기 모양의 마크를 달고 다닌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로 받아 들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간혹 창조가 옳다는 표시로 물고기 안에 Jesus를, 그에 반대하여 진화를 주장하는 자는 Darwin이라고 적힌 것도 달고 다니는데 원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

초대 교회 당시 로마제국은 지역적으로 광대하고 인종과 문화가 다양해 정치적으로 통일 시킬 이데올로기가 필요 했다. 그래서 각 식민지의 고유 종교들은 인정해 주는 대신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자들은 반드시 황제를 신으로 숭배토록 했다. 일 년에 일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서 제사 지냈다는 증명서를 신분증처럼 소지하고 다녀야 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나 어떤 모임이든 인사말로 “가이사는 나의 주(主)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했다.

반면에 신자로선 십계명의 첫 째 가는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를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나 인간을 주로 섬길 수 없음은 당연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들의 주님이 그러했듯이 로마에 대한 반역 죄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순교도 각오해야 했다.

그러나 그런 핍박가운데도 그들끼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서로 나누었다. 또 지하 동굴에서 비밀리에 예배드릴 때에도 이 고백의 각 단어의 헬라어 이니셜을 딴 ‘익투스(fish)’라는 단어로 신자임을 드러내는 일종의 암호로 사용 하였다. 그들이 익투스라고 말하거나 고기 표식을 그리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로마 당국은 각 식민지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독교를 금지시킨 것은 아니다. 황제도 함께 믿으라고만 요구했다. 따지고 보면 형식적으로 황제는 말로만 시인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따로 믿어도 봐주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였지만 유독 예수 믿는 신자만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 날 신자가 자동차에 물고기 표시를 다는 뜻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다. 풀어서 말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어떤 것 심지어 내 생명과도 바꾸지 않겠으며, 예수님이 죽어라고 하면 언제든지 죽겠습니다.”라는 선언이다. 오늘날 과연 그런 헌신에 입각해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물고기 표시를 차에 달고 다니는 신자는 얼마나 될까?

한국인들의 신앙생활

예수님은 신자가 누리는 마지막 8번째 복은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최후에 받는 복이란 신자가 궁극적으로 도착되어야 할 목표다. 그래서 신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다. 지복 중에서도 더 이상 받을 다른 지복이 없는 최고 최상의 복이다. 신자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증거이기도 하다. 역으로 말하면 핍박을 받지 않으면 온전히 성숙한 신자가 아니라는 뜻이요, 최고 최상의 복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경우 솔직히 어떠한가? 현재 핍박을 받는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슬람의 선교사로 간다면 모를까 완전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 된 21세기의 미국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 받는다고 하니 우습게 들리는가? 그렇다고 신자 모두가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닐 테고... 그럼 질문을 한 번 바꿔 보자. 핍박을 받는 것이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이라도 하는가? 이 부분에도 자신이 없는가?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내지는 헛소리를 했다는 말인가? 신자가 그렇게 살기는커녕 마음에도 와 닿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결과가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한국 신자들은 거의가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한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생활’이다. 주일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구역예배와 성경공부나 기도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며, 집에서도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열심히 갖는다. 둘째는 예수를 ‘증거하는 생활’로

전도폭발이나 사영리를 이용한 전도 훈련 등을 받아 노방 혹은 개인 전도에 열심을 낸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답게 ‘실천하는 생활’로 식사 때마다 기도를 간절히 하고 집안에 성구나 그림을 걸고 찬양 테이프를 항상 틀어 놓는다. 신자들끼리 모여 거룩하고 고상하게 교제를 나눈다. 조금이라도 세속적 사건이나 유흥의 냄새가 나면 마치 징그러운 것을 본 양 소스라친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포커스를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믿음 생활에만 둔다. 둘째 증거 생활, 셋째 실천 생활은 조금 등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해야 힘든 일을 이겨내고 주위에 전도도 잘 할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선 믿음을 키워야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것도 예배, 성경공부, 기도 모임에 얼마나 성실히 출석했느냐에 따라 비례해서 생각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신자가 핍박을 받는 문제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이 방해 받는 것에 한정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 가는 아내를 두들겨 팬다든지, 시부모가 예수 믿는 며느리 때문에 집안 꼴이 엉망이 되었다고 구박하는 것들이 핍박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나아가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 받는 박해를 마치 초대 교회 신자들이 지하 동굴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것에 견주기도 한다. 남편과 시부모는 로마 제국 같은 하나님의 철천지원수가 되고 자신은 거룩한 순교자인양 착각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은 흔히 생각하듯 세상 사람이 예수를 믿고 증거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제 3의 핍박

한국인들이 거의 무시하고 있는 제 3의 핍박, 신자라면 누구나 겪고 또 겪어야만 할 가장 중요한 핍박은 따로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15:18,19)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방해와 억압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속세를 등지고 수도원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상대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힘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알아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삶의 목표와 기준으로 삼은 자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하면 신자는 아니다 이것은 틀렸고 저것이 맞다고 하며 항상 정 반대의 길을 가니까 서로 충돌하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를 믿은 신자를 불신자가 볼 때에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 그에 따라 신자가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핍박의 시작이자 본질이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해 핍박하는 세상은 달라진 것이 하나 없이 이전과 똑 그대로다. 신자가 예수 믿고 이상해진 것이다.

그런데도 신자가 항상 갖는 불만은 “그렇게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모양은 아직도 이 꼴이지?”이다. 여전히 세상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으면서 조금 뒤편인 것만이 안타깝다. 그렇다면 성경공부와 새벽기도에 아무리 열심히 참석해도 예수 믿어 바뀐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심하게 말해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다. 신자가 바뀐 것이 없으면 세상은 절대 핍박하지 않는다. 대신에 조롱만 한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고 우리 보다 돈을 더 밝히면서 비겁하게 스스로 노력할 생각하지 않고 절대자의 힘을 빌리려 한다고 말이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의 본질은 세상에서 유턴(U-turn)한 것이다. 더럽고 추한 죄악과 놀리고 매인 흑암의 세력에서 뿐 아니라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허망한 사고와 말과 행동으로부터도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이다. 대신에 의와 생명과 은혜가 넘치며 평강과 자유함이 충만한 하나님의 빛 쪽으로 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란 출퇴근 때에 서울 지하철역 계단에서 모든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혼자서 거슬러 올라오는 것과 같다. 내려오는 사람은 그 방향이 맞고 최소한 틀린 것은 아니라고 고집한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고 분명히 확신하는 자는 다른 쪽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더라도 함께 갈래야 갈 수 없다. 다 같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은 너무 쉽고 편하지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 갈 때는 강한 반발력 때문에 힘이 들게 마련이다.

만약 미국 영주권을 준다면?

다시 말하지만 초대 교회 신자들이 꺾박 받은 일차적인 이유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그것을 열심히 전파했기 때문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전도하기 보다는 믿는 자들끼리 모여 예배드리는 단계였다. 단지 로마 황제에 대한 예배 증명서, 요즘 식으로 말하면 신분증이 없는 불법체류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불법체류가 탄로 나면 국외 추방을 당하지만 로마 시대 신자는 당장 투옥되고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만약 오늘날의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진 성전에서 일 년에 한 번 절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한 마디만 하면 영주권 내지 시민권을 주고 그에 따른 모든 혜택을 받도록 해 주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초대 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로마황제 숭배 예식에는 꼭 술, 음식, 여자가 나오는 음란 파티가 따랐다. 말하자면 신자들은 영주권은 포기할망정 그런 짓은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쟁 포로나 식민지 백성을 노예로 삼아 일상적인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로마 시민 한 명이 평균 4명의 노예를 부리고 있었다. 그러나 신자들은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종이나 노예)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함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앎이라”(엡6:9)는 말씀 그대로 실천했다. 노예나 주인에게나 상전은 오직 하나님뿐이므로 모두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했다. 노예를 쓰지도 않고 쓰던 노예를 풀어 주었으며 예배에도 같이 참석했고 심지어 로마법으로 절대 금지되었던 결혼까지 했다.

이 일도 요즘 비유해보자. LA 자바 시장의 봉제 공장에 불법체류자 멕시코인을 시간당 최저 임금의 몇 배를 주며, 의료 보험과 산재 보험을 들어주고 때때로 보너스를 지급하며, 영주권까지 회사에서 신청해준 셈이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경쟁에서 살아남겠는가? 혹시라도 동기부여가 되어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어 채산성에 차질이 없다 쳐도 동업자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한다. 아마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고발 하던지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공장 시설부터 다 부서버릴 것이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예수를 믿거나 증거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꺾박을 당했다. 비밀 첩보원들이 접선하듯이 물고기 그림을 내보이면서 신자들끼리만 모여 조용히

예배를 드린 것은 이미 핏박이 본격화 된 이후였다. 그 이전부터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들의 삶과 존재와 인생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와 빛을 받았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선 신자들이 비추는 그 빛이 싫어서 돌팔매질을 한 것이다. 오늘 날의 신자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동일한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벧전4:1-4)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음란과 술 취함과 무법한 (황제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초대 교회 신자들을 저희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다. 저희들로선 그런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정상이었다는 것이다. “저 놈들 좀 이상한 것 아닌가? 황제에게 절만 한 번 하면 술, 여자, 영주권 다 주는데…”

신자는 세상에선 전혀 죄가 안 되며 심지어 남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제도, 관습, 유행, 풍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 죄가 되면 절대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도 아무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래야 한다. 신자도 이전에는 잘 몰라서 그런 일에 탐닉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도덕적 죄책감이 들기 이전에 믿음이 자랄수록 그 모든 것들이 점차 추악해 보이며 죄악의 냄새가 나서 저절로 역겨워지게 된다. 또 그 속에 사단의 거짓, 미혹, 사기, 꾀함이 숨겨져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세상은 신자를 이상하게 보지만 신자 또한 세상이 이상하게 보여야 한다.

그렇다고 신자가 갑자기 거룩해지고 고상해진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이 깨끗이 씻긴 후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신자가 더럽고 추한 것에 가까이 가면 성령님이 역겨워 하는 감정이 우리 영혼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령님은 자꾸 빛과 거룩과 생명이 넘치는 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신자에게 심어 준다. 그래서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옛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제발 저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해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친구

소크라테스의 친구 가운데 그 사상과 철학의 수준이 그에 뒤지지 않는 알키비아데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무절제한 생활을 하며 쾌락에만 탐닉했다. 어느 날 그가 소크라테스에게 “나는 자네가 너무 싫네. 자네와 함께 있으면 내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지네”라고 실토했다.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지만 비유컨대 신자는 불신자들 앞에 그런 존재로 서 있어야 한다.

외눈박이 원숭이 우화를 잘 알지 않는가? 외눈박이끼리 모여 살 때는 자기들이 병신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한다. 어느 날 두눈박이 원숭이 한 마리가 출현하자 오히려 두눈박이를 이상하다고 몰아세우며 한쪽 눈을 없애려 하고 정 말을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 원숭이 이야기가 아니라 원숭이에게서 진화(?)한 인간의 이야기다. 진화를 믿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가장 절친한 친구의 잘 나가는 꼴마저 속이 쓰려 못 본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다르다. 외눈박이 동네에서 얼마든지 홀로 살아가는 두눈박이여야 한다. 그래서 “두 눈이 맞다. 절대로 외눈은 병신이다”라고 외쳐야 한다. 한 쪽 눈이 상하든 심지어 그 일로 목숨이 날아가도 두 눈이 맞다고 말이다. 우리는 인간이지 원숭이가 아니라고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선언해야 한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네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 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5:29,30)

오늘날 진화를 신봉하는 많은 서구인들에게 간음은 이미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죄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신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죄를 범했으니 그럴 때는 차라리 눈을 빼어야 한다. 문자적으로 인두로 눈을 지지라는 것이 아니다. 간음을 죄로 여기기 않는 사람들 앞에 지옥 불에 떨어지는 죄라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되돌아오는 모든 불이익과 박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핍박의

본질이다.

신앙생활에 믿음, 증거, 실천 생활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 합쳐서 동일한 하나일 뿐이다.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예배, 기도, 전도 뿐 아니라 사업, 공부, 직장,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참 생명이 드러나야 한다.

물 한 잔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임을 확신하고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마셔야 한다.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신자니까 식사 기도를 했느냐 따지기에 앞서 정말 맛있게 먹고 그 식사 가운데 진정으로 화목하는 말들이 오가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차에다 물고기 표시를 달고 다니는 것으로 신자 된 표시로 삼지 말고 그것을 부쳤거나 안 부쳤거나 간에 교통 법규 위반은 절대 하지 않고 남들에게 양보하는 운전을 해야 한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등한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신자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양 착각하는 것이 문제다. 한국 신자 식으로 하면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일만 한 셈이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기 생활에 실천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반대로 신자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도 신자답게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 신자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만 신자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혹시라도 나는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했다고 생각한다면 기도와 말씀에 등한해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과 관계없으니 그렇게 해도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왕따 당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후, 최고의 복 이외에 신자가 목적지로 삼아야 할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대부분의 신자는 세상에서 핍박 대신 대접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 보는 데 모든 힘을 쏟는다.

핍박은 이슬람 선교사 같은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모두에게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세상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어깨끼리 조금 부딪히는 정도를 두고 핍박이라고 하지 않는다. 기껏 세상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슬쩍슬쩍 피해가며 그들에게 손해 입히지 않는 것으로 신자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겨선 안 된다. 그들과 가는 방향이 정 반대여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피하려 해도 어차피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핍박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차에 물고기 표시를 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는 자기 삶의 전부를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해야 한다. 그러면 이전에는 세상과 죄악과 사단이 자기와 그럴 수 없이 친했던 동업자요 협조자였던 것이 이제는 훼방자요 핍박자임을 똑똑하게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방해와 핍박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깨닫게 해 준다.

왜 초대 교회의 신자들이 물고기를 암호로 하여 지하 동굴에 죽음을 무릅쓰고 모였는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더 좋음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처음 7가지 복은 물론 8번째 복까지 차지하지 못한 자들이 없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신자만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누렸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를 지녔는가? 가장 성숙한 신자라는 표시가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핍박이 정말 좋은가? 그래서 초대 교회의 사도들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가?”(행5:41)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5:10-12)

야당 당수의 절규

한국의 유신독재 시절에 야당 당수가 국회에서 제명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비록 닭이 목이 꺾여 새벽을 알려주는 울음소리를 못 내더라도 시간 되면 새벽은 어김없이 온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아무리 독재 권력의 서슬이 시퍼래도 민주화라는 시대적 대세는 거슬러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 이교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다 순교 당하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전자는 선교에 종사하는 극히 일부에게 해당되지만, 후자는 모든 신자가 언제 어디서나 평생을 두고 이겨나가야 할 과제다. 그런데 이 싸움은 신자가 일부러 싸우러 나갈 필요가 전혀 없다. 참 신자라면 삶 전체에서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 바로 그 싸움이다. 세상이 신자에 대해 반응하고 대우하는 모습은 신자를 항상 왕따시키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럼 신자가 그런 세상의 핍박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왕따 당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에서 드러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가? 아니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세상 사람이 가는 길과 같아서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가? 말하자면 예수 믿는 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고 느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괜히 그런 질문으로 신앙 양심에 찔리기만 하는가?

그렇다면 범위를 좀 넓혀 시련, 환난, 역울한 일, 상처까지 핍박에 포함시켜서 한 마디로 세상살이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믿음으로 이기는가? 죄송하지만 이런 대답에는 전혀

점수를 주지 않는다. 너무나도 일반적인 대답이라 신앙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모르거나 실제로 구체적인 삶에서 믿음으로 이겨본 체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또 신자들이 입장이 곤란한 경우를 모면하기 위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어떤 상황에도 정답이 되는 ‘믿음’을 들먹인다.

그럼 핍박을 이기려면 인내해야 하는가? 이것도 또 너무 100 % 맞는 정답이라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는 마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책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됩시다,”라고 말하는 경우와 같다. 문제를 한 번 더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분열이 없어지는 것이며 그 반대로 분열이 있으면 하나가 못 된다. 왜 하나가 안 되느냐 그 원인과 대책은 따지지 않고 분열하지 않으면 하나가 된다고 말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자에게 핍박이 닥쳤을 때에 인내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인내 외의 대안은 세 가지뿐이다.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을 따라 열심히 살든지, 자포자기하며 그저 되는대로 살든지, 아예 세상을 하직해야 한다. 신자로선 이 셋 중 어느 것도 택할 수 없다. 그래서 핍박이 닥치면 타협이나 굴복 대신에 일단 인내해야 한다. 또 어떤 면에선 누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믿음과 큰 상관없이 잘 참아낸다. 문제는 인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잘 인내하느냐이다.

인내에 대한 오해

신자가 핍박과 시련에 대해 인내하는 모습은 백이면 백이 다 “닭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식이다. 시간이 지나면, 끝까지 참아 내기만 하면, 믿음으로 잘 견디기만 하면, 새벽기도에 열심히 출석해서 울부짖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만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붙들고 있다. 손에 땀과 피가 날 정도로 잘 붙드느냐에 따라 믿음의 실력도 달라진다.

물론 이것도 분명히 믿음의 일종이며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백번 낫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인내하는 것만이 전부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꼼처럼 성격이 무디거나,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뜻이 되어 버리지 않는가?

신자들이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게 된 배경은 목사님들이 어떤 핍박이 닥쳐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최종 승리는 신자의 몫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8:28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신자들은 어떻게 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나타날 때까지 참기로 한다. 또 환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그때서야 선이 실현된 것 인양 생각한다.

솔직히 자신에게 한 번 물어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참아내었더니 합력하여 선이 되었던 체험을 얼마나 했는가?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인가? 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살아갈 동안 얼마나 많이 겪을 것 같은가? 반면에 몇 년이 넘도록 어찌면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일은 혹시 없는가? 그럼 그런 일은 언제 합력이 되어 선이 되는가? 죽을 때 까지 계속해 기도하며 참아내기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자녀에 대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분이다. 또 신자는 그 선이 이뤄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참고 기다리는 것만이 전부라면 너무 가난하고 초라한 신앙이 아닌가 말이다.

네델란드 출신의 코리텐 붐 여사가 이차 대전 때 독일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유대인을 숨겨준 죄목으로 언니 벤티와 함께 체포되어 최고로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갇혔다. 코리는 두렵고 걱정이 되어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언니 벤티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했다. 시설은 형편없고 난방도 안 되는 좁은 감방에 사람은 많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 너무 불편하고 짜증이 절로 나는데도 그랬다.

그래서 “언니는 걱정도 안 돼? 이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해?”라고 물었더니,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으며 “암! 그렇고말고.”라고 대답했다. 과연 며칠도 안 되어 언니 말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 몹시 추워졌는데 난방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 눕지 않았고 또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빈대 벼룩이 들끓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코리는 또 “이런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언니의 대답은 한결 같았다. “아니 빈대 벼룩마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언니는 너무 위선적인 신앙이 아닌가?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 억지로 감사한 척 가장하는가?”라는 의아심이 들었다.

또 다시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아는 데는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무리 밤늦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해도 간수들이 금지하지 않고 근처에 오지도 않았다. 혹시 빈대 벼룩이 옮을까봐 겁을 내었던 것이다. 당시 나치 독일은 성경을 압수해 불태웠고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 신자들을 잡아 가두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는 마음 놓고 말씀 전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생긴 것이다. 바로 그곳이 교회이자 천국이 되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의 죄성

어떤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해선 안 된다.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신자 스스로 인식 못하는 사이에 오히려 믿음과는 거리가 먼 죄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저 핍박하는 놈들, 나한테 상처 주는 꼴 보기 싫은 놈들, 하나님 꼭 혼을 내 주십시오”라는 못된 복수 심리다.

나는 전혀 그런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큰소리칠 수 있을 것 같은가?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따져 보아도 신자가 승리하면 불신자는 반드시 패배하게 마련이다. 그럼 하나님이 신자만, 그것도 한 일이라고는 기를 쓰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기도한 것뿐인 자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하나님은 신자를 향해선 다함없는 사랑으로, 불신자를 향해선 무한히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지금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다. 신자는 이미 그분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으로 목자의 품 안에 안겨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다. 신자들이 왜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한가? 환난을 참기만 하겠다면 하나님을 신자에게 항상 힘든 일로 평생 훈련만 시키는 분으로 격하시키는 셈이다.

물론 모든 신자가 아직은 천국의 영화를 얻을만한 자격이 전혀 안 된다. 여전히 죄성은 펄펄 살아 있고 또 많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연단과 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를 향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렘29:11)을 갖고 계신다.

평생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만 시키는 분이 아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참아내기만 하려는 생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꿔 말해 자기 욕심, 계획, 일정대로 때를 쓰고 그대로 응답되거나, 최소한 자신이 납득할 만큼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그분의 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으로 인내에만 집중하는 것은 은연중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합격선에 들도록 참아내어야지”라는 뜻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선과 영광은 그 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언제나 필연코 드러난다. 신자에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당신의 인자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요컨대 지독한 환난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그 선을 유보했다가 신자의 인내가 당신의 시험에 합격하는 일정 시점에 이르러야 한꺼번에 부어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신자는 왜 이렇게 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만약 악명 높은 독일군 수용소에 갇혔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제발 이런 곳에서 하루 속히 해방시켜 달라고 기를 쓰고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연합군 탱크가 진격해 와서 독일군들을 다 사형시키고 해방해 주어야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고는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쟁 통에 재산, 직장, 주위 가까운 사람들 몽땅 잃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원통함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연합군 정부가 훈장과 포상금을 지급해주어 형편이 이전과 더 나아지거나 최소한 같아져야 비로소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한다.

환난이 끝날 때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뿐이다. 환난 도중에 드러날 하나님의 선은 도무지 찾지 못한다. 그럴 수 있다고 꿈도 꾸지 못한다. 기껏 수용소에서도 온갖 어려움을 참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간증이나 하고 다닌다. 말하자면 나는 독일

놈들이 내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자랑이다.

벧시는 수용소 안의 힘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으로 만들고 있다고 감사함으로 확신했고 또 실제로 그 선을 발견하여서 주님을 위해 더 큰 영광으로 바꾸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핍박을 어떻게 이기라고 하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있던 하나님의 품 안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 그분의 선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빈대 벼룩이 없고 난방 시설이 된 수용소로 옮겨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추운 날씨와 비좁은 감방과 많은 사람과 빈대와 벼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다.

물론 빈대와 벼룩은 쉽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는 없다. 따갑고 쓰리고 불편하여 당연히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참으면서 헛웃음을 지으라는 뜻은 아니다. 사실 핍박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끝나지 않는 한 자연스레 웃을 수 있는 일이 결코 되지 못한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은 육신의 불편함 내지는 자연적인 반응이다.

신자가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핍박은 차원이 다르다. 아니 달라야 한다. 신자답게 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 오는 결과가 핍박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제대로 신자답게 살고 있는지 자신부터 점검해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다른 말로 핍박이란 신자가 자원해서 당하는 것이지 않는가? 자기가 기꺼이 원해서 하는 일을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는 사람이 있는가?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명한다고 억지로 순교하는 선교사는 없는 법이다.

사업가는 돈을 버는 재미로 산다. 그들도 돈 버는 일이 힘들지만 끝까지 참아 내면 결국은 돈이 들어올 것만 생각하며 일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도 꾸준히 한 푼, 두 푼 모으는 재미를 즐기며 일한다. 나아가 당장은 수입이 없거나 적자가 되어도 일 자체가 주는 재미와 의미에 폭 빠진다.

그러면서도 주위에서 사업이 어떤가 물어오면 “그저 그래. 맨 날 적자였다가 이제 겨우 살아남을 정도야”라고 엄살을 피운다. 혹시라도 남이 돈 많은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빌려 달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금고에 돈이 쌓여 갈수록 표정 관리에 더 조심을 하지만 자기 혼자 만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신자는 왜 이렇게 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와 공평과 정직과 거룩으로 서로 사랑하며 신령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신나야 하지 않는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악한 길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가는 것이 정말 귀하고 귀해 아무도

그 기쁨을 막을 수 없어야 한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넘치고 자유함으로 사니까 불신자들이 시샘이 나고 다른 성도들조차 혹시 시험에 들까 염려 되어 표정을 관리하며 일부러라도 약간 힘든 척 겸손해 하는 신자는 왜 나오지 못하는가 말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핍박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다. 신자가 세상사는 재미로 이 땅을 살려면 죽을 때까지 환난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천국을 사는 재미로 이 땅을 살면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을 그 환난 가운데도 기쁘고 즐거워 할 일이 반드시 있다. 신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던 주님은 당신만의 선하신 뜻으로 함께 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여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잘못된 믿음

성경에서 핍박을 신자답게 승리하는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있다. 바벨론 방백들이 다리오왕의 충애를 받는 유대인 다니엘을 시기하여 왕을 설득해 왕 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 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그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는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

다니엘은 그 조서가 이미 발효된 줄 알았다. 하나님께 매일 경배하는 자신은 이제 곧 잡혀가 사자 굴에 던져져 죽게 될 것임을 알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평상시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왕에게 나아가 변명하거나 법령의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유대인 포로들을 규합해서 항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에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그러나 일부러 창문을 열어 놓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너희 이방인들은 잘 보아라! 나를 얼마든지 잡아가라. 나는 너희의 핍박을 이길 자신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 친 것이 아니다. ‘열린 창’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져 있었다는 뜻이다.

나아가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 남들 다 자는 밤에 창문을 닫아 걸고 살짝 숨어서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의 횟수도 줄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큰 위기라 기도

횡수와 시간을 늘려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냥 평소 기도하던 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런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며 나아가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데 한 치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자기 우편에 좌정해 있는 여호와만 바라보고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니엘은 매일 세 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기도와 경배와 감사는 그의 생활 그 자체였다. 기쁘다고 더 감사하고, 힘이 든다고 더 기도를 늘리지 않았다. 우상을 경배하는 이방의 땅에서 그는 한 날 한 시도 조국과 그 성전에 좌정해 있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권능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더 많이 또 깊이 깨달아 누리고 싶은 소망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문을 열어 놓고 기도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만이 자기 생의 기쁨이자 삶의 전부였기에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었다. 다리오 왕의 조서도, 사자 굴의 위협도 그 기쁨을 줄일 수 없었다. 그에게는 특별한 일로 인해 핍박이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생명과 맞바꾸더라도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잃기 싫었기에 그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당연히 핍박의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다.

우리의 삶에선 왜 그렇게 많이 찬양하고 말씀 보는데도 감사와 기쁨이 없는가? 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평강이 없는가? 핍박이 아닌 것을 핍박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신자라면 정작 받아야 할 핍박을 소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은 환난 때에 참아 내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 해놓고 왜 이리 새벽이 올 때가 멀었는지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신자가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데 무엇을 염려하는가? 나아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계획하셨고 또 그 일에만 있는 선이 바로 지금 더 크고 최종적인 선을 향해 합력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신자란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승리하고 있는 자이지 최후에 보장된 승리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자가 패배자이고 자신들이 승리자인 양 보일지 몰라도 언제나 그 정반대임을 확신하는 자가 신자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믿음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핍박 중에 기도하면서 참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절대 못 누린다. 핍박이 끝난 후가 아니라 핍박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서 평상시엔 도저히 알 수 없고 오직 핍박과 환난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은혜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즐겨야 한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 밤중에 발에 차꼬가 차인 채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차꼬가 풀리며 옥문이 열렸다. 그들이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차꼬가 풀리는 응답을 받고서 찬양한 것이 아니었다. 차꼬가 풀리기 전에 그랬다. 감옥에 갇힌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었던 것이다. 아마 감옥 속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이다. 또 실제로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이 다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행16:19-40)

바꿔 말해 감옥에 갇힌 것이 바울에게는 핍박이 전혀 아니었다. 또 풀려나야만 합력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난 것도 아니었다. 감옥에 들어간 것 자체가 그로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영위하는 삶의 일부였고 또 하나님이 이미 합력하여 선을 이룬 모습이었던 것이다.

신자에게는 최후의 승리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승리의 순간이다. 그 사실을 자꾸 잊어먹으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조차 힘이 빠진 것으로 착각한다. 그저 하나님께 떼쓰는 데만 너무 익숙해 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권능이 넘치는 일인 줄 아는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5:1-12)

날아가는 세월

한 미국자동차 회사의 새 차 광고에 “이 차는 당신이 태어나서 40세가 된 만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또 풀어 설명하기를 “중간고사 시험장에서 잠시 졸다가 깨어보니 직장을 다닌 지 20년째이고 아내와 두 아이까지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을 차의 빠르기에 비유한 것이다.

흔히 20대는 시간이 기어가고, 30대는 걸어가고, 40대는 빠른 걸음으로 걷고, 50대는 뛰며, 60대는 날아간다고 말한다. 시간이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속도로 지나가지 특정시점이라고 더 빨라지는 법은 절대 없다. 단지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자기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을 뿐이다. 또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번뿐인 기회이므로 남은 인생이 짧을수록 지난 인생에 후회와 아쉬움이 많아져 더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게 마련이다.

거기다 본인이 반드시 이루기 원했고 또 이뤄져야만 했던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의 자동차 광고문구도 사실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그것도 청춘에 품었던 소망이 그리 이뤄진 것 같지

않는데 이미 중년에 이르렀다는 뜻이지 않는가? 자기가 소원했던 일을 제대로 이룬 자는 비록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지난 세월을 ‘후회’하는 법은 없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믿는 신자마저 지난 세월을 후회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신자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함을 받는데 왜 후회가 따르는가 말이다. 지난 인생이 후회스럽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는 의미이지 않는가? 진정으로 자신의 소명을 실천하면서 산 자는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지난 과거에 대해선 후회하지 않는 법이다. 과거의 순간순간을 주님 은혜 가운데 동행하고 그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거의 대부분의 신자가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소명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본인의 도덕적 성화나 영적인 성장에만 신앙생활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평생을 두고 목표로 삼는 신자 개인의 그 내적 성장마저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신자가 항상 갖고 있는 불만은 “왜 이리 신앙이 자라지 않지? 거룩과 신령과는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그저 조금만 힘들어도 불안과 염려는 없어지지 않으니...”이다. 거기다 “비록 궁핍한 가운데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 나름대로 정성과 열심을 다해 믿었는데 왜 현실은 항상 고달프지? 뭔가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심도 늘 따라 다닌다.

흔히 하는 말로 ‘영육간(靈肉間)에 강건’하지 못해 괴롭다는 것이다. 믿음과 현실사이의 모순과 갈등이 깊어지고 그 괴리감이 갈수록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야 함에도, 정기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인 양 마치못해 쥐어짜듯이 하고 있다. 말로는 넉넉하게 승리하길 소원하지만 그냥 단순한 승리도 못하고 항상 패배하고 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이런 신앙 고질병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잘못 진단하여 엉뚱한 대책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평생을 두고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신자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가 바뀔 때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겠다고 새롭게 결심하지 않는 신자가 과연 한명이라도 있는가? 그런데 그

중에 과연 몇 %나 제대로 성공하는지만 따져 보아도 뭔가 잘못된, 최소한 비효율적인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기도하지 말고 말씀 보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매년 실패만 거듭하다 보면 나중에는 “올해는 괜히 실천도 못할 계획은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지금껏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큰 사고 없이 무사하게만 해 주시옵소서”하면서 기도나 말씀에 등한하면 그저 피동적으로 주저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재미와 열심은 갈수록 줄어들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응답에 관한 믿음(어쩌면 자신감이 더 맞는 표현일 수 있다)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신자가 실제 그럴지 모른다.

팔복을 통한 영적 성장

예수님의 팔복 강화는 많은 신자들의 바로 그런 고민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다. 예수님은 팔복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이런 저런 복을 주겠다.”는 ‘조건과 응답’ 내지 ‘명령과 보상’의 구조로 말씀하지 않았다. 신자가 온유하도록 노력하면 그 보상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팔복 전부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을 받은 자처럼 신자의 이미 변화되어진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다. 마음이 가난해져라(명령), 혹은 마음이 가난해지면(조건)이 아니다. 명령과 조건은 아직 그 상태가 이뤄지지 않았고 미래에 이뤄질 일이지만 팔복은 전부 현재의 상태다. 심지어 마지막 복은 핍박을 ‘받은’이라고 해서 이미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말하자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자의 이미 바뀐 상태, 생각, 가치관을 말한다. 물론 신자가 자신이 벌써 그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정확히 깨달아 그대로 행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혀 바뀐 상태가 아니기에 신자가 노력해야만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비유컨대 미개인이 텔레비전을 선물 받은 것과 같은 경우다. 생전 처음 보는 기기인지라 대체 무슨 기능을 가졌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선물한 도시인이 전원 스위치를 켜고

채널을 돌리는 등 몇 가지 시범을 보이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작동하기 전이라도 텔레비전은 이미 그 미개인의 것이었다. 그가 따로 만들어야 하거나 작동법을 배우려고 전자공학을 새로이 전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작동할 줄 알아야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의 자기 것을 즐기는 것뿐이다. 마찬가지로 신자도 스위치만 켜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팔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팔복 강화를 통해 구원 받아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것이다. 팔복처럼 되어야 신자로 삼아준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라고 하지 않았는가? “심령이 가난한 것”과 “복이 있는 것”과 “천국이 자기 것이 되어 있는 것” 셋을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건과 결과 등의 의미는 전혀 없다. 이미 신자가 된 복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또 앞으로 남은 공생애 동안에 신자가 누릴 팔복의 작동법도 당신께서 직접 시범해보일 것이다. 팔복은 그래서 신자가 된 이후 이미 자기 소유로 확보되어 있기에 언제든지 누리기만 하면 되는 은혜와 권능에 대한 설명이다. 역으로 말해 신자는 필연적으로 팔복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첫 번째 복만 다시 따져보기로 하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단순히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씨가 아니다. 그것도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바뀌라는 의미는 전혀 없다. 이미 살펴본 대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가난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고 엎드려 행복한 상태가 된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신자라고 말할 수도 없다. 가난한 마음을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의미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팔복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작위 순서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해 마지막 핍박을 받은 상태로 끝나지 않는가?

그러나 팔복이 신자가 된 후에 이미 바뀐 상태를 설명한 것은 분명하지만 신자가 계속 깨달아 실천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미개인이 텔레비전의 부가적이고 복잡한 기능을 습득해나가듯이 말이다. 현실적으로도 신자도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때로 죄와 사단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스스로 노력하여 그 믿음을 유지 성숙시킬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팔복의 모습을 띄게 된다.

바꿔 말해 예수님은 팔복 안에 영적 성장의 비결을 숨겨 놓았다는 것이다. 많은 신자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믿음에 자신이 없는 것이 기도와 말씀에 등한해서가 아니다. 바로 이 팔복의 순서대로 그 믿음을 점검하고 그대로 자라려고, 사실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작동법만 습득하여 활용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무조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본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 팔복의 순서대로 신자 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

당신은 어느 단계인가?

팔복의 8가지 단계를 한 문장으로 합쳐서 풀어서 다르게 표현해 보자. 1)“심령이 가난”해져서 구원을 얻고 거듭난 영혼의 성장이 시작하게 되며, 2) 현실적 환난과 상처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시절의 헛된 세월과 믿은 후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것을 “애통해하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3)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여 어떤 경우가 닥쳐도 요동치 않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일생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고, 4) 그 소명이 자기 삶을 통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기에 즉, “의에 주리고 목마르기에”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더욱 풍부한 은혜와 권능으로 그 일이 이뤄지도록 채워주시며, 5)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짐에 따라 죄인 된 인간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긍휼뿐임을 알아 주위에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 속에만 거하게 되며, 6)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만 가득 차서 즉, “마음이 청결”해져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빛 가운데로만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과의 동행과 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7) 언제 어디에 있든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오직 복음을 증거 하여 화목케 하는 직책에 충성하는 것으로 바뀌어 즉,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대신에 세상 앞에 서게 되며, 8)그래서 주님이 당했던 동일한 “핍박”을 진정한 기쁨과 자원함으로 당당히 감당함으로써 천국의 면류관을 풍성히 차지하는 것이다.

솔직히 내 신앙의 상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는가? 첫 번째 복이라도 제대로 누리는가? 아니 통과라도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이 도덕적 죄인인 것은 시인했으되 세상 사람들 보다는 상대적

의인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 앞에 완전히 발가벗고 엎드림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도저히 진홍 같은 자신의 죄가 회어질 수 없음을 절감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를 알기 전과 후가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말이다.

그래서 최소한 세상에서 부족한 것으로 괴로워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멀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애통해 하는 자가 되었는가? ‘최소한’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이 두 번째 단계에도 도달 못했다는 의미다. 교회 안에 교인은 많아도 팔복의 첫째 복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태반이고 또 그 중에서 둘째 복으로 넘어가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니 기독교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모든 병에서 고침 받고 귀신들림에서 나온 허다한 무리들이었지 않는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믿어 누리는 복이 병이 낫고 잘 먹고 잘 사는 일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팔복에서 현실의 형통을 약속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또 팔복 강화를 끝낸 후에 곧 바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셨다. 신자는 팔복을 누려야 할 뿐 아니라 그 복을 세상에다 올바르게 증거하고 전파하여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부패하지 않고 함께 빛 가운데로 나가도록 영향을 주라는 것이다. 그럼 우리 신앙은 이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과연 마태복음 4장과 5장의 어디쯤에 해당되는가? 아직도 4장 마지막의 허다한 무리에 숨어 있는가? 5장 3절의 가난한 심령은 지났는가? 5장 13절 이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팔복에 대한 오해들

물론 8복이 꼭 그 순서대로 이뤄져야 하는 법은 없다. 신자는 천국에 가서 주님의 자리에까지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영적으로 불완전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첫 단계에서조차 실족하여 하나님은 멀리한 채 자기의 의를 뽐내며 한껏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마지막 땀방울의 단계에서 아주 기뻐하며 당당하게 승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동시에 거치기도 하고 순서를 뒤바꾸어 가며 자라기도 한다. 한 단계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같’ ‘지(之)’자로 왔다 갔다 할 때도 많다.

그러나 참신자라면 예수를 믿는 신앙의 본질이 열심히 기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 받는 것이 아님에는 흔들림이 없다. 그런 문제로 잠시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 인생이 요동치는 법은 없다. 오래 전 한국 시내버스 운전석 앞에 예쁜 소녀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림 옆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가 적힌 액자가 많이 걸려 있었다. 신앙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고 수치스런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 자신의 전 존재와 인생을 걸고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옛 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지어진 새사람으로 변화 받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자라면 암이나 문둥병이 낫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복중의 복(至福) 8가지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또 실제로 누려야 한다. 예수 믿는 자만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알아 무엇을 하든, 누구 앞에서, 어디에 있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8복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이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실현해야 할 천국 즉, 하나님이 신자 본인과 그 주변 모든 것을 거룩하게 직접 통치하는 왕국이다. 말하자면 8가지 단계로 성장하면 죽은 후에 천국에서 복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땅에 신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삶을 통해 실현시켜야 할 천국의 형상 8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8복이 신자의 도덕적 수련, 인격의 도야, 품성의 개선, 기질의 변화 등으로 단순하게 이해되어선 안 된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며 이웃과 다툼 없이 사이 좋게 지내는 정도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당신의 백성들로 채우라는 것이다. 그래서 8가지 복 전부가 신자 개인과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인격적 관계이자 영적 교제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팔복을 의도적으로 아주 적절한 단계에 따라 배열하여 신자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영적 성장을 가르쳐 주셨다.

비록 신자가 불완전하여 8단계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을지라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원칙이 하나 있다. 처음과 마지막이 그것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때, 그래서 영적 성장을 시작하고자 할

때는 가난한 심령이 안 되면 아예 출발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 분을 위해 우리의 목숨마저 기꺼이 드리는 것이다.

또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그분의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한다. 자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해야 한다. 말하자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자신이 주님의 도구로 기꺼이 쓰이겠다는 내어드림이 있어야만 한다. 나아가 마지막 최고의 복을 소유하기 위해선 핍박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팔복이 영적인 성장을 대변한다고 해서 각 단계를 방법론적(方法論的)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애통해야지, 의에 주려야지, 의도적으로 그런 상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면 자칫 성격이나 기질의 변화밖에 오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난함을 절감하여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원해야 한다. 세상의 더럽고 추함을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을 내어 드리면 주님이 은혜를 채워 주셔서 나머지 복들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듯이 팔복도 매뉴얼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뜻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당신을 보여 주시고 들려주시며 만지게 해 주신다.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기에 결과적으로 말씀은 방법이 아니라 실제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

말씀을 방법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은 신자가 받는 모든 복의 근거가 신자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뜻이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나님이 신자를 축복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심지어 신자가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자동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로가 없었다면 인류 모두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어도 “신앙이 왜 아직 이 모양인가?” 자신이 없는 이유는 기도와 말씀을 마치 복을 받는 수단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에선 주문, 염불, 공적, 열심, 치성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획득할 수단은 전혀 없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뜻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신자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유일한 목적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신자가 죽든 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갈망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분과 동행과 연합이 온전해질수록 그분의 인도와 은혜로 반드시 8가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재확인하기 위해 물어보자. 팔복이 진정으로 신자가 누려야 할 지복인 것을 확신하는가? 팔복이 암이 낫고 사업이 흥왕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과 도저히 비교조차 못할 정도로 좋다고 확신하는가? 하나님과 멀어짐이 세상 사람과 멀어짐보다 더 애통한가? 그래서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어떤 손해라도 감수할 준비와 자신이 있는가? 심지어 그분은 생명까지 내어 놓으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 분이고 또 그런 때에 기꺼이 ‘예’라고 순종하겠는가?

별로 자신이 없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처 모르고 있다. 말하자면 자신의 입술로는 신자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다른 질문을 자신에게 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적이 있는가? 일대일로 그분을 대면하고 자신의 주인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단순히 기도하여 환난을 해결하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 삶, 일생을 온전히 그 분의 뜻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완전히 내어 드린 적이 있는가 말이다.

혹시 이 두 번째 질문에는 분명히 ‘예스’인데도 아직 첫번째 질문에는 자신이 없는가?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그 분의 은혜를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이다. 재삼재사 강조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아니다. 팔복에는 현실적 형통이 하나도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팔복은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자신의 영혼이 거룩하게 변화되며 이 세상을 영적인 차원에서 볼 줄 알게 되는 차원이다. 그분의 긍휼을 알기에 주위를 볼 때에 그 분의 긍휼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다. 하나님 당신의 의에 목마르게 되는 은혜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의로 배부르도록 채워주시며 신자도 필연적으로

핍박을 기꺼이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다.

혹시 두 번째 질문에도 ‘예스’를 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하나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이다.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을 보여 주시고 그래서 저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주소서”라고 소원하는 수뿐이다.

지금 당신은 팔복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아직도 암이 나은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이 마지막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